



통권 제34호



한민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2019년 교육 연구 주제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 역사/문화 교육 연구
세계 시민 교육 연구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38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2020년 7월 16 - 18일, Philadelphia, PA

Renaissance Philadelphia Airport Hotel

(500 Stevens Dr, Philadelphia, PA 19113)



한인교육연구 통권 제34호
발행인: 오정선미
편집인: 권예순
발행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발행일: 2019년 7월 1일
인쇄: Design Do, inc. 디자인 두
Copyright © 2019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All right reserved



NAKS www.naks.org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ISBN-13: 978-1-7331340-1-9

www.naks.org



통권 제34호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2019년 교육 연구 주제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 역사/문화 교육 연구
세계 시민 교육 연구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Contents

한인교육연구 통권 제34호

교육 연구 주제 :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한국어 교육

Contents		2
NAKS 설립 목적 및 사명		4
한국어 교육 연구		
소강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어 정보화	7
김은애	유창성 제고를 위한 한국어발음교육	13
김수희/조혜원	‘-(으)ㄴ데/는데’ 어미의 올바른 사용	21
김은호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쾌한 한국어 말하기 활동	27
이예지	Proficiency than Performance	44
황정숙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올바른 이해	48
한국 역사/문화 교육 연구		
김현주	백년 전 그대의 꿈	66
홍선표	서재필과 재미 한인의 3·1운동	73
최미영	주말 한국학교에서의 한국 역사문화교육 15년을 돌아보며	88
임정은	3·1운동 100주년, 그 활동과 의미 가르치기	99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인교육연구 통권 제34호

Contents

세계 시민 교육 연구

김태련	한국 바로 알기	106
김태진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과 한국역사문화 교재 개발	111
신혜영/ 문지혜	글로벌리더십 함양을 위한 한국학교 교육	121
방혜숙	21세기 디지털 리더러시를 지향하는 블렌디드 한국어 문화역사 교육 방안 연구	127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혁		140
NAKS 조직도		144
NAKS 및 14개 지역협의회 창립 연혁		145
역대 이사회 임원		146
역대 협의회 임원진		147
역대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지		149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낙스의 설립 목적 및 사명 / Mission State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는 미주에 있는 1,000여 주말 한 국학교의 연합체이다.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의 개발과 육성, 한국에 대 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함양, 교육정책에 대 한 건의와 협조 추구 등 한인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 체 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종합 한인 교육 기관으로서 1981 년에 창립된 이래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 (501(c)(3) EIN #52-1596204)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1,000여 개의 회원 학교들이 함께 2세들의 미 래 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미국의 전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전국 협 의회 산하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협 의회는 소속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 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 육을 위하여 다양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 협의 회와 교육 행사 및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다.

산하 14개 지역 협의회로는 남서부 지역 (휴스턴), 뉴 잉글 랜드 지역 (보스턴), 동남부 지역 (애틀란타), 동북부 지역 (뉴욕), 동중부지역 (필라델피아), 미시간 지역 (디트 로이 트), 북가주 지역 (샌프란시스코), 서북미 지역 (시애틀), 워싱턴 지역 (D.C.), 중남부 지역 (인디애나폴리스), 중서 부 지역 (시카고), 콜로라도 지역 (덴버), 플로리다 지 역 (마이애미), 그리고 하와이 지역 (호놀룰루) 등이 있다.

Mission State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cultivates the development of strong bonds of friendship among Korean Schools and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It is an organization operating with the goal of nurturing and educating Korean-American in the U.S. Its objective is to instill pride in Korean-American through a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of its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Its other objective is to examine and influence the educational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the U.S. to benefit Korean- American. Structure and Operation

Structure and Operation

NAKS was established in 1981 in Washington, D.C. and is currently spread across the fifty states of the U.S. NAKS unites over one thousand Korean schools and is recogniz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s a non-profit educational organization(501C-3, EIN #52-1596204). The association is composed of a general assembly, a meeting of officers, a board of directors, and a council of presidents representing NAKS’ fourteen regional chapters that collaborate to achieve its stated objectives. While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body, each region imple-ments activities to continually improve and aim for excel-lence in the education its local Korean schools provide.

Naks’s Goal

- Young Korean-American Education Serve regional chap-ters, local Korean schools, and Korean-American societ-ies
- Training of Teachers both first generation Equip them with necessary Korean language, history & culture education
- Nurture & Training for the 1.5 and 2nd Generation Teach-ers Help them to recognize their heritage and identity as Korean-American and to network with others Korean school teachers: Equip them for other 2nd generation Korean-American Students

NAKS’ Events & Activities

- Intensive Teacher Training Program
- Annual Conference and General Assembly
- Publish a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for teachers
- Support NAKS Member Schools- More than 1,000 Regional Korean schools in the U.S.
- Sending the qualified instructors to each regional chapter’s own conference (14 Regional Chapters)
- Support for Regional Chapter’s Teacher Conference
- Support for Regional Chapter’s Teacher Conference
- Develop & Publish Teaching Materials and Assessment/ Measurement System
- Annual SAT Subject Test Korean - Pilot Test
- Develop & Publish Hangeul Textbooks
- Develop & Publish books for Korean History and Culture
- Develop & Publish SAT Subject Test Korean - Workbook
- Education of 2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 Educational Curriculum Contest for Korean Schools
- Speech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 Writing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 Publish Annual White Paper

ORGANIZATION

NAKS is an organization of weekend Korean schools cov-ering 50 states and Samoa. About 1000 schools are orga-nized under 14 regional chapters.

REGIONAL CHAPTERS

New England Chapter: MA, NH, VT, RI, ME
Northeast Chapter: NY, NJ
Mid-Atlantic Chapter: PA
Washington D.C. Chapter: Washington, D.C., MD, VA
South East Chapter: GA, NC, SC, AL, TN
Florida Chapter: FL
Michigan Chapter: MI, Northwest Ohio
Midwest Chapter: IL, WI, MN, IA, MO, KS, NE, ND, SD
Midsouth Chapter: IN, OH, KY
Colorado Chapter: CO, WY Southwest Chapter: TX, OK,

AR, MS, LA
Northwest Chapter: WA, OR, ID, MT, AK
Northern California Chapter: Northern CA
Hawaii Chapter: HI, Samoa

NAKS Present & Future

- Develop Textbooks of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 Develop Teaching & Training Material for Teachers
- Install the Pride as the 2nd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 through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its Culture, History and Hangul, the Korean Language.
- Promot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mong 1,000 Kore-an Schools in United States.

Membership Qualifications

- Institutional Member:
Must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and pay the school membership fee to local chapter. Can participate and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 Individual/Private Member:
Must have represented a Korean School for three years, or must have taught in a Korean School for five years, or must have contributed service as an officer in NAKS for two years, or must have devoted himself or herself to Ko-rean education research and Korean studies.

Benefits for Member

- Free subscription of NAKS’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 Free subscription of annual NAKS Report
- Discount on Korean language textbook series created and published by NAKS
- Discount on registration fees for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Subsidized lodging when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 Access to a network of experts in the field of Korean- American education



한국어 교육 연구

소강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어 정보화
김은애	유창성 제고를 위한 한국어발음교육
김수희 / 조혜원	‘- (으)ㄴ데/는데’ 어미의 올바른 사용
김은호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쾌한 한국어 말하기 활동
이예지	Proficiency than Performance
황정숙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올바른 이해

4차 산업혁명과 한국어

소강춘

국립국어원장

1. 들어가는 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에 기인한다. 사람만이 언어를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의 결과물을 축적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컴퓨터에 인간의 언어 능력을 심어 인간과 비슷한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그동안 인류 문명사에 큰 변화는 3차에 걸친 산업혁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대표되는 기계화이고, 2차 산업혁명은 산업화에 따른 공장 자동화이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연결된 산업의 정보화이다. 1,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3차 산업혁명은 정보가 노동력을 앞선 생산성을 발휘하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사람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과 예측 능력 갖기 시작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동안 축적되었던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기계와 기계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OT)과 가상세계를 현실세계처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 등이 개발되어 인간 삶의 생태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핵심적인 사항중의 하나는 컴퓨터가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창의적인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 심화 학습(딥러닝)의 기반이 되는 대용량의 말뭉치(corpus, 언어 빅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한국어 기계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이후 한글의 우수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개화기 우리말과 글을 연구한 선배 학자들은 우리 국력이 약한 이유를 한글 기계화의 어려움에서 찾기도 했다.¹

한국어 기계화는² 영문 타자기에 한글 자모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타자기를 개발하면서 한글 모아쓰기의 어려움이 제기되었고, 그 해결책으로 한글 풀어쓰기 논의가 시작되었다. 주시경(1876-1914)은

1908년 『국문 연구안』에서 처음으로 한글 풀어쓰기를 주장했고, 이 주장은 김두봉(1922)의 『김터 조선말본』, 최현배(1947) 『글자의 혁명』 등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한글 기계화 사업은 최현배를 중심으로 1968년 2월 18일 설립된 재단 법인 한글학회 부설 한글 기계화 연구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공병우 박사는 타자기에서 한글 모아쓰기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속도도 빠르고, 가독성도 좋은 글꼴로 타자가 가능한 쌍초점 세벌식 타자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1980년대 초에 컴퓨터에서 한글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과학기술처는 1983년 국무총리 훈령 제21호로 두벌식 컴퓨터 글자판과 이에 준한 타자기 글자판을 공포했다. 타자기에서 제거되었던 두벌식 세벌식 논의와 모아쓰기 풀어쓰기 논의는 컴퓨터에서 오토마타가 개발되면서 모두 해결되었다.

3. 한국어 정보화

3.1. 21세기 세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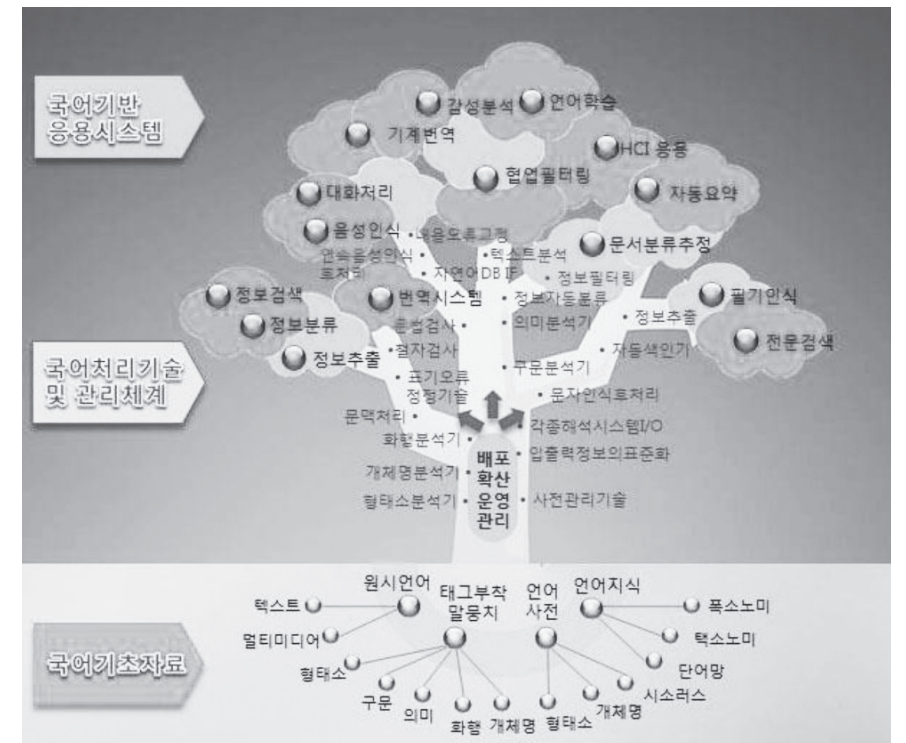
한국어의 정보화의 ‘정보’는 넓은 뜻으로 한국어로 된 모든 지적 작용의 결과물이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정보는 언어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화’는 언어 정보를 일정한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기계나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정보화는 한국어로 된 모든 지적 작용의 결과물을 전산처리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가공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한국어 정보화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었던 21세기 세종계획이다. 이 사업은 <그림 1>과 같이 국어 첨단 응용 시스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어 정보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국어 기초 자료 구축, 전자 사전 개발, 한민족 언어 정보화, 전문 용어 표준화, 글꼴 개발 보급 지원, 문자 코드 표준화, 국어 정보화 인력 양성 분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³⁾



〈그림 1〉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정보화 나무

이렇게 국가적으로 추진했던 한국어 정보화 사업은 국어 정보화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은 충실하게 수행했지만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을 반영해야 하는 산업계의 요구는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포스트 세종계획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포스트 세종계획은 강승식(2011)에 제시된 <그림 2>처럼 정보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는 계획이었다.



〈그림 2〉 강승식(2011)의 국어 정보화 나무

3.2. 인공지능을 위한 새로운 한국어 정보화

언어학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학적 연구 결과물인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들은 산업계와 공학계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자연언어를 전산처리하는 분야에서 많은 부분 표준으로 자리매김을 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대형 사업으로는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데 알파고로 대변되는 대량 심화 학습(딥러닝)에 의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새로운 한국어 정보화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동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영어권 중심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많은 진전이 있고, 중국과 일본도 인공지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은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최근 한국어 인공지능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을 자각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의 핵심은 자연언어 처리 기술이기 때문이다. 즉 컴퓨터가 인간과 비슷한 사고 능력을 갖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반드시 한국어로 만들어진 큰 말뭉치(한국어 빅 데이터)가 필요하다. 대량 심화 학습에서는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 학습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잘 분석되고 정리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언어 자료만 있다면 컴퓨터 스스로 오류도 해결하면서 언어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을 진행한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직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지만 컴퓨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큰 말뭉치를 만드는 일이다.

¹⁾ 이기문(1963), 최현배(1962, 1968) 등에서 한글의 기계화 즉 타자기, 텔렉스, 텔레타이프와 같은 기기 개발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한글의 모아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²⁾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기계화’와 ‘한국어 전산화’는 구분했다. 한국어 기계화는 한글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타자기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기계 개발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전산화는 컴퓨터에 내장된 한국어 지식 자원이라는 측면을 다루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³⁾ 자세한 개발 내용은 2007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된 ‘21세기 세종계획 백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큰 말뭉치는 국가 공공재 성격을 가져야 한다. 저작권이 해결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층위의 정확한 말뭉치가 대량 심화 학습에 필요한 10억 어절 정도는 만들어져야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문 기사, 단행본 책들, 강연이나 방송의 원고와 음성 자료, 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자료, 인터넷 메신저 대화 자료,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게시판, 리뷰 자료 등을 수집하여 말뭉치로 구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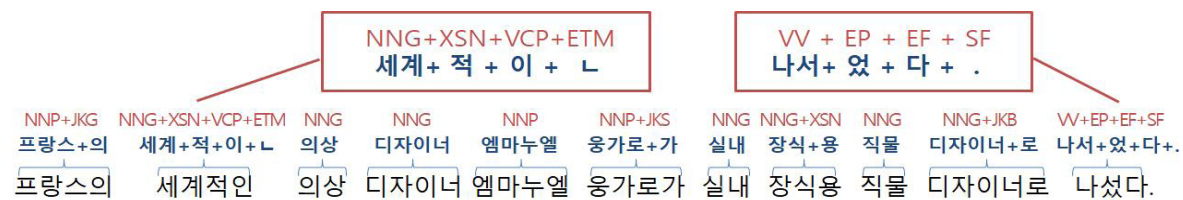
말뭉치의 형태는 원시 말뭉치와 분석 말뭉치로 구분되는데, 그 예를 대략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원시 말뭉치

〈P〉 프랑스의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 엠마누엘 웅가로가 실내 장식용 직물 디자이너로 나섰다.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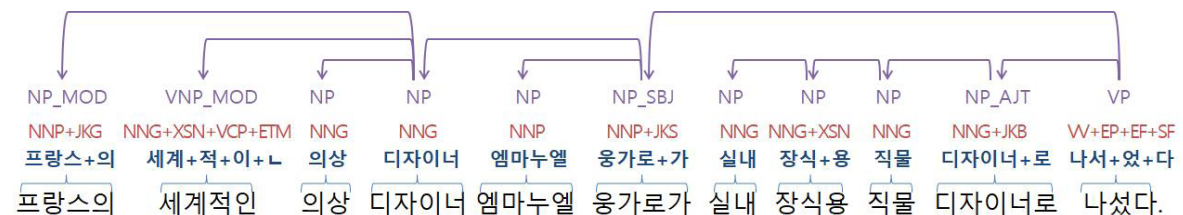
원시 말뭉치는 원문에 특정한 마크업 정보를 부착한 전자파일 형태의 텍스트 자료이다.

(2) 형태 주석 말뭉치



형태 주석 말뭉치는 의미 단위인 형태소나 단어에 품사 정보를 부착한 것이다. 품사 정보는 한국어에 특성에 맞게 설정된 태그 셋에 따른 것이다.

(3) 구문 분석 말뭉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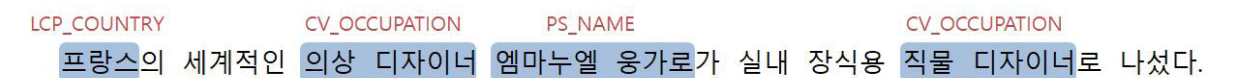
구문 분석 말뭉치는 문장 내 성분들의 수식 피수식 관계를 고려하여 문장의 구성 양식을 분석한 것이다.

(4)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



어휘의미 분석 말뭉치는 동일한 음성 형식이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 부여된 의미번호를 부여해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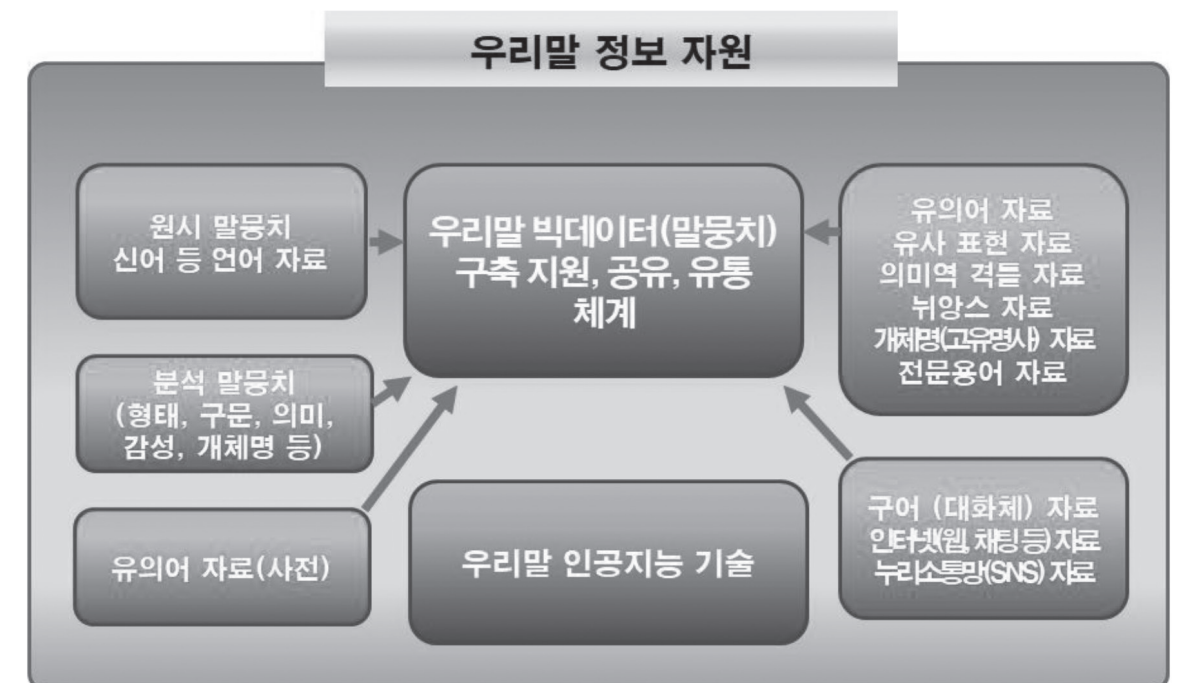
(5) 개체명 말뭉치



개체명 말뭉치는 문장에 사용된 명사의 도메인을 정해준 말뭉치이다.

그 외에 주격 무형 대용어 복원 말뭉치, 상호참조 해결 말뭉치 등이 구축되어야 하고, 유의어 사전이나 유의어 자료, 유사 표현 자료 등 다양한 말뭉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축된 우리말 정보 자원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확장되어야 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필요에 맞게 유통시킬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4. 나가는 말

말뭉치의 질과 양이 해당 언어의 인공지능 성능을 좌우하게 되었다. 우리는 디지털 정보 처리에 가장 적합하게 창제된 한글의 장점을 살려 IT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과 유사한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한글의 장점만으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없다. 오직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 자료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말뭉치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대량 심화 학습(딥러닝) 모형이 공개되기 전에는 소수의 집단 지성에 의해 정확하게 통제된 정보 산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알파고 이후에는 정보 생산 과정 전체가 블랙박스에 가려져 있다. 즉 언어 자료 처리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불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대량 심화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말뭉치 즉 씨앗 말뭉치를 구축해서 정공하는 일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향상을 위해서 이 말뭉치는 언어학자들에 의해 정밀하게 분석된 고급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큰 말뭉치를 구축하는 작업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 되었다. 오직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 씨앗 말뭉치를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의 싹이 나오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는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승식(2011), 『한국어 정보화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국립국어원보고서.
국립국어원(2007), 『21세기 세종계획 백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5), 2015년 시스템 고도화 제한 요청서, 국립국어원.
김두봉(1922), 『집더 조선 말본』, 회동서관.
소강춘(2016), 한국어 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언어사실과 관점 39.
이기문(1963), 『국어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원.
조재수(1994), 외솔 선생님과 한글 기계화 연구소, 나라사랑 89, 외솔회.
최현배(1947), 『글자의 혁명』, 군정청 문교부.
최현배(1963), 『한글 가로 쓰기 독본』, 정음사.
한글학회(2009),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홍윤표(2012), 『국어 정보학』, 태학사.

유창성 제고를 위한 한국어발음교육

— 음운규칙 교수를 중심으로 —

김은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 머리말

발음교육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정확성과 유창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습자 대상의 발음교육은 음소의 음가를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백 퍼센트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글 자모 교육이 끝나면 발음의 정확성 교육과 유창성 교육이 함께 시도된다. 의사소통식 접근법의 대두 이후로 발음교육의 방향도 유창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발음의 유창성 제고를 위한 교육은 특히 억양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재외동포 학습자의 경우 부모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 왔다면 억양의 유창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억양만 원어민 화자에 가깝게 하면 발음의 유창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의 교육 경험으로 볼 때 재외동포 학습자들은 일반 외국인 학습자에 비해 억양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창할지라도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문장을 읽거나 발음하는 연습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발음 연습이 어릴 때 부모와의 생활 속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졌다고 볼 때 그 과정에서 사용된 어휘와 표현은 주로 매우 실제적이고 개수 또한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음운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어 발음교육에 있어서 초분절적 교육 요소 중 하나인 음운규칙은 말 그대로 규칙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하며 어떤 식으로든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음운규칙에 대한 교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국어의 위상이 날로 올라감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재외동포 학습자나 외국인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발음을 유창하게 하려면 음운규칙의 교수와 학습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본고의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음운규칙의 교수 · 학습

지면의 한계로 한국어 학습 초기부터 다루지는 네 가지(중화, 연음, 유성음화, 비음화)에 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1) 중화

한국어의 받침(종성) 발음이 철자와는 달리 발음된다는 것, 초성 자음과 음가가 같지 않다는 점, 받침 발음은 일곱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모 학습 단계에서 매우 강조하여 교수해야 한다.

받침 [ㄱ]	ㄱ, ㄲ, ㅋ	국, 밖, 부엌
받침 [ㄷ]	ㄷ, ㅌ, ㄴ, ㄹ, ㅍ, ㅊ, ㅌ	곧, 다섯, 갔다, 빛, 빗, 끝
받침 [ㅂ]	ㅂ, ㅍ	밥, 숲

영어권 학습자들은 받침 발음을 파열음으로 소리 내어 ‘부엌’을 [부어ㄱ], ‘끝’을 [끄ㅌ], ‘앞’을 [아ㅍ]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부엌’을 발음할 때는 [부엌]이라고 받침 [ㄱ]을 발음한 후 호흡을 잠깐 멈추고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면 좋다. ‘앞’은 자주 쓰이는 단어인 ‘밥’을 먼저 발음하게 하여 받침 [ㅂ]의 조음 방법과 소리를 느끼게 한 후 [아ㅍ]을 발음하게 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고, 많이 쓰는 단어의 발음은 비교적 정확하게 구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화 규칙을 적용 받는 음절의 경우 해당 음절이 홀로 있을 때에만 받침 발음을 유지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2) 연음

받침이 있는 음절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만날 때, 앞 음절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져서 발음되는데 이를 연음이라고 한다. 이 현상은 연음 환경에 따라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연음은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다. 주로 단어 내에서 일어나는 연음 연습을 하게 되지만 유창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면 단어 경계를 벗어나거나 일곱끝소리되기를 먼저 적용한 후 연음을 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도 교수를 해야 한다.

① 단어 내에서

예) 한국어, 꽃이, 먹어요, 앉아요 등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교수·연습이 되는 부분이다. 연음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다. 특히 자모 단계 학습에서 중화 규칙 적용을 강조하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연음에서 다시 초성의 음가를 살리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인이 현실 속에서 다른 발음을 한다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꽃’의 발음은 []이라고 학습했지만 ‘꽃이’의 발음은 [꼬디]가 아닌 [꼬치]이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한국인의 발음은 [꼬시]임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상황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인의 현실 발음에 대한 언급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② 일곱끝소리되기 규칙 적용 후의 연음

예) 첫인상, 웃어른, 못 와요, 옷 안에

7종성 규칙을 먼저 적용한 후 연음을 하게 되는 환경을 학습자가 스스로 알아내기 쉽지 않다. ‘첫인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학습자라면 [처신상]이라고 발음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연음하기 전에 먼저 적용해야 하는 규칙이 있음을 알려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이 쉽게 발음할 수 없는 단어일 경우 먼저 여러 번 들려주고 소리를 따라 해보게 한 후, 철자를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음운규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너무 복잡하다는 인상을 주어 학습 동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③ 단어 경계에서

예) 오백 원, 안 와요, 내일 오세요, 할 줄 알아 등

발음 연습을 시키기 위해 문장을 읽히다 보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휴지(pause)를 두는 학습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한국어 학습자들은 돈 단위를 말할 때 대부분 ‘원’을 독립적으로 떼어 내서 발음한다. ‘오백 원’을 [오백원]이 아닌 [오백#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발음을 한국인이 들으면 매우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띄어쓰기가 발화 시 휴지를 두라는 표시가 아님을 알려줘야 한다. 띄어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연음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이음줄을 그린 후 연습하게 해도 좋다.

사용 빈도가 매우 높지만 자연스러운 발음이 안 되는 예로 ‘안 와요’가 있는데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아와요]가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안#와요]라고 발음한다. 연음을 하지 않고 [안]과 [와]에 각각의 강세를 두기까지 해서 매우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이럴 경우 연음이 된 두 번째 음절부터 발음하게 해 보면 좋다. [와요]를 먼저 두세 번 발음하게 한 후 앞에 [아]를 붙여 발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아]를 강하지 않게 발음하라는 설명도 함께해 주는 것이 좋다.

3) 유성음화

한국어의 평폐쇄음 ‘ㅂ, ㄷ, ㅌ, ㅍ’은 어두 초성에서는 무성음으로 발음되지만 모음과 모음 사이, 받침 ‘ㄴ, ㄹ, ㅇ, ㄹ’과 모음 사이에 올 때 유성성을 갖게 된다. ‘방’과 ‘가방’의 ‘ㅂ’은 철자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소리는 다르다. ‘방’의 [ㅂ]은 [p], ‘가방’의 [ㅂ]은 [b]로 표기할 수 있으나 완전히 유성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어 내에서는 유성음화를 적용하지 않아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발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못 와요’를 연음시켜 발음할 때 유성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모#와요]로 발음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못’과 ‘와요’ 사이에 짧은 휴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모와요]로 발음한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 발음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유성음화는 명시적으로 교수되거나 강조해서 교수가 되는 규칙은 아니지만 유창성 제고를 위해서는 꼭 적용을 해야 하는 규칙이다. 실제로 ‘안녕히 가세요’, ‘더 드세요’, ‘안 돼요’, ‘잘 자’와 같이 일상적으로 쓰는 많은 표현에서 유성음화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이런 예들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이다.

4) 장애음의 비음화

비음화 환경에서 비음화를 시키지 않을 경우 음절과 음절 사이에 단절이 생겨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고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비음화는 단어 내 뿐만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흔히 교육현장에서 단어 내의 비음화 연습은 많이 하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에 비음화를 적용하는 연습은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유창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비음화 연습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못 나가요’는 항상 [몬나가요]로 발음해야 하지만 ‘약 먹었어?’라는 문장을 발음할 때는 휴지 없이 빨리 말하면 [양머거씨]로 발음하고, ‘약’을 강조해서 발음하게 되면 [약#머거씨]가 된다. 발화자가 어떻게 발음할지를 생각한 후 발음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비음화를 학습자 스스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교사가 강조하며 연습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3. 음운규칙 교수 자료 및 교수 방법

위에서 다룬 음운규칙 중 장애음의 비음화 교육 자료를 소개하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2권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들어 보세요

1-31

① 요즘 뭐 하세요?
한국말 배워요.

② 얼마예요?
십만 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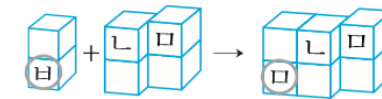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2권), 32쪽)

도입 단계에서의 노출은 학습자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쉬운 대화로 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대화가 매우 난이도가 낮은 거였다면 두 번째 대화는 첫 번째 대화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택하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은 대화 텍스트를 보며 철자대로 소리 나지 않은 곳이 어디였는지를 찾아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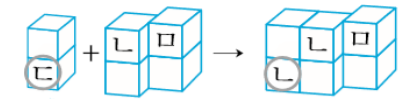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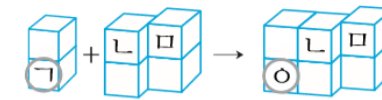
받침소리 [ㅂ, ㄷ, ㄱ]은 ‘ㄴ’이나 ‘ㄹ’ 앞에서 [ㅁ, ㄴ, ㄹ]으로 발음됩니다.



예) 입는 [임는], 십만 [심만]



예) 듣는 [든는], 거짓말 [거진말]



예) 작년 [장년], 국물 [궁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2권), 32쪽)

규칙 제시 단계에서는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규칙은 단일 언어권 학습자들로 구성된 교실에서는 학습자들의 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도 좋다.

다음은 연습 단계의 예들이다. 연습 단계에서는 비음화를 적용해서 정확하게 발음한 것을 고르는 문제를 먼저 풀게 한 후, 스크립트를 보며 비음화가 적용되는 곳을 찾아내고, 듣고 따라 하기를 하게 한다.

1-32

잘 듣고 아래 단어를 맞게 발음한 것에 ○표 해 보세요.

① 한국말

[한궁말] (○)

[한국말] ()

⑤ 없는데

[업는데] ()

[엄는데] ()

② 작년

[작년] ()

[장년] ()

③ 십만

[심만] ()

[십만] ()

④ 믿는

[민는] ()

[믿는] ()

문장연습 1. 받침소리 [ㅂ]을 [ㅁ]으로 발음해야 되는 곳에 표시하세요. 그리고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1-34

- ① 내일 **갑**니다.
- ② 답만 쓰세요.
- ③ 월급날이 언제지요?
- ④ 앞문이 잠겼어요.
- ⑤ 방법만 알면 쉬워요.
- ⑥ 값만 물어 봤습니다.

문장연습 2.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어서 발음할 경우에도 받침소리 [ㅂ]은 [ㅁ]으로 발음됩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1-35

- | | |
|---------------------|----------------------|
| ① 볶음 밥 먹을까요? | ② 삼십 명 쯤 왔어요. |
| ③ 졸업 먼저 하고 결혼하려고요. | ④ 지 갑 넣었어요? |
| ⑤ 책 값 * 냈어요? | |

★ 책값 [책갑] 14쪽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2권), 32~33쪽)

다음은 활용 단계에서 사용할 자료이다. 상황 맥락이 있는 대화를 주고 비음화 연습을 하게 한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한 대화를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 실례합니다
 나 : 어떻게 오셨어요?
 가 : 김 선생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나 : 지금 막 나가셨는데 못 만나셨어요?
 가 : 네. 제가 김 선생님 얼굴을 몰라서요.
 나 : 아, 네. 그럼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가 :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2권), 37쪽)

비음화가 일어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찾아보게 한다. 짝 활동으로 진행해도 좋다. 교사가 먼저 답을 주지 않고 학습자들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답을 찾아보게 한다. 학습자들이 비음화가 적용되는 곳을 모두 찾았다고 생각되면 이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 보게 한다. 실제성 높은 대화이므로 롤플레이를 진행하고 대화를 외우게 하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좋다.

4. 맺음말

음운규칙은 배우면 적용할 수 있고, 배운 음운규칙을 적용해서 발음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자모음의 음가를 익히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운규칙을 배워서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쉬울지라도 이것을 체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음운규칙을 잘 적용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을 하려면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 과정에서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음운규칙이 적용된 음성 자료, 동영상 자료들을 사용한다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는 물론 교육의 효과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창성 제고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의 일환으로 음운규칙 교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필자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으나 교사들에게는 약소하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필하였다. 훗날 한국어 발음의 초분절적 요소 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용어 설명]

의사소통식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는 실제 언어 사용 측면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접근법이다. 의사소통식 접근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발음에 있어서도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음소의 음가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억양이나 강세를 중시한다.

초분절적 요소(suprasegmental feature): 음절을 최소 단위로 쪼개어 나오는 단위를 분절음(segment)이라고 하며 하나 이상의 분절음에 걸쳐 나타나는 강세, 고저, 억양, 음의 길이 등을 초분절적 요소 또는 초분절음이라고 부른다.

참고문헌

- 권성미(2017), 『한국어 발음 교육론』, 서울: 한글파크.
 김성규·정승철(2014), 『소리와 발음』, 서울: KNOU Press.
 김은애(2002), 「발음 수업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발음 교육에 대한 학습자 의식 조사를 통해」,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은애(2006), 「한국어 발음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71-95.
 김은애 외(2008a), 「한국어 억양 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한국어교육』 1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31.

김은애 외(2008b), 「유창성 제고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회 제 13차

국제학술대회 발표 요지집』, 이중언어학회.

김은애·민유미(2014), 「한국어 자모음 발음 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연구」,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pp. 59-83.

문화연수부(편)(1996), 『한국어 발음연습』 1,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박기영(2009), 「한국어 교재의 발음 기술에 대한 일고찰」, 『이중언어학』 40, 이중언어학회, pp.57-78.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서울: 월인출판사.

박주경(1999),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위한 영어 발음 지도」, 『호남영어교육학회

영어교육총서』 (이흥수 편) 3 호, 서울: 한국문화사.

박지영(2011),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2,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언어교육원 공편, 서울:아카넷.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서울: 삼경문화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서울: 도서출판 하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1, 2권), 서울: 랭기지플러스.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서울: 한국문화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편)(1995), 서울: 연세대 출판부.

이현복(1998), 『한국어의 표준 발음』, 서울: 교육과학사.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정명숙(2002a), 「한국어 억양의 기본 유형과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25-241.

정명숙(200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전략적 발음 교육-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8, pp. 345~369.

정명숙(2011),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의 성과와 미래」,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pp.423-451.

한재영 외(2008), 『한국어 발음 교육』, 서울: 한림출판사.

한중임(2001), 『영어음성학과 발음 지도』, 서울: 한국문화사.

Brown, H. D.(1994), Teaching by principles,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Brown, H. D.(2001),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earson Education.

Celce-Murcia, M., & Goodwin J.(2001), Teaching pronunciation, New York: Newbury House.

Cross, D.(1995), A practical handbook of language teaching, Phoenix: Prentice Hall.

Mey, J. L.(1993), Pragmatics An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ers

Morley, J.(1994), Pronunciation pedagogy and theory: New directions, new views, Alexandria,

VA: TESOL Inc.

Nunan, D.(1989),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ive classroo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gers, D.(1999), English pronunciation clinic, Los Angeles: Young & Son Media, Inc.

‘-(으)ㄴ데/는데’ 어미의 올바른 사용

김수희 언어학 박사

/ 숲속의 호수 크레딧 교사

조혜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한국어 강사

/ 한국어 프로그램 디렉터

1. 들어가는 말

계승어 학습자(동포 학생)은 보통 가정에서 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 구어체 위주로 한국어를 습득한다. 따라서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계승어 학습자들이 문자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대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취학 이후 주(主)언어를 이민지의 언어로 대체하는 가정의 경우 전반적 “입력(input)” 결핍으로 인해 동포 학생들은 나이에 맞는 한국어 구사가 힘들어진다. 심한 경우는 메타언어적 능력이 떨어져 고급 한국어의 필수인 문법 습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실정이 이러하므로 한국학교에서 단계별로 받는 읽기-쓰기 교육은 동포 학생들의 (한)국어 발달의 커다란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동포 학생들이 과용하는 어미인 구어체의 꽃 “-(으)ㄴ데/는데”를 간단히 살펴보고, 해당 어미의 내재화를 위한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사는 어미의 특징을 학생들에게 명시하되 설명 중심이 아닌 **적절한 문맥 제시**와 **반복된 연습**으로 학생이 바른 표현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문법은 문화, 기능 수업 내에 녹아 들어 짬짬이 필요한 부분만 강조되어 습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습문제는 초등 4년 이상 읽기가 가능한 동포 학생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으)ㄴ데/는데’ 의 오용과 바꾸기

동사 어미 ‘-(으)ㄴ데/는데’의 오용은 어미를 맥락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의미적인 경우와 동사 활용을 잘못하는 형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1. -은/는데의 의미적 용법(“맥락”)

유창한 한국어를 하는 듯이 보이는 동포 고등학생이 다음의 문자를 필자에게 보내왔다: “그 선생님이 벌써 말했는데 모르지만 저 이번 주에 못 가요.” 이 문장이 비문법적으로 읽히는 이유는 연결 어미가 잘못 쓰였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는 의미 문맥상 간접적 의문을 표현하는 어미인 ‘-는

지’ 를 사용해야 한다: “그 선생님이 벌써 말했는지 모르지만 저 이번 주에 못 가요.” (존대법을 무시하면 정법 문장)

‘A이고 B’ 혹은 ‘X이지만 Y’와 같이 단순 항목과 항목을 나열하거나 대조하는 연결 어미들과 달리 ‘(으)ㄴ데/는데’ 라는 어미는 의미 문맥의 범위가 크다. 또한 전술한 내용이 후술 내용에 배경을 제공하기도 하기도 하고 후술 내용이 전술 내용에 반전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서 언어 발달 과정에서 제1언어의 U-shape 습득 과정을 겪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포 학습자가 ‘는데’를 오용하는 것은 거의 당연하다.

여기에서 잠시 ‘(으)ㄴ데/는데’의 의미적 용법을 살펴보자.

(1)	and	비빔밥을 방금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I just had bibimbap, and it was really good.	
(2)	-고 and	배가 고포는데 머리도 아파요. I am hungry, and my head even hurts.	
(3)	-지만 But	배가 고포는데 먹을 게 없어요 I am hungry, but there is nothing to eat.	비빔밥을 방금 먹었는데 배가 또 고포요. I just had bibimbap, but I'm hungry again.
(4)	-(으)니까 ;or	배가 고포는데 우리, 뭐 먹자! I am hungry; let's eat something!	(비빔)밥을 방금 먹었는데, 좀 있다 운동하자! I just had bibimbap. Let's exercise a little while later.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으)ㄴ데/는데’는 여러 가지 영어 연결 부사로 번역될 수 있다. (둘째 열의 한국어 연결어미들은 기본 의미만 대체할 때 쓸 수 있는 어미들이다.) 예문 모두에서 공통되는 ‘(으)ㄴ데/는데’의 기능은 전술된 부분이 후술되는 부분에 배경/상황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1)에서 영어는 ‘내가 먹은 비빔밥 -> 맛있는 비빔밥’을 중점으로 두고 말하는 반면, 한국어는 ‘비빔밥을 먹음 -> 맛있었음’의 사건(event) 중심의 기술을 하는 동시에 ‘비빔밥을 먹음’이 ‘맛있었음’이라는 진술의 배경이 되고 있다. (2)에서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포’은 ‘머리가 아픔’에 전술되어 “게다가”의 반어적 효과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포고 머리도 아파요’는 맛이 없는 문장, ‘배가 고포는데 머리도 아파요’는 맛있는 문장이다. (3)의 예문들도 그렇다. ‘배가 고포지만’이나 ‘비빔밥을 방금 먹었지만’과 같이 ‘-지만’으로 연결하는 문장은 두 가지 사실을 밋밋하게 사실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지만 ‘-(으)ㄴ데/는데’로 연결할 때는 구어체의 배경설명이 들어가면서 청자를 끌어당기는 맛이 생긴다. ‘-(으)ㄴ데/는데’는 예문 (4)처럼 ‘-(으)니까’ 도 대체할 수 있는데, ‘-(으)니까’가 상황의 정당화를 중요시하는 반면 ‘(으)ㄴ데/는데’는 앞 진술이 뒤 제안의 배경/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중요시한다.

2-2. 어미에 따른 동사의 형태(“활용”)

흘려서 빨리 말하면 ‘-(으)ㄴ’과 ‘는데’은 발음이 비슷해 구어체에서는 오류를 잡아내기 힘들다. 학생이 문어체 한국어에서 ‘(으)ㄴ데’와 ‘는데’를 오용했을 때 교사가 철자의 오류로 치부하기 쉬운데, 이것은 철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으)ㄴ’과 ‘는데’의 차이를 모르거나 어미의 정확한 용법, 선행하는 동사의 활용법을 모르고 쓰는 것이기 쉽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습을 위해서는 교사가 해당 어미 앞에 오는 동사의 활용 원리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의미적 “실수”도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잠시 ‘(으)ㄴ데/는데’ 어미를 선행하는 동사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자.

영문법에서는 동사, 형용사로 일컫는 것을 국문법에서는 활용이 유사하게 일어나는 데 비추어 동사군으로 한 데 묶어서 동작 동사, 상태 동사로 부르기도 한다. 아래 표의 A에는 동작 동사가, B에는 상태 동사가 음운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5 단어씩 주어져 있다. 1은 받침이 있는 동사(즉,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2는 어근에 받침이 없는(모음으로 끝나는) 동사, 3은 불규칙 동사의 강한 어근에 받침이 있는 동사, 4는 -하다 동사, 5는 ㄴ으로 끝나는 동사이다.

A의 a열을 보면 동작 동사는 모두 ‘-는데’로 끝나는데 B의 a열을 보면 받침이 있는 상태 동사는 ‘은데’로, 없는 동사는 ‘-ㄴ데’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 A의 3a, 5a와 B의 3a, 5a는 동작 동사인지 상태 동사인지에 따라 동사 형태 자체가 변하므로 특기해야 한다. ‘굽다’와 ‘살다’는 동작 동사이므로 ‘**굽는데**(A3a)’와 ‘**사는데**(A5a)’로 활용되는 반면 ‘춡다’와 ‘길다’는 상태 동사이므로 ‘**추운데**(B3a)’와 ‘**긴데**(B5a)’로 활용된다. ‘운동하다(A4a)’와 ‘피곤하다(B4a)’는 ‘하다’라는 기본형은 같지만 ‘운동**하는**데’와 ‘피곤**한**데’로 활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으)ㄴ데/는데’ 과거형은 동작 동사이든 상태 동사이든 동사를 과거로 활용한 것(c -> d)에 ‘-는데’만 붙이면 된다 (e).

			a. -는/은데	b. -는/은지	c -어/아(요)	d. -었어(요)	e. -었는데
A. 동작 동사 /동사	1	있-	있는데	있는지	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2	가-	가는데	가는지	가(요)	갔어(요)	갔는데
	3	굽/구우-	굽는데	굽는지	구워(요)	구웠어(요)	구웠는데
	4	운동하/운동해-	운동하는데	운동하는지	운동해(요)	운동했어(요)	운동했는데
	5	살/사-	사는데	사는지	살아(요)	살았어(요)	살았는데
B. 상태 동사 /형용사	1	작-	작은데	작은지	작아(요)	작았어(요)	작았는데
	2	이-	인데	인지	이어/에(요)	이었어(요)	이었는데
	3	춡/추우-	추운데	추운지	추워(요)	추웠어(요)	추웠는데
	4	피곤하/해-	피곤한데	피곤한지	피곤해(요)	피곤했어(요)	피곤했는데
	5	길/기-	긴데	긴지	길어(요)	길었어(요)	길었는데

2-3. 학습 방안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 학습자의 경우, 문법 법칙을 가르치고 활용형을 암기하게 하기보다는 위에 기술된 다양한 의미를 상황별로 제시하여 반복,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자.

〈샘플 연습문제 1〉

아래의 연습 문제는 ‘(으)ㄴ데/는데’의 의미(대조 상황)와 동사활용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학습자들이 공통으로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안을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이 경우는 북미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친숙한 “해리 포터”의 인물들을 이용해서 연습문제를 만들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했다.



사진출처: <http://www.versusbattle.com/better-boy-wizard-harry-potter-vs-draco-malfoy/>

☺ 해리 vs. 말포이: What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Harry and Malfoy? Choose one word from the list that feels most appropriate for each blank. Connect it with ‘-(으)ㄴ데/는데.’ If the action or event has already happened, use ‘-었는데.’

까맣다 살다 쓰다 계시다 이기다 이다 재미있다 좋아하다

	해리는 론하고 친구_____ 말포이는 론하고 친구가 아니에요.
	말포이는 부모님이 _____ 해리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해리는 스네이프 선생님을 안 _____ 말포이는 좋아해요.
	해리는 안경을 _____ 말포이는 안 써요.

	해리는 안경을 _____ 말포이는 안 써요.
	해리는 머리가 _____ 말포이는 노래요.
	해리는 _____ 말포이는 재미없어요.
	해리는 그리핀도르 기숙사에 _____ 말포이는 슬레데린 기숙사에 살아요.
	해리는 퀴디치 게임에서 _____ 말포이는 못 이겼어요.

다음의 연습 문제에서는 후속절이 생략되고 ‘(으)ㄴ데/는데’로 문장이 종결되는 상황에 대한 연습문제로서 ‘(으)ㄴ데/는데’의 동사/형용사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연습도 겸하고 있다. 이 경우, 질문/요청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듣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첫 문장에서 “지금 만날래?”라는 질문에 응답할 때 “지금 밥 먹어서 못 만나”라고 하지 않고 “지금 밥 먹는데…”라고 응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만날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였다.

〈샘플 연습문제 2〉

☺ If you want to give the impression that you are not quite done with what you are saying or you don't want to do what has been asked, you can end with -(으)ㄴ데... or -는데... Can you mechanically change the following and think about how the nuance might be different?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쾌한 한국어 말하기 활동

김은호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가: 지금 만날래?
나: 지금 밥 먹어. ☐ 지금 밥 먹는데.
- 가: 잘 시간이야.
나: 아직 9시예요. ☐ 아직 9시 _____.
- 가: 이 식당에서 밥 먹을까?
나: 그 식당은 맛 없어. ☐ 그 식당은 _____.
- 가: 새로 만든 김치 먹어 봐.
나: 너무 매워요! ☐ 너무 _____.
- 가: 이 바지 언제?
나: 좀 길어. ☐ 좀 _____.
- 가: 샌드위치 좀 만들어.
나: 동생이 만들어. ☐ 동생이 _____.
- 가: 언니 어디 있니?
나: 친구 집에 갔어요. ☐ 친구 집에 _____.
- 가: 아까 산 과자 어디 있지?
나: 내가 다 먹었어. ☐ 내가 다 _____.

3. 나가는 말

이상으로 ‘-(으)ㄴ데/는데’의 의미와 활용, 학습 방안을 살펴 보았다. 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수 이론에 학문적 배경이 없는 원어민 화자(native speakers)의 경우, ‘특별히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 맞는 것’ 혹은 ‘문어체 오류들은 철자 오류’라는 상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문법적 원리를 이해하고 기능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당 연결/종결 어미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 후, 적절한 활용 상황에서 연결/종결 어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생활에 관련된 상황을 근거로 한 학습안을 제시한다면 한국 학교의 동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 시켜 더욱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1. 서론

1.1 배경과 시작점

- 한글학교 교사, 부모: 영·유아기부터 아동들에게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강구
→ 미국에서 자녀들의 한국어 향상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아이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 집중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쉽게 싫증을 내는 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아동 한국어 지도의 첫 도입:
→ 아동의 언어발달과 다양한 활동 지도의 특성을 파악
→ 재미있는 활동을 통하여 한국어에 대한 친숙함과 자신감 심어주기,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 지속시켜 주기

1.2 본고의 내용

- 간단한 이론적 배경 제시 · 실제적 활용방법을 활동별로 제시

- ① 챗트: 음악 유형과 구어체의 특성을 연결시킨 것
- ② 노래: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향상시키는 활동
- ③ 손유희와 몸동작: 유아들이 좋아하는 리듬을 기본으로 손, 눈, 신체조절 등의 협응능력까지 고려
- ④ 동화: 아동들의 상상력을 길러주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동화
- ⑤ 게임: 다양한 주제와 내용에 적용 가능하며 즐거움이 있는 지적, 신체적 활동
- ⑥ 역할놀이: 상호작용 활동(interaction activity)의 한 형식,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 ⑦ 창작놀이: 아동의 창의성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2. 아동 언어 발달의 특성 이해하기

- 아동 시기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 특성에 부합하는 자료와 지도방법을 찾고 개발하기

2.1 아동 학습자의 특징

- Halliwell(1992)의 견해

① 의미파악능력

- 단어 하나하나의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지는 못해도 말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지님.
- 잘못 알아듣거나 잘 이해하지 못한 말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되문거나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할 줄 앎.
- 순전히 말로만 지시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려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한국어를 가르칠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영어/한국어를 배운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②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

- 제한적인 언어자료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창의적으로 언어를 이용할 줄 앎.
- 문법이나 개념도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용함.
- 창의적인 언어사용 기술은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적극 장려해야 할 사항임.
→ 의사 전달을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기

③ 간접 학습 능력

- 직접적, 의식적으로 배운 내용: 정확성 도모
- 간접적, 무의식적으로 배운 내용: 유창성 도모
(실제의 언어 사용 상황에서의 즉각적 언어 사용)
→ 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실제로 해 볼만한 재미가 있는 ‘실제적인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④ 스스로 흥미를 창출하는 능력

-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일 속에서 재미를 발견하거나 재미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뛰어남
- 놀이를 본능적으로 좋아함, 풍부한 상상력을 지님.
- 상상하고 환상에 젖는데 큰 기쁨을 느낌
- 자기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느라 매우 분주함.

- 상상이나 가상의 세계를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해 보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표현해 보기도 함.

⑤ 왕성한 활동성

- 토래와 같이 활동하고 함께 이야기하기를 본능적으로 좋아함.
-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움직임.
- 말을 하지 않고 말하기를 잘 배울 수는 없음.

- ✓ 개별적 단어를 정의하지 않아도 의미를 파악하는 데 뛰어남
- ✓ 제한된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지님
- ✓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으로 더 잘 배움
- ✓ 자신들이 하는 일(말하기)에 재미를 찾고 만드는 데 큰 즐거움을 느낌
- ✓ 상상력이 풍부함

2.2 아동 한국어 학습자의 발달 특성

- 아동: 만 5세~12세

유치원 아동(5-7세)의 발달 상태의 특징	초등학교 아동(8-10세)의 일반적인 특징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말할 수 있다. ▪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일을 계획할 수 있다. ▪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다. ▪ 어느 정도 논리적인 추리를 할 수 있다. ▪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다. ▪ 모국어의 본질적 감각을 거의 익히고 있다. ▪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안다. ▪ 언어 자체보다는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을 보다 빨리 이해한다. ▪ 언어의 서로 다른 기능을 알지는 못해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 ▪ 손과 눈과 귀를 통해 이해가 이루어진다.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 세계가 우선) ▪ 일의 진행 순서 등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잘 안다. ▪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길이가 매우 짧다. ▪ 사실과 허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 독점욕이 강하고 남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지 못한다. 완전히 혼자보다는 주변에 다른 아동이 있는 가운데 혼자 하기를 좋아한다. ▪ 아동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와는 달라서 어른들이 의도하는 대로가 아닌, 자신이 이해한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 무엇을 배워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 놀이를 좋아하며,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낄 때 가장 잘 배운다. ▪ 칭찬 받은 일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다.	▪ 기본적인 개념들이 형성되고, 자신의 생각을 갖는다. ▪ 사실과 허구의 차이를 안다. ▪ 항상 질문을 한다. ▪ 의미의 전달과 이해를 위해 구어와 구체적인 사물을 이용한다. ▪ 자신의 학습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좋고 싫음이 분명해진다. ▪ 공정성이 무엇인지 알고, 교사의 결정에 질문을 하기도 한다. ▪ 다른 학생과 함께 활동할 수 있고, 다른 학생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 완전한 백지 상태가 아니다. ▪ 한국어를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능력과 기능, 특징을 이미 갖추고 있음. ▪ 이미 알고 있는 것 →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장되어 갑. ▪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잘 활용해야만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함

2.3 언어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 요인

- ① 연령
- ② 지능(IQ): 언어의 분석과 규칙의 학습에 중요한 요인
- ③ 적성: 언어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MLAT, PLAB)
 - a. 새로운 소리를 인지하고 암기하는 능력
 - b. 문장에서 단어의 기능을 이해하는 능력
 - c. 제시된 예를 통해 문법적 규칙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
 - d.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는 능력
 -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적성을 측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음
- ④ 정의적(정서적) 요인
 - a. 내향성vs.외향성

내향성(introversion)	외향성(extroversion)
▪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으며,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서 실수를 할 위험이 있는 일은 잘 하려고 하지 않음 ▪ 일체감이나 성취감을 타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찾음	▪ 말수가 많고 적극적이며 밖으로 잘 드러내는 성격 ▪ 자신의 자아, 자아 존중감, 타인과의 일체감 등을 자신의 외부로부터 얻으려 하는 경향 ▪ 외국어의 면대면 구어 숙달도에서 일반적으로 성취도가 높음

b. 애매함의 수용 정도

폐쇄적(closed-minded)	개방적(open-minded)
▪ 자신이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함 ▪ 자신의 확실한 의견을 가짐 ▪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창의성이 부족함 ▪ 성인	▪ 애매하고 모호한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잘 수용함 ▪ 외국어 학습에 유리 ▪ 아동

c. 자아 존중감(Self-esteem)

-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 속에서 표현되는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
- 태어날 때는 없었던 자아의식(ego)이 서서히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은 타인과 다르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형성됨.
- 자가존중감이 높은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에서 성취도가 높음(Heyde, 1979)

d. 감정이입 (Empathy)

-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 봐서 자신을 뛰어넘어 상대방이 느끼는 바, 이해하는 바를 느끼고 이해하는 마음의 자세.
- 외국어 학습 시 감정이입의 어려움은 불확실한 외국어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하고 또 자신의 의미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

e. 자기방어

- 새롭게 접해야 할 환경이나 사안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 걱정, 수치심 등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심리

⑤ 동기와 태도

- 긍정적인 동기와 태도는 외국어 습득의 성공과 큰 관련이 있음
-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과 과제, 다양한 자료 제공
- 경쟁적 목표보다는 협동적 목표 지향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좋음.

⑥ 기질

a. 학습자 성향

- 시각적 vs. 구어적 vs. 운동-감각적 선호

b. 인지적 학습 성향

장 독립적(field-independent) 학습자	장 의존적(field-dependent) 학습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음	주변 환경에 민감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음

c. 신념

- 언어는 어떻게 학습되는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
 - 나이가 많을수록
 - 언어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맞는 교수법, 학습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학습자가 새로운 학습을 접할 경우에 자신의 학습 전략 선택에 변화를 가져옴.
-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전략이나 언어 학습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신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2.4 미국에서 한국어를 잘 배우기 어려운 이유

- 언어적 이유
 -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
 - 발음, 어순, 의미 표현 방법, 표현 양식 등의 차이
- 교육 여건적 이유
 - 한국어를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한
 - 체계적인 교육 과정 부족, 교사 양성 부족
- 언어 환경적 이유
 - 일상적으로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한
 - 일상 생활에 한국어 능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한국어를 몰라도 별로 불편한 점이 없음)
- 개인적 이유
 - 학습 동기의 저조 등

2.5 아동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의점

- 말로만 가르치는 것으로는 불충분함. 언어 놀이를 이용해야 함. → 언어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야 함.
- 다양성을 추구해야 함.
- 친숙한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함.
- 경쟁보다는 협조가 우선하도록 함.
- 꼭 필요한 경우 문법도 가르침.
 -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설정, 학습 자료의 제작, 교수 방법 등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성들을 긍정적,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3. 아동과 함께하는 유쾌한 한국어 활동

3.1 챗트

① 챗트의 의미와 특성

- 리듬은 있으나 멜로디가 없는 비교적 따라 하기 용이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활동 → 음악 유형과 구어체의 특성을 연결시킨 것
- 아이들이 처음 혼잣말로 웅알거리는 소리가 마치 챗트를 하는 것처럼 들림 → 가르치고

배우지 않아도 아동은 이미 기본적인 챗트를 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음

- 말하기의 가장 기초적인 연습(단어~문장으로 확대되어 가는 연습)을 챗트를 이용하여 지도할 수 있음.
-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많은 감정적 변화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함

② 챗트의 교육 효과

- 리듬의 요소를 갖춘 노래와 말하기의 중간단계로 경쾌하고 반복적인 리듬에 맞추어 해당 언어의 독특한 리듬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됨.
- 단어나 문장이 반복되는 형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새로운 어휘, 구조, 관용적 표현 등을 익히는데 도움이 됨.
- 듣기+말하기 학습에 효과적
- 멜로디가 없이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므로 음감이 부족한 아이들도 쉽게 익힐 수 있음 (동일한 시간 내에 노래나 게임과 같은 활동보다 말하기에 효과적)
- 다양한 방법으로 박자 치기를 하여 챗트를 익히므로 흥미를 유지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전체 속의 일부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자신감, 성취감을 줌
- 내재된 리듬과 유머는 아이의 동기 유발에 도움
- 학습 부담이 적고 쉽게 익힐 수 있으므로 소극적인 아이에게도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줌
- 동작과 함께 할 수 있어 의미를 이해시키기에 용이함
- 지루하지 않은 반복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

③ 챗트의 종류(윤소연, 2000)

a. TPR (전신반응법) 챗트

- 신체적 움직임과 함께 언어를 배우는 방법, 교사의 명령에 따라 학습자가 신체적인 반응을 하게 되므로 구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말하기에 선행되어 발달
- TPR 챗트는 챗트의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TPR 을 활용한 동작으로 개념을 명확하게 함.
- 이때 교사와 학습자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수업이 교사 중심 → 학습자 중심으로 옮겨가게 됨

b. 문답형 챗트

- 대화 구문으로 되어 있는 챗트
- 챗트 내용에 익숙해지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질문을, 다른 한쪽은 답을 하게 함
- 이러한 대화 구문은 서너 개의 파트 교환으로 바꾸어 지도하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

이들이 그 전에 설정된 리듬 패턴을 유지하도록 함

c. 스토리텔링 챗트

- 초보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언어 능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됨.
- 동화는 대본 형식으로 이루어져 내레이터가 이야기를 주도하고 등장인물들이 대호 중간에 챗트를 섞어서 동화를 전개함

④ 챗트 지도 방법

- 교사는 챗트에 담겨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이때 상황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교재나 교육 자료에 박자와 높낮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표시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한다.
- 챗트의 첫 소절을 정상 속도와 억양으로 들려주고 따라하게 한다.
- 교사가 숫자를 세거나 손뼉, 막대,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내면서 박자를 분명하게 익히도록 한다. 다시 한 소절씩 들려주고 이에 합창으로 반복하게 한다.
- 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교사가 한 소절씩 선창하거나 두 그룹이 교대로 따라 부르게 한다.
- 챗트가 대화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교사와 아이가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박자를 맞추어 표현하게 한다.

⑤ 주의할 점

- 전적으로 챗트에 의존한 한국어교육은 한계를 가짐
- 수업의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교육환경과 교사의 판단에 따름
-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함
 -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챗트의 선정
 - 녹음, 비디오 기기 등의 준비
 - 필요한 동작과 율동의 도입 여부

3.2 노래 (동요)

① 노래를 활용한 언어 학습

- 누구나 좋아하는 리듬과 멜로디가 들어있는 소리
- 언어를 모르더라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쉽게 익힐 수 있고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활동
- 멜로디, 리듬, 화음의 세 요소를 갖춘 음악의 형식으로 외국어 학습에 사용될 때의 그 가치와 효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음.

- 어느 언어권이든 노래 자료는 생활 주변에 풍부하고 사람들에게 친숙함
- 멜로디를 알지 못하고 언어까지 새롭게 배우게 되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알고 있는 멜로디에 가사만 한국어로 제시된다면 좀 더 언어에 집중할 수 있음

② 노래와 언어발달의 관계

- 음성자료를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노래로 표현하기가 더 쉬운 경우가 많음
- 유아는 언어 발달에 앞서 노래를 하고, 노래는 유아의 언어 발달을 도움
- 청소년기에 있어 노래는 유아기에 엄마에게서 듣는 다정하고 음악적인 말(motherese)의 대체물이라 할 수 있음

③ 노래의 교육 효과

심리적 측면	리듬적 요소가 갖는 흥겨움, 가사의 반복적, 단순한 구조가 갖는 흥겨움
정서적 이완작용	자루함을 달아주고 걱정과 부담감 감소, 동기 유발
언어교육적 측면	언어학과 음악이 함께 공유하는 기반이 있어 유용한 보조 수단 노래의 유익적 반복 활동: 새로운 언어의 강화, 복습 작용, 장기 기억에 저장 수업 진행 과정에서 노래는 일상적인 교실 활동에 변화를 줌
학습내용의 내재화	일상적인 구어 표현보다 쉽게 기억되고 기억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됨 길이 짧으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조를 갖는 유용한 텍스트 자료
문화적 측면	목표 언어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④ 노래 지도 방법

-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의미와 상황을 말해준 후 새로운 어휘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
- 민요나 이미 알려진 노래는 작곡가, 작사자에 관해 소개한다.
- 문자를 알고 있는 경우는 가사를 보게 빈칸 채우기를 사용한 복사본을 나누어준다.
- 비디오나 녹음자료를 여러 번 듣게 한다.
- 육성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선창을 하고 따라 부르도록 한다.
- 교사가 가사를 큰 소리로 읽어주고 가사 내용에 대해 문답 활동을 한다.
- 가사를 한 소절씩 나누어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게 한다.
- 노래 전체를 따라 부르게 하고 이 활동이 끝나면 노래 전체를 3-4회 따라 부르게 한다.

⑤ 노래 지도 시 유의 사항

- 먼저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고 불러보도록 한다.
- 어려운 소절만 천천히 부르는 것은 피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노래를 처음 부를 때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학생들은 따라 부르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학생 중심으로 옮겨가도록 한다.
- 합창을 할 때는 학생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부르도록 한다.
- 멜로디를 익힐 때는 가사 대신 라라라, 루루루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른다.
- 노래 가사를 익힐 때는 한 리듬 그룹을 단위로 하여 반복하도록 한다.
- 멜로디는 콧노래로 익히고 리듬은 챗트로 익힌 다음 노래로 완성할 수도 있다.
- 노래를 부를 때는 일어서서 부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매 시간마다, 혹은 매 단원마다 노래 코너를 만들 수 있다.
- 각자의 노래를 녹음해서 들어 봄으로써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자기 평가의 기회도 갖게 해준다.

⑥ 노래의 선택

-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알맞은 가사 내용을 선택하고 단순한 악기로 편곡된 반주를 택한다.
- 초보 학습자에게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반주는 가급적 피하고 가사 이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의 노래를 선택한다.
- 멜로디는 간단하고 아동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동요, 민요, 창작곡 등 익숙한 노래를 활용할 경우 교육 효과가 더 높다.

3.3 손유희

① 손유희 (Finger play) 의 의미와 특징

- 19세기 프뢰벨의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유아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활동
- 언어, 동작, 음악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응용된 놀이임.
- 구전 전승적 성격이 강해 한국의 전통 육아법에도 ‘ 짹짹’, ‘곤지곤지’ 등 손을 이용한 고유의 놀이가 있음
- 본격적 보급: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선교사들이 번역된 finger play를 선보이고 근대적인 유치원 교육이 시작된 이후 부터임
-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의 동기와 흥미 유발
- 아동들은 특히 손가락을 가지고 연극을 할 때 스토리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음
- 손가락으로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손가락 인형 만들어 챗트나 노래하기 등

- 소리와 함께 동작이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눈, 귀, 몸의 협응력이 고도로 필요한 아동에게는 신체발달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활동임

② 손유희의 효과

- 손을 이용한 놀이가 유아들이 좋아하는 리듬을 기본으로 손과 눈의 협응, 신체조절, 언어 습득, 신체 표현의 기초 등
- 손의 움직임이 뇌신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여러 측면에서 유아의 발달을 도움
- 유치원에서...
 - 주의집중을 위한 본 활동 전에 유아들이 소란하거나 수업으로의 몰입이 어려울 때 차분히 선생님에게 주의를 모아 주는 역할
 - 다음 활동 중간의 전이 활동으로 사용

③ 손유희의 활용 시 유의사항

- 무조건적인 ‘교사 시범-유아 모방’ 식 방법은 유아의 주도성과 창의성 저해의 우려가 있음
- 적절한 발문을 통하여 유아가 내용을 파악하게 함
- 표현을 스스로 만들어보게 함
- 획일적인 손유희 습득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표현을 언어와 동작으로 만들어 창의성을 높여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함
- 유아의 능동적인 역할과 언어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

④ 손유희 지도의 방향

- 모방과 자극을 통하여 제시된 언어 자극을 학습할 수 있음
- 산만한 수업 분위기에서 주의 집중 시킬 때 활용
- 교사와 아동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모델을 보여주고 아동들은 교사의 행동을 모방함
- 매 수업 시간마다 수업의 도입 부분에 유아들에게 강화를 주어 수업에 활용

3.4 동화

① 동화의 의미와 특징

- 아동들의 상상력을 길러주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
- 역사적으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유아의 교육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어 옴.
- 2-7세 사이의 유아에게 동화에 대한 경험은 읽기 학습에 대한 흥미와 후의 태도를 형성하는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함.
- 유아기에 들은 동화는 성년이 된 후에도 그 효력을 지님

- 이야기의 내용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체온, 사랑, 안정감 등을 느낌
- 정서가 안정되고 분화해 가며 언어의 리듬, 고저, 장단 등의 음악적 요소를 즐기면서 배워감

② 동화의 역할

- 흥미와 동기 유발
- 구어와 문어를 포함하는 언어발달에 있어 가장 풍부한 맥락을 제공
- 동화를 듣고 말해봄으로써 이야기할 경험을 가지게 되고 동화를 들음으로써 듣는 것 학습, 생각의 연속을 기억하는 것을 배움
- 어휘가 증가하고 자신의 경험적 배경을 확장시킴
-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어 줄 때 이야기에 대한 발화가 증가하고 책에 사용된 어휘에 익숙해짐.
- 자기 표현, 언어적 능력, 심미적 감상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
- 외국어 듣기, 말하기 교육에 광범위하게 활용 됨

③ 동화의 교육적 장점

- 올바른 어감을 쉽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음
- 동화의 문장들은 간결하면서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
- 연극 활동도 하면서 언어를 학습함과 동시에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과 조화로 생활지도에 큰 도움이 됨
- 맑고 깨끗한 언어로 정제된 동화 내용을 담음
- 올바른 가치관과 이상을 세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함
- 흥미 있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며, 역할극 등을 통해 유아 자신이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역할을 해 봄.
- 외국어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함

3.5 게임

- 즐거움이 있는 지적, 신체적 활동
- 집단 구성원 간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는 교육적 활동
- 일정한 규칙 내에서 협력과 경쟁의 과정을 통해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즐겁고 도전적인 신체적, 정신적인 활동

① 게임과 놀이

- 게임은 놀이의 일종 (Piaget 1962)
- 놀이는 행위자가 즐거움을 얻고자 행하는 활동을 폭넓게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

- 놀이의 심리적 가치 및 그것이 어린이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서 갖는 의미 등을 강조함.
- 놀이의 본질적 특성(Rubin, Fein & Vandenberg, 1983)
- 놀이 행위자는 내적인 동기를 갖는다.
- 놀이는 행위자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한다.
- 놀이는 즐거워야 한다.
- 놀이는 비사실적이다.
- 행위자는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한다.

② 게임

- 규칙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하고 경쟁하며 수행하는 활동 (Gibbs, 1978)
- 게임의 4가지 주요소: 활동, 협력과 경쟁, 목적 추구, 규칙 (+기회와 즐거움 Helgesen, 1987)
- 흥미가 가장 중요하며 게임의 정의에 포함될 요소로 흥미, 목표, 규칙 경쟁 (Gasser & Waldman, 1979)
- 게임의 참여자들은 규칙을 따를 수 있는 사고력이 있어야 함 (Piaget 1962)
- 논리적인 사고력이 발달되기 이전의 어린이는 게임에 참여할 수 없음
- 게임의 본질: 다른 사람의 성취 혹은 자신의 이전 성취보다 나아 보이려는 데서 즐거운 목적 추구가 될 수 있음

③ 한국어 학습에서 게임의 역할

- 흥미와 동기 유발의 좋은 수단
- 배운 한국어를 의미 있게 연습,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제공
-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고 부담감은 줄일 수 있음
- 학습의 강화, 복습, 발전의 기능, 부담감이 없는 선의의 경쟁적 분위기 조성, 교사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의 기회 제공
- 학습 속도 조절, 교사의 역할 변화, 평가의 기능

④ 게임의 분류

그림 게임	각종 그림을 사용하는 게임 그림을 비교하거나 대조하기, 그림 간의 차이점과 닮은 점 찾기, 설명한 순서에 따라 그림 배열하기 등
미술	일종의 눈속임이지만 언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됨 학습자의 주의 집중에 큰 효과 미술 연기와 연결된 언어 입력의 반복으로 주도 듣기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정보교환 게임	서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 감정과 경험 및 정보를 서로 나누는 활동 유형 사용되는 언어는 교실 밖에 실제 상황과 유사한 것 이름 기억하기, 취미 알기, 설문하기, 전화 통화 등
카드 게임	그림 카드나 다른 보조물을 사용한 게임으로 카드 따기, 카드가족 모으기, 주사위 던져 말을 옮겨 가며 목표에 도달하기 등 읽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게임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음
소리 게임	사람이나 물건, 음성자료를 통해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행위나 사물, 행동을 이해하며 언어로 표현하고 개인적인 해석과 의견,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임
이야기 게임	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비교적 길게 이끌어 가는 것 그림을 그려가며 이야기 꾸미기, 이야기 뒷 부분 완성하기, 이야기를 듣고 단편적인 그림들의 순서 정하기, 꾸며진 이야기의 순서 바꾸기 등
단어 게임	단어 학습에 중점을 둔 것 단어의 철자 알기, 의미 알기,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짝짓기, 유형별 단어 구별하기 등 참/거짓 게임 어떤 사람이 말한 문장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별하는 게임
기억 게임	학습자의 기억력을 토대로 한 게임 기억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학습자 간의 의견과 정보의 교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임 그림 내용 기억하기, 관찰한 물건 적거나 이름 대기, 문장 전달하기 등
추측 게임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추측을 통해 알아맞히는 게임 숨긴 물건의 위치 알기, 만져보고 물건 알아 맞추기 등

⑤ 게임 적용 시 유의점

- 게임을 하면서 언어요소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지
- 점수를 판정할 때 공정한지
-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 사전에 게임의 방법과 규칙을 잘 설명해야 함
- 게임 후에는 게임을 통해 습득한 내용에 대한 정리 활동이 해주어야 함
- 게임은 항상 정해진 학습의 내용과 목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어떤 어휘, 문장 구조, 언어 기능을 연습시킬 것인가가 면밀하게 설계되고 포함되어야 함
- 재미와 학습 목표, 경쟁과 협동의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고안해야 함

3.6 역할놀이

① 역할놀이 (role-play)

- 상호작용 활동(interaction activity)의 한 형식
- 언어 학습시 한 학습자에게 가상의 역할을 맡게 하고, 역시 가상의 역할을 맡은 상대방에게 즉석에서 어떤 행위와 발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언어학습, 특히 말하기 학습을 하도록 하는 연습과정임
-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 가장 중요함
- 미리 정해진 일정한 대화를 실연하게 하는 드라마 대본 연습과는 다름
- 대본 연습: 대본 연습을 통한 공연 → 학생들에게 암기와 실연 능력을 요구함
- 역할극: 학생들의 즉흥성과 가상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의사전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주안점을 둠.

② 역할놀이 지도의 중요성

- 교사는 역할극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즉흥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언어 학습의 적절한 틀을 제공해 주어야 함
- 지나치게 통제된 틀은 학생들의 창의력 발휘에 방해
- 틀이 지나치게 느슨할 경우 초보 학습자들이 방향을 잡지 못함
- 역할극 연습에서 교사의 통제와 학생들의 창의성 발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연관 관계가 있음 (Littlewood, 1981)

통제(control) ↕ 창의성(creativity)	암기한 대화의 재연 (Performing memorized dialogues) 문맥 상황에 맞는 역할 연습 (Contextualized drills) 단서와 정보가 제공된 역할 연습 (Cued dialogues) 역할극 (Role-playing) 즉흥극 (Improvisation)
-------------------------------------	---

- 교사의 통제가 느슨해질수록 학습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짐
-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될수록 교사의 통제는 덜 받게 됨

③ 역할놀이 지도 시 유의사항

- 역할놀이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
- 역할놀리의 상황과 내용은 다양하며 이것들이 최상의 학습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부합되는 상황과 역할이 주어져야 함
- 교사는 역할 연습에서 최대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야 함
-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역할에 대한 연습이 학습자를 자극하고 동기를 유발시킴
- 역할놀이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단순한 의사전달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표현 양식임을 발견하게 될 또 비로소 본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3.7 창작놀이

- 기본적인 그리기, 색칠하기, 만들기 과정을 통해 창작활동을 하는 그 자체에 흥미와 몰입을 유도할 수 있음
- 이런 과정에서의 언어적 접촉은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창작놀이를 하는 동안 적절한 언어적 제시와 그에 대한 아동의 적절한 답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창의력 발휘+미술적 감각+언어적 표현력

① 창작 놀이와 만들기

- 일반 교육 과정의 중요한 부분
- 아동의 상상력 증진
- 손-눈의 조합 및 협응력 발달
- 재미있고 흥미 유발에 도움
- 한국어로 지시문 제공 가능
- 다른 언어를 학습활동을 목표로 하는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음
예) ‘책 만들기’: 스토리텔링+쓰기활동
‘돌림판’: 게임을 활용한 언어 학습
‘인형 만들기’ ‘가면 만들기’: 역할극
- 창작활동을 계획할 때는 교사가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함
- 활동 중 유의해야 할 점을 미리 예상해보았지만 실제 수업 시간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점을 맞닥뜨릴 수 있음
- 아이들에게 예술작품을 기대하지는 말 것, 중요한 것은 활동이 과정과 사용되는 언어
- 아이들이 창작 활동 내내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 → 때때로 한국어 표현을 쓰도록 고무시키는 것이 좋음

- 교사는 가능한 한 많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창작활동의 상황이 사용되는 한국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줄 것임
- 아이들이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한국어 노래 CD를 틀어줄 수 있음
- 아이들이 창작 활동을 끝마쳤을 때 교실 안에나 교내에 작품을 전시하도록 함
- 아이들에게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다른 학급의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됨

참고문헌

- 마송희, & 오채선. (2002). 노래와 그림동화책을 활용한 영어교육활동이 유아의 어휘력과 이야기회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30, 179-206.
- 윤소연. (2000). 유아영어교육 방법에 관한 교사의 인식조사 연구-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asser, M., & Waldman, E. (1979). Using songs and games in the ESL classroom.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Rowley, MA: Newbury House.
- Gibbs, G. I. (1978). Dictionary of gaming, modelling and simulation.
- Halliwell, S. (1992). Teaching English (Vol. 209). Longmann.
- Helgesen, M. (1987). False beginners: Activating language for accuracy and fluency. The Language Teacher, 11(14), 23-29.
- Heyde, A. W. (1979). The Relationsh0 Between Self Esteem and the Oral Production of a Second Language. Second Language: Trends in Research and Practice. INSTITUTION Teachers on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226.
- Littlewood, W., & William, L.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aget, J. (1962). The stages of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the child.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26(3), 120.
- Rubin, K. H., Fein, G. G., Vandenberg, B., Mussen, P. H., & Hetherington, E. M. (1983).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30-34.

Proficiency than Performance!

이예지

Professional Development Specialist (교사 연수 전문의)
Department of World Languages, Dallas ISD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문법, 단어, 발음 등의 논리적인 관점보다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 목표어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자들의 논리가 제2언어 습득 능력 이론에 적용 되었을 시: 행동주의 이론 (Behaviorism-B.F Skinner), 본유주의 이론 (Innatism-Chomsky), 결정적 시기의 중요함 (CPH-Critical Period Hypothesis-Lenneberg), MANIA 가설 (Monitoring, Acquisition-Learning, Natural order, Input, Affective filter-Krashen), 상호 작용 이론 (Interactionist theory/approach), (언어의) 변화주의 이론 (Variationist theory/perspectives), 사회문화 이론 (SCT-Sociocultural Theory), 외 다른 이론과 가설들은 지속적인 문장과 단어의 반복된 연습, 외우는 습관, 한계의 레벨의 그 이상의 배움, 적극적인 도움과 참여, 다양한 언어의 노출 기준,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의 기능성, 이외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언어를 배우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이론들과 가설들은 저마다 언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실험적으로 입증된 요소들이 있으나, 논란의 여지를 두는 부분도 여럿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제 2의 또는 그 외의 언어를 배운 자는 이론들과 가설들을 통해 동의할 만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행동주의 이론 (Behaviorism-B.F Skinner), 본유주의 이론 (Innatism-Chomsky), 결정적 시기의 중요함 (CPH-Critical Period Hypothesis-Lenneberg), MANIA 가설 (Monitoring, Acquisition-Learning, Natural order, Input, Affective filter-Krashen)에 비해 조금 더 최근의 연구를 따른 상호 작용 이론 (Interactionist theory/approach), (언어의)변화주의 이론 (Variationist theory/perspectives), 사회문화 이론 (SCT-Sociocultural Theory)은 언어의 유창성을 문법의 정확성, 단어의 개수, 또렷한 발음, 또는 언어의 정확성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언어와 관련된 이의 문화, 목표어의 특

성, 언어를 쓰는 전략을 가르쳐 주었을 때 학습자의 자유로운 적용 능력 이외의 간단한 단어만으로도 상호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중요시한다.

텍사스 주, 특히 달라스 교육청에 속해있는 외국어 부서는 이 능력을 proficiency라고 칭하며, 이 이론들과 가설들을 통합해 결과를 맺어진 텍사스주의 공립학교 외국어 규범은 Proficiency(Texas Essential Knowledge & Skills for Languages Other Than English-TEKS for LOTE) 를 배우는 과정을 매우 중요시 한다.

옛날 이론들에 따라 이전에는 performance에 따라 언어의 능력이 판단 되었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교과서 안에서 한정된 배움이 매번 반복되고, 외움을 강조하며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학생들에게 언어를 습관화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단어 받아쓰기, 문장의 빈칸 채우기, 동사의 정확한 시제 사용법 외우기, 문법 연습 그외의 전통적인 교수법을 따르며 이로 만들어진 결과로 학생들의 언어 능통성을 판단하였다.

현재 교직에 계신 많은 교직원들이 가끔 반대의 주장을 거론할 때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이 언어를 처음 배웠을 때에는 전통적인 교수법을 따라 반복된 외움을 거쳐 현재의 성공한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이 기고문의 목적은 언어를 가르칠 때 전통적인 교수법을 사용하여 performance의 결과로 언어의 유창성을 측정하는 것이 틀렸다, 또는 따르면 안된다 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다만, 언어 수업에서 전통적인 교수법으로는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우며 performance의 결과로 언어의 유창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교수법은 언어의 기본이 있는 학습자에게 조금 더 학구적인 과제를 통해 performance를 평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학습은 목표어가 계승어 (Heritage Language)인 경우 또는 목표어의 기본기가 있으며 높은 레벨에 다다른 학습자에게 적용된다.

현재는 더 많은 이론들과 다양한 연구로 인해 proficiency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텍사스주의 외국어 규범 (TEKS for LOTE)은 이를 따라 2014년도에 개정판이 출시되었다. TEKS for LOTE는 미국 외국어교육위원회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Foreign Languages-ACTFL)로부터 규정화 된 3가지의 소통 방식/연습 (Interpretive, Interpersonal, and Presentational Modes of Communication)을 도입했다. 언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는 청취, 어법, 독해, 작문 능력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의 능력을 따로 가르칠 수 없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 외국어교육위원회 (ACTFL)는 이 점을 고려해 언어 수업을 3가지의 구도 (분석-Interpretive, 대화-Interpersonal, 발표-Presentational Modes of Communication)로 나뉜 소통 방식/연습을 제시한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를 따른 달라스 교육청 (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에서는 언어의 proficiency를 가르칠 때 정해진 교과서 보다는 목표어로 된 문서, 시청각 자료 및 언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를 위해 만들어진 학습지가 아닌 원어민이 일상에서 쓰는 자료로 학생들에게 문화를 소개해 언어를 가르치는 방식을 추구한다.

이런 자료들은 Authentic Text/Material 이라고 칭하며 예를 들어, 이 자료들은 홍보지, 신문지, 영수증, 이력서, 팸플릿, 신청서, 인포그래픽, 광고, 짧은 드라마/예능 영상, 짧은 만화 영상, 설명서, 요리 레시피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목표어를 쓰는 원어민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자료이며, 이런 자료들이 소개되었을 때 단어, 문법, 발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료 분석을 통해 언어로 인한 그 나라의 문화와 학생들이 사는 문화와의 다른 점, 또 이러한 다른 점들이 주는 흥미로운 요인들을 가르쳐 주는게 목적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해석/분석 연습 (Interpretive Mode of Communication) 인 언어 수업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

이런 자료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자신이 사는 환경을 벗어나 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목표어의 문화를 이해하고 알아갈 때에 언어학습의 흥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원어민들이 쓰는 자료들을 접하면서 일상의 현실적으로 쓰여진 언어를 탐구하며 진정한 proficiency를 배울 수 있다.

자료 하나만으로 언어 수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에도 proficiency는 실제 대화 연습 (Interpersonal Mode of Communication)과 준비된 발표 연습 (Presentational Mode of Communication)을 실천해 언어 학습을 향상시킨다.

실제 대화 연습 (Interpersonal Mode of Communication)은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과 자유로운 실제 대화를 추구하며 말로만 제한된 연습이 아니고 글로도 평가 될 수 있는 연습이다. 예를 들면, 교육자가 준비한 실제 상황에 놓여진 문자 대화, 이메일 대화, 편지 대화, 소셜 미디어 대화 등 실제 대화 연습에 적용된다. 준비된 발표 연습 (Presentational Mode of Communication)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준비 할 수 있는 시간과 충분한 수정 과정을 거쳐 많은 인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작문의 에세이를 선생님께 제출하여 평가 받는 연습이다. 교육자에 따라 이 세가지의 방식/연습은 다양한 과제를 통해 학습이 될 수 있다.

위에 논의된 요점들을 예를들어, 한국어 학습으로 보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일반어와 존대어를 소개할 경우 언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는 한국의 문화를 제외한 언어적인 이론만으로 일반어와 존대어의 쓰는 법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다”라는 간단한 서술문 안에는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문화가 깊이 새겨 있으며, 이는 언어를 배움에 있어 말과 행동, 또는 언어를 표출할 때 쓰이는 억양과 음절, 몸의 움직임과 위치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 서술 안에는 벌써 관계, 직위, 나이, 목적, 상황, 분위기 등의 설명이 필요하며, 문화적 상황에 따라 언어의 쓰임이 달라지는 과정이 잇따른다. 이또한 효(孝)와 예(禮)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의 전래지품을 언어적인면으로만 설명이 될까 싶다. 언어적인 면만을 따라 존대어를 가르쳐 문법에 따라 끝말에 ‘...요’ 또는 ‘...합니다’를 붙이는 법을 가르치고, 이에 따른 연습문제로 존댓말의 개념을 이해하는 학생들의 이해력 또는 현실적인 언어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언어를 논의할 때는 억양과 음절 또는 몸의 움직임과 위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상황에 쓰이는 제스처 또는 표현법은 다시 문화적인 면의 설명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예시는 한국어를 배울 때 많은 중요한 요소 중의 일부다. 하지만 언어의 다른 요소들을 배울 때, 또는 다른 언어들이 가르쳐졌을 때, 이 많은 요소들이 언어 문법 또는 단어의 접근 또는 반복된 외움(암기)만으로 충분한지 교육자로서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연구해야 한다.

미국 외국어교육위원회(ACTFL)는 미국 내에 외국어 규범을 체계화 하는 데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ACTFL에서는 4번째 소통 방식/연습의 구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문화 간의 소통 연습 (Intercultural Mode of Communication) 이며 이 연습에는 목표어와 학습자의 문화를 비교하고 대조하며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언어 배움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er of Foreign Languages,

<https://www.actfl.org/>

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 Department of World Languages,

<https://sites.google.com/a/dallasisd.org/ccentral/content-departments/world-languages>

<https://tiny.cc/worldlanguages>

Texas Education Agency –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Texas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

[https://tea.texas.gov/Academics/Curriculum_Standards/TEKS_Texas_Essential_Knowledge_and_Skills_\(TEKS\)_Review/Languages_Other_than_English_Texas_Essential_Knowledge_and_Skills/](https://tea.texas.gov/Academics/Curriculum_Standards/TEKS_Texas_Essential_Knowledge_and_Skills_(TEKS)_Review/Languages_Other_than_English_Texas_Essential_Knowledge_and_Skills/)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올바른 이해

황정숙

팰리세이즈팍 고교 한국어 교사, 사랑한국학교 교감

1. 들어가는 말

한국어(韓國語) 교수(敎授)란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한다.¹⁾ 수업을 포함하여 수업의 설계, 개발, 실행, 관리, 평가가 포함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한국어 교수활동 중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한국어 교수의 내면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어 문법의 올바른 사용에 접근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기본 문법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한국어 문법 교육은 크게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²⁾ 교수 방법에는 인지 단계, 문형 연습, 자유 문장 작문, 담화 작문, 자유 담화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문법 수업에는 준비 단계, 제시 및 설명 단계, 연습 단계, 사용 단계가 필요하다. 각각의 단계에서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라 하겠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가 1988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제 학습 현장에서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올바른 한국어 문법 지식³⁾을 갖고 한국어 학습자에게 바른 한국어 교수(敎授)를 하는 유능한 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2.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개관

한글맞춤법과 표준어는 1988년에 규정되었으며, 외래어 표기법은 1986에 규정되었다. 또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¹⁾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²⁾ 김중섭(2006), 한국어 교육의 정체성과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³⁾ 한국어 문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지도에 초점을 맞춘다.

⁴⁾ 김재욱(2006),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2.1 한글 맞춤법⁵⁾

2.1.1 제 1장에서는 총칙(1항-3항)을 보여준다.

제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 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2.1.2 제 2장은 자모에 대하여(4항) 설명한다.

2.1.3 제 3장은 소리에 관한 것(5항-13항)을 다룬다.

된소리/ 구개음화/ ㄷ 소리 받침(뎃저고리)/ 모음(계수, 계시관, 의의)/
두음법칙 ㄴ→ㅇ(여자), ㄹ→ㅇ(양심), ㄹ→ㄴ(노인)/ 겹쳐나는 소리(딱딱)

2.1.4 제 4장은 형태에 관한 것(14항-41항)을 설명한다.

- 1)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 2)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3) 모음조화(어미 아/어)에 맞게 적는다.
- 4) 불규칙 용언(ㄹ, ㅅ, ㅎ, ㅓ,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ㅚ, ㅟ) 불규칙은 바뀐 대로 적는다.
- 5)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 음/-ㅁ, 이/히)은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 6)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꽃잎, 시커멓다)
- 7) 사이시옷의 표기(30항):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나뭇가지, 냇물, 나뭇잎),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꽃병, 제삿날, 사삿일),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다른 한자어에 사이시옷은 적지 않음- ‘곶간, 셋방, 숫자, 찻간, 뒗간, 횃수만 사용)
- 8)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소리나 ‘ㅎ’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뭍쌀, 머리카락, 안팎)
- 9) 단어의 끝 모음이나 체언과 조사 등이 줄어드는 경우에 준 대로 적는다. (엇저녁-어제저녁, 온갖-온가지, 그건-그것은, 가-가아, 개-개어, 해-하여)

2.1.5 제 5장은 띄어쓰기(41항-50항)에 관한 규정이다.

- 1) 조사는 그 앞 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에서부터, 꽃이다)
- 2)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등은 띄어 쓴다. (어느 것, 한 개)
- 3) 수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4)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⁵⁾ 한글 맞춤법(1988), 문교부 고시 제88-2호

(김양수, 박동식 박사, 남궁억/남궁 억, 황보지봉/황보 지봉)

5)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전문 용어는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대한 중학교/대한중학교, 만성 골수 백혈병/만성골수백혈병)

6) 보조용언(47항)

2.1.6 제 6장은 그 밖의 것(51항-57항)을 따로 묶었다.

1) 부사의 끝 음절이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깨끗이, 족히, 솔직히 등)

2)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심부름꾼, 판자때기, 빗갈, 팔꿈치)

3) 다음 말은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갈음, 반드시/반듯이, -러(목적)/-려(의도), -로서(자격)/-로써(수단),
-므로(이유)/-으로써(수단)

2.2 표준어 규정⁶⁾

2.2.1 제 1부 표준어 사정 원칙(3장 26항)

2.2.1.1 제 1장 총칙

제 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2.2.1.2 제 2장은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3-19항)이다.

1) 자음의 경우

나팔꽃/강낭콩/ 사글세/ 돌/ 셋째/ 수놈

2) 모음의 경우

깡충깡충/ 쌍둥이/ 풋내기/ 아지랑이/ 미장이/ 미루나무/ 윗니/ 웃돈

3) 준말의 경우

귀찮다/ 무/ 궁상떨다/ 수두룩하다/ 일구다/ 저녁노을/ 서투르다

4) 단수 표준어의 경우

꼭두각시/ 쌀 닢 되/ 석 자/ 있습니다/ 없습니다/ 재봉틀/ 천장

5) 복수 표준어의 경우

쇠고기, 소고기/ 네, 예/ 괴다, 고이다/ 찌다, 쪄이다/

거슴츠레하다, 게슴츠레하다/ 나부랭이, 너부랭이/ 꺼림하다, 껌름하다

2.2.1.3 제 3장은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20-26항)이다.

1) 고어의 경우

*냥→냥떠러지 *애닭다→애달프다 *오얏→자두

2) 한자어의 경우

*목발→지갯다리 *맞상→검상 *홀벌→단벌 *알타리무→총각무

3) 방언의 경우

*우렁쟁이→멍게 *꿇머리→귀밑머리 *어린순→애순 *코보→코주부

4) 단수 표준어의 경우

*-게시리→-게끔 *까탈스럽다→까다롭다 *부스럭지→부스럭기

*새벽별→샛별 *신기스럽다→신기롭다 *편뜻→언뜻

*안절부절하다→안절부절못하다

5) 복수 표준어의 경우

가뭄, 가물/ 가엸다, 가엽다/ -거리다, -대다/ 넝쿨, 녕쿨/ 고깃간, 푸줏간/

-뜨리다, -트리다/ 모쪼록, 아무쪼록/ 보조개, 볼우물/ -(으)세요, -(으)셔요/

-이에요, 이어요

2.2.2 제 2부 표준 발음법(7장 30항): 생략

제 1장 총칙/ 제 2장 자음과 모음/ 제 3장 소리의 길이/ 제 4장 받침의 발음/

제 5장 소리의 동화 / 제 6장 된소리 되기/ 제 7장 소리의 첨가

3.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올바른 사용

3.1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주요 개정 내용⁷⁾

1) ‘-읍니다’가 ‘-습니다’로 바뀌었다.

*있읍니다→있습니다. *없읍니다→없습니다.

2) ‘-장이’와 ‘-쟁이’를 구분하여 쓴다.

미장이, 유기장이 등 기술자를 일컬을 때에는 ‘장이’로 욕쟁이, 심술쟁이 등
버릇을 일컬을 때에는 ‘쟁이’로 한다.

3) ‘-꾼’을 ‘-꾼’으로 쓴다.

*일꾼→일꾼, *농삿꾼→농사꾼

4) ‘-와’를 ‘-워’로 쓴다.

*고마와→고마워, *가까와→가까워

⁶⁾ 표준어 규정(1988),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⁷⁾ 개정 내용 전체를 다룰 수 없기에 주요 사항들만 선별해 정리한다.

- ㅂ 변칙 용언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ㅂ’이 ‘우’로 바뀌므로 ‘안타까워, 가까워, 아니꼬워’가 맞다. ‘곱다’와 ‘뚱다’의 경우는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적는다. ‘고와 고왔다’, ‘도와 도왔다’
- 5) 수컷을 이르는 말은 ‘수’로 통일한다.
수평, 수강아지, 수컷, 수평아리 (예외: 숫양, 숫쥐, 숫염소)
- 6) ‘웃-’, ‘윗-’은 ‘윗-’으로 통일한다.
‘윗도리, 윗니, 윗목’이 맞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쓴다. (위작, 위층, 위쪽, 위턱)
아래와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쓴다. (웃돈, 웃어른)
- 7)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
*이 순신→이순신, *김 구→김구
- 8) 수를 적을 때는 만, 억, 조 단위로 쓴다.
예) 이억 팔천이백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9) -요/-오
말의 마지막에 ‘-시오’는 틀린 사용이다. 반드시 ‘-시오’로 표기하기를 권유한다.
또는 명령형의 말에는 반드시 ‘-시오’로 표기한다.
예) *수고하십시오.(X) 수고하십시오.(O) 수고하세요.(O)
하지만 연결형은 ‘-요’를 쓴다.
예)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연필이요, 이것은 공책이다.
- 10) -데로/-대로
장소를 나타내는 ‘-곳으로’의 의미인 경우에만 ‘데로’로 표기한다.
예) 부탁하는 데로 해 드리겠습니다.(X) 부탁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O)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 합시다.(X) 조용한 대로 가서 얘기 합시다.(O)
- 11) ‘-므로’와 ‘-므로’
‘하므로, 되므로, 가므로, 오므로’등과 같이 어간에 붙은 어미이다.
‘-이니까/이기 때문에’와 같은 ‘까닭’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와는 달리 ‘-므로’는 명사형 ‘-ㅁ’에 조사 ‘-으로’가 붙은 것으로
‘-는 것으로’, ‘-는 일로’와 같이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예) 그는 열심히 공부하므로 성공하겠다.
그는 아침마다 공부함으로 성공을 다졌다.
- 12) 안/않-
부정하고 싶은 말 앞에는 ‘안’, 부정하고 싶은 말 뒤에서는 ‘않’이 맞는 표기이다.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다. 즉 ‘안’은 다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고 ‘않-’ 문장의 서술어로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 13) -음/-슴
사슴, 가슴 등 명사 이외에는 ‘슴’으로 끝나는 말은 없다. 줄임말은 ‘음’이 맞는 표기이다. 예) 꽃을 보았습니다. → *꽃을 보았슴(X) 꽃을 보았음(O)
- 14) 되다/돼다
우리말에 ‘돼다’는 없다. ‘돼’는 ‘되어’의 준말이고 ‘됐다’는 ‘되었다’의 준말이다.
예) *그가 우리 모임의 회장이 돼다.(X) 그가 우리 모임의 회장이 되다.(O)
*공부를 더 해도 되요?(X) 공부를 더 해도 돼요?(O)
- 15) 한글 자음 이름
기역/니은/디귤/리을/미음/비읍/시옷/이응/지읒/치읓/키읔/티읕/피읖/히읇
- 16) ‘-이’와 ‘-히’
‘깨끗이, 똑똑히, 큼직이, 단정히, 반듯이, 가까이’
‘-하다’가 붙는 말은 ‘-히’를, 그렇지 않은 말은 ‘-이’로 쓴다.
예외: 깨끗이, 따뜻이, 너부죽이, 뚜렷이, 지긋이, 큼직이, 반듯이, 느긋이 등
- 17) *몇일/며칠
*오늘은 몇 월 몇 일입니까?(X)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O)
- 18) ‘더욱이’와 ‘더우기’, 일찍이’와 ‘일찍이’
*더우기(X) 더욱이(O), *일찌기(X) 일찍이(O)로 구분해 쓴다.
- 19) ‘-로서’와 ‘-로써’
‘-로서’는 자격격 조사(신분, 지위) ‘-로써’는 기구격 조사(도구, 재료, 방편, 이유)이다.
예)그는 회사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회사는 돌로써 지은 건물입니다.
- 20) ‘-던’과 ‘-든’
‘-던’은 지난 일을 나타낼 때 쓴다. ‘-든’은 조건이나 선택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꿈을 그리든 어린 시절(X) 꿈을 그리던 어린 시절(O),
*오던 말던 네 마음대로 해라.(X) 오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O)
- 21) ‘-ㄹ 게’와 ‘ㄹ 께’
‘할걸, -줄게’ 등과 같은 종결어미는 예사소리로 표기한다.
예) 그 일은 내가 할게. / 일을 조금 더 하다가 갈게.
- 22) ‘아니요’와 ‘아니오’
부정의 ‘아니(감탄사)’에 해요체의 보조사 ‘요’가 결합된 ‘아니요’로 표기한다.
예) *아니오, 못 가요.(X) 아니요, 못 가요.(O)

3.2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 오류의 실제⁸⁾

- 1) *우쪽 *좌쪽/ 오른쪽 왼쪽, *오른측 *왼측/ 우측 좌측
- 2) *이른 11시/ 오전 11시
- 3) *지겟군/지계꾼(직업,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 4) *숫놈/수놈 *숫소/수소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양, 염소, 쥐의 경우에만 숫양, 숫염소, 숫쥐로 표기한다)
- 5)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책이오.
- 6) *적잖은/ 적잖은
- 7) *솔직이/ 솔직히, *열심히/ 열심히
- 8) *생각컨대/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 9) *쉽쉽치 않다/ 쉽쉽하지 않다/ 쉽쉽지 않다
- 10) *못치 않다/ 못하지 않다/ 못지 않다
- 11) *나뭇꾼/*나뭇꾼/나무꾼, *땃갈/때갈, *빋갈/빋갈,
*성갈/성갈, *콧배기/코빼기, *발곰치/발꿈치
- 12)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벗어나려고)
- 13) *먹는다 영미가 밥을/ *먹는다 밥을 영미가
영미가 밥을 먹는다. (주어+목적어+동사)
밥을 영미가 먹는다. (목적어+주어+동사)
- 14)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나무에 물을 주었다./ 철수에게 물을 주었다.
- 15) *총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총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16) *선생님께 돈이 계시다./ 선생님께 돈이 있으시다.
- 17)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은 모험 소설이다. (읽히는)
- 18) *비상시 이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열리지)
- 19) *입상자들에게는 상금이 주어집니다. (입상자들에게는 상금을 줍니다.)
- 20) *거칠은/거친
‘ㄴ’받침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ㄴ’이 탈락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 *거칠은 들판(X) 거친 들판(O)
*날으는/ 나는 예)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X) 하늘을 나는 비행기(O)
*같은 배/ 간 배 예) 나는 간 배를 좋아한다.
- 21) *금새/금세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는 ‘어느 사이에’의 준말이므로 ‘어느새’가 맞다.
- 22) *돌/돌
생일이나 주기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돌’로 통일해 쓴다.

- 23) *일찌기/일찍이 *더우기/더욱이 *오투기/오횇이
- 24) *춧점/초점 *머릿말/머리말 *전세집/전셋집
전체가 한자어인 경우라면 다음의 말 외에는 ‘ㅅ’을 넣지 않는다.
(곳간, 셋방, 숫자, 뒷간, 횡수, 찻간)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에는 ‘ㅅ’을 넣는다. → ‘나뭇가지,
아랫집, 조갯살, 전셋집, 햇수’ 등. 뒷말의 첫 소리가 ‘ㄴ’이나 ‘ㄷ’,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ㄴ’소리가 덧붙여 발음되거나 ‘ㄴ’ 소리가 두 개 겹쳐
발음될 때 ‘ㅅ’을 넣는다. → ‘아랫니, 제삿날, 겹날, 잇몸, 빗물’ 등
- 25) *두째 *세째 *네째/ 둘째 셋째 넷째(열두째 스물두째)
- 26) *미쟁이/미장이 *멧장이/멧쟁이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
- 27) 띄어쓰기 유의:
어머니가 서울가서 밥을 얻었다. / 어머니가 서울가 서밥을 얻었다.
철수가 큰 밭에 들어가네? / 철수가 큰 가밭에 들어가네?
퐁퐁한 사장 마누라 / 퐁퐁한 사장 마누라
재미있는 책 읽기 / 재미있는 책읽기

3.3 혼돈하기 쉬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익히기⁹⁾

- 1) 얼음/ 어름(두 물건의 끝이 닿은 데)
- 2) 빛-광(光)이나 색(色)을 나타내는 말
별-햇빛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따뜻하고 밝은 기운(陽)을 나타내는 말
- 3) 너머/ 넘어
너머- ‘집, 담, 산, 고개 같은 높은 것의 저쪽’을 뜻하는 말
넘어- ‘어떤 물건 위를 지나다’의 의미
- 4) 비추다/ 비치다/ 비취다
비추다- ‘빛을 나타내는 물체가 다른 물체에 빛을 보내다’의 뜻이다.
비치다-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의 뜻이다.
비취다- ‘비추이다’의 준말로 ‘비추임을 당하다’의 뜻이다.
예)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었다. 살결이 비치는 옷을 입었다.
- 5) 반드시- ‘틀림없이 그러하다’의 뜻이다. (예: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듯이- ‘물건의 놓여 있는 모양새가 기울거나 뺄어지지 않고 바르다’의
뜻이다. (예: 물건들을 반듯이 놓아라.)
- 6) -(으)로서 (자격: 학생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 (어미: 답으로써 핑을 대신했다.)

⁸⁾ 실제 한국어 수업 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되는 오류들을 정리해 본다.⁹⁾ 정호성, 한국어 어문 규범, 한국어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참조

- (으)므로 (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ㅁ, 음)으로(써) (조사: 그를 믿음으로(써) 그 일을 맡겼다.)
- 7) -던지 (과거 시제: 그렇게 좋던지 옆에 누가 가도 모르더라.)
 -든지 (나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 8) 붙이다 (종이에 사진을 붙이다.) /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 9) -을/ -를
 모음이나 ㄴ으로 끝나는 명사 다음에는 ‘-을’을 붙여 ‘백분을, 사고을, 모순을, 비율’등으로 쓰고 ㄴ 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명사 다음에는 ‘-를’을 붙여 ‘도덕를, 황금를, 취업를, 입학를, 합격를’ 등으로 쓰면 된다.
- 10) 띄다 (‘띄우다, 띄이다’의 준말) / 떠다 (어떤 성질을 일정하게 나타내다)
 예) 어제 편지를 띄었습니다. / 분홍빛을 떠 나뭇잎이 멋었습니다.
- 11) 작다 (‘크다’의 반대말) / 적다 (‘많다’의 반대말)
 예) 키가 작다. / 사람의 수요가 적다.
- 12) 일체 (모든 것) / 일절 (전혀)
 예) 안주 일체 무료입니다. / 그는 담배를 일절 피우지 않습니다.
- 13) 부딪치다 / 부딪히다
 57항. ‘부딪치다’는 ‘힘차게 부딪다’의 뜻이고 ‘부딪히다’는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이다. 예) 차와 차다 마주 부딪쳤다. 길을 가다가 건물 벽에 부딪혔다.
- 14) 놀라다 / 놀래다
 ‘놀래다’는 ‘놀라다’의 사동사이다. ‘놀래다’는 ‘놀래 주다’의 구성이므로 나는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깜짝 놀래’ 수는 없다.
- 15) 늘이다 / 늘리다
 예) 고무줄을 늘이다. (늘이다- ‘힘을 가해 본디의 길이보다 길어지게 하다’) 실력을 늘리다. (늘리다- ‘늘게 하다’)
- 16) 다르다 / 틀리다
 예) 저 아이는 쌍둥이지만 성격은 아주 (*틀려/달라).
- 17) 맞추다 / 맞히다 / 마치다
 맞춤법 55, 57항.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는 의미이고, ‘맞히다’는 ‘적중하다’, ‘마치다’는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의 의미이다.
 예) 나는 열 문제 모두를 맞혔다.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맞추어 보았다.
 나는 오늘 숙제를 다 마쳤다. 오빠는 새 양복을 맞추었다.
 ‘*웃을 마추다, *마춤 양복’ 등은 ‘*마추다’를 안 쓰고 ‘맞추다’를 쓰기로 했다.
- 18) 째 / 채 / 체
 ‘돼지를 통째로 구웠다’의 경우에는 ‘-째’(접미사)로 쓰고, ‘온 몸이 묶인 채로’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올 때는 ‘채’(의존명사)로 쓴다. ‘체’는 의존 명사로서 ‘아는 체하다’와 같이 쓰인다. ‘*돼지를 통채로 구웠다.’는

틀린 사용이다.

- 19) 벌이다 / 벌리다
 ‘벌이다’는 ‘일을 벌이다’처럼, ‘벌리다’는 ‘다리를 벌리다’처럼 쓰인다.
 ‘*잔치를 벌리다’와 ‘*논쟁을 벌리다’는 잘못 쓰인 예이다.
- 20) 새우다 / 새다
 ‘*밤새다/밤새우다’, ‘새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이다.
 ‘새우다’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다. ‘밤사이’의 준말인 ‘밤새’는 다르다.
 이 경우 ‘밤새 비가 내렸어.’가 맞다.
- 21) 좇다 / 쫓다
 ‘쫓다’는 추상적 행위를 나타낼 때, ‘좇다’는 구체적 행위를 나타낼 때 쓴다.
 예) 명예를 좇다. 선생님 뜻을 좇다. / 새를 쫓다. 도둑을 쫓아가다.
- 22) 젓히다 / 제치다 / 제끼다 / 제키다
 ‘젓히다’는 ‘속이 겹으로 드러나게 열다’의 뜻이고, ‘제치다’는 ‘어떤 범위나 대상에서 빼다’의 뜻이며, ‘제끼다’는 ‘어떤 일이나 문제를 척척 처리해 넘기다’의 뜻이고, ‘제키다’는 ‘살갓이 조금 다쳐 벗겨지다’의 뜻이다.
 예) 형이 대문을 열어 젓히고 들어왔다. 그 사람은 제쳐 놓은 사람이다.
 그는 어려운 일을 척척 해 제끼는 유능한 사원이다.
 살갓이 좀 제켜서 약을 발랐다.
- 23) 드러내다 / 들어내다
 ‘들어내다’는 ‘드러나게 하다’는 뜻이고, ‘들어내다’는 ‘물건을 밖으로 옮기다’의 뜻이다. 예) 마음속을 드러내 보여라. 못 쓸 물건을 밖으로 들어내십시오.
- 24) *사겨/*사구궤/사귀어
 ‘사귀어’만 맞다. ‘*언제부터 사졌니?’는 잘못된 표현이다.
- 25) *사그러지다 / *사글어지다 / 사그라지다
 ‘감정이 사그라지다’만 맞는 표현이다.
- 26) *삼가하다 / 삼가다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바르지 못하고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가 맞다. ‘어른 앞에서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가 맞다.
- 27) *퍼래지다 / 퍼레지다
 ‘퍼령다’에 어미가 결합되어 ‘퍼러니’로 쓰이니 ‘퍼레지다’가 맞다.
- 28) *통털어 / 통틀어
 ‘있는 대로 모두 한데 묶다’의 뜻을 가진 말은 ‘통틀다’이다. 부사로 쓰인다.
- 29) *바람 / 바람
 표준어 11항. ‘바람’은 ‘바라다’에 명사 형성 접미사 ‘-ㅁ’이 결합한 것이다.
 ‘*바래’, ‘*바래서’, ‘*바랬다’는 모두 비표준어이다.
 예) 돈을 바라선 한 일이 아니야.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30) *똥하다/ 똥이다

‘똥다, 짚다, 높다’의 사동형은 ‘똥이다, 짚이다, 높다’이다.

‘-히-’는 주로 ‘ㄱ, ㄴ, ㅂ’ 받침을 가진 말과 결합한다.

예) 먹히다, 굶히다, 넓히다, 입히다

31) *말아라/ 마라

맞춤법 18항. ‘말다’에 ‘-아라’의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라’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하지만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예) 못된 짓은 하지 말라/마.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

32) *있습/있음

‘있음’은 ‘있-’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된 것이므로 ‘있음’이 옳다.

예전에 쓰던 ‘*있습니다, *먹읍니다’ 때문에 ‘*있습, *없습’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이다.

33) *아뭉튼/아무튼

용언의 활용형 가운데 하나의 형태만이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40항). ‘결단코, 무심코, 요컨대,

하여튼’ 등이 그것이다.

34) *알맞는/알맞은

‘-는’은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다.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알맞은’이 맞다.

35) *웬지/웬지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웬지’가 맞다. 하지만 “웬 떡이냐”

경우는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 ‘웬’을 쓴다. (웬일, 웬만큼, 웬걸)

예) 가을에는 웬지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웬 일이세요?

36) *갈애/ 갈아

‘갈-’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좋을 것 갈아’가 맞다.

37) *옛부터/ 예부터

‘옛’은 ‘지나간 때의’라는 뜻이고 ‘예’는 ‘옛적, 오래전’의 뜻으로 구분해 쓴다.

예) 예부터 전해오는 미풍양속입니다. 옛날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38) 기타(자주 틀리는 말)

*성냥개피/성냥개비

*곶슬머리/곶슬머리

*재털이/재떨이

*봉숭화/봉숭아

*봉숭아뼉/복사뼉

*머릿말/머리말

*무우/무

*시원찮다/시원찮다

*쌍둥이/쌍둥이

*삭월세/사글세

*오투기/오투기

*설겅이/설거지

*잔디밭/잔디밭

*저희나라/우리나라

*칫과/치과

*휴게실/휴게실

*햇님/해님

*푸르른 날/푸른 날

*오랜동안/오랫동안

*오손도손/오순도순

*아뭉튼/아무튼

*무릎쓰고/무릅쓰고

*꺼꾸로/거꾸로

*넙적하다/넓적하다

*귀멀다/귀먹다

*강충강충/강충강충

*낙지볶음/낙지볶음

*우뢰/우레

*뒷편/뒤편

*치루었다/치렀다

*계시판/계시판

*날자/날짜

*올바르다/올바르다

*남비/냄비

*빠국이/빠꾸기

*육계장/육개장

4. 외래어 표기법¹⁰⁾4.1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¹¹⁾

- 1) 본래 언어의 발음에 가깝게 적는다.
- 2) 국어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4.2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 1)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2)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예) 콘서트/*컨서트, 콘텐츠/*컨텐츠
- 3) 외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ㅂ, ㅅ, ㅇ’만을 적는다.
예) 커피숍/*커피 , 디스켓/*디스
- 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ㄲ, ㄸ, ㅃ)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파리/*빠리, 카페/*까페
- 5) ‘ㅈ, ㅊ, ㅌ, ㅍ, ㅊ, ㅌ, ㅍ, ㅊ’를 쓰지 않는다.
- 6)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
예) 라디오, 오페라, 모텔, 바나나, 계놈

4.3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세칙¹²⁾

- 1) 파열음
예) 로봇/*로보트, 플루트/*플루트, 테이프/*테이프, 케이크/*케익
- 2) 마찰음과 파찰음
예) 패밀리/*웨미리, 페리호/*웨리오, 대시/*대쉬, 잉글리시/*잉글리쉬,
벤치/*벤치, 스위치/*스위취, 주스/*쥬스, 텔레비전/*텔레비전, 차트/*차트
- 3) 모음
예) 디지털/*디지털/*디지털, 터미널/*터미날, 컬러/*칼라, 콘서트/*컨서트,
컨택트/*컨택트, 보트/*보우트, 볼링/*보울링, 윈도우/*윈도우

¹⁰⁾ 외래어 표기법(2004), 외래어 표기 용례집 중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문화체육부 제 2004-11호

¹¹⁾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말 / 외래어 표기법: ‘외국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법

¹²⁾ 홍종민, 정희원(2005),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과 실제, 한민교육연구 23호

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기초 문법 (*실제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기초 문법을 정리해 봄)

1) Equational expressions:

(Noun1 은/는) Noun2이에요/예요. (N1=N2)

(Noun1 은/는) Noun2(이/가) 아니예요. (Na=N2)

은/는 is the topic particle. It indicates that the attached noun is the topic described by the subsequent statement. 은 is used when Noun ends in a consonant, and 는 is used when Noun ends in a vowel. 예) 저는 한국사람이에요. 마이클은 미국사람이에요.

N이에요 is used when Noun ends in a consonant, N예요 is used when Noun ends in a vowel. 예)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린다는 제 조카예요.

2) Comparing items: 은/는 vs. 도

The particles 은/는 and 도 are used to compare two or more items.

은/는: The items are different or contrastive.

도: The items are parallel.

예) 저는 일학년이에요, 수잔은 3학년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수잔도 한국 사람이에요.

3) Verbs vs Adjectives 동사와 형용사

Verbs typically denote action and processes (including mental processes), whereas adjectives typically denote states (size, weight, quality, quantity, shape, appearance, perception, and emotion).

예) Verbs: 먹다, 앓다, 알다, 인사하다, 가다, 오다

Adjective: 좋다, 맛있다 싸다, 재미있다, 많다, 크다

4) The structure of predicates: The polite ending -어요/아요

The structure of predicates consists of a stem and an ending. The polite ending -어요/아요 is the most frequently used form in conversation. It has a number of variations. When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either 아 or 오, -아요 is used. All other stems take -어요. There are exceptions to the above rules. 이다(이에요), 아니다(아니예요), 하다(해요). Vowel contractions may change the ending. (가다-가요, 지내다-지내요, 자다-자요, 싸다-싸요)

예) 학교 식당 음식이 맛있어요. 저는 한국이 좋아아요.

The honorific ending -(으)세요

-(으)세요 is an honorific form of -어요/아요. It is a combination of the honorific marker -(으)시 and -어요. 예) 할아버지는 영어 공부를 하세요.

5) Subject particle 이/가

The subject particle 이/가 indicates that the word attached to it i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that is, what the predicate is about. Note that when a noun or a pronoun function as a topic or is used for comparison, the particle 은/는 or 도 is used instead of 이/가.

예) 커피가 맛있어요. 학교 도서관이 이층에 있어요.

6) [Place]에 있어요.

In referring to the location of an object, the locative particle 에 and the existential verb 있다/있어요, not -이다/이에요, must be used.

예) 서울 대학은 서울에 있어요.

7) The conjunction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is a conjunction that means 'and'. 그런데 is a conjunction that means 'but', 그래서 is a conjunction that means 'so'.

예) 우리 학교는 커요. 그리고 학생이 많아요. 우리 학교는 커요. 그런데 운동장이 안 넓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파티를 해요.

8) Use of 있다/없다 to express possession

-있다 refer to either the existence or the possession of an object or person. In honorific forms, the two different words are used as follows.

예) 저는 사전이 있어요. 저는 사전이 없어요. 부모님은 서울에 계세요.

Expressing possessive relations: N1 (possessor) N2 (possessed)

- Possession involves two parts, the possessor and the possessed.

예) 우리 아버지, 제 책, 영수 가방

- Possessive particle 의, comparable to the English preposition 'of', may be used sometimes, but usually not in conversation, except for limited contexts, mostly when both the possessor and the possessed refer to abstract concepts.

예) 한국의 수도, 오늘의 뉴스, 한국의 대통령, 내, 제

9) Joining nouns: N1 하고 N2 'N1 and N2'

The particle 하고, like 'and' in English, is attached to a noun expression and joins it to another noun expression. This particle is usually used in colloquial speech and informal writing. 예) 저는 남동생하고 누나가 있어요.

10) The object particle 을/를

The particle 을/를 marks the object of the verb. The basic sentence patterns 'N 이/가 N 을/를 -어

요/아요’. The subjects designate the actors, the ones who do the action, and the objects designate the things that the actors do something to.

예) 철수가 아침을 먹어요. 동생이 친구를 만나요.

Omission of particles

In conversation, however, nominal frequently are marked with any particle at all.

예) Q: 뭐__하세요? A:아침__먹어요.

11) The locative particles 예 and 에서

The locative particle 예 is used to indicate where an object exists ([place]에 있어요). What is indicated is a static location and the simple existence of an object. The particle 예 is also used to indicate destination or goal. A different particle, 에서, is used to indicate the location of activity. It refers to a dynamic location, because the action or activity takes place in that location.

예) 누나는 도서관에 가요.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을 해요.

12) Numbers, Noun Counter

Numbers: Korean uses two of numbers, native Korean numbers and Sino-Korean numbers. Some native Korean numbers have two forms,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followed by a counter or used in isolation.

예) 하나-한 (명), 둘-두 (명), 셋-세 (명), 넷-네 (명), 스물-스무 (명)

Noun Counter: When you count, you must use different counters. Nouns are classified into many groups depending on shape or kind.

-With Sino Korean number: 학년, 월/일, 층, 과, 년, 분, 달라(불), 원, 마일

예) 일 학년, 삼 월, 오 층, 육 과, 칠 년, 삼 분, 십 달러, 천 원, 이십 마일

-With native Korean number: 명/사람, 개, 과목, 과, 달, 마리, 시, 시간, 잔, 장

예) 한 명, 다섯 개, 여섯 과목, 한 과, 일곱 달, 여덟 마리, 아홉 시, 열 두 시간

13) The negative adverb 안, 못

안 : Negation of a predicate in general is made by putting the negative adverb 안 immediately before the predicate.

예) 가요- 안 가요, 먹어요- 안 먹어요, 와요-안 와요.

Negation of noun + 하다 verbs ‘do [noun]’ is usually made by putting 안 between the noun and the verb 하다, that is, [noun] 안 하다.

예) 공부해요-공부 안 해요, 연습해요-연습 안 해요, 일해요- 일 안 해요

Some verbs and adjectives have a special negative counterpart.

예) 있다-없다, 이다-아니다 알다-모르다

못: ‘unable, cannot’ is used when external circumstances prevent a person from doing some

thing. In contrast, 안 is used for general negation.

예) 어제 바빠서 숙제를 못 했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생일파티에 못 가요.

14) Past events: -었어요/ 았어요

-었/았/ㅆ indicates that event described has already taken place. -았 after a stem ending in 아, 오, and -었 elsewhere, -ㅆ is used when vowel contractions occur as in 갔어요 (from 가았어요). The final ending after -었/았/ㅆ is always -어요, not -아요.

예) 지난 주말에 아주 바빴어요. 친구와 만나서 좋았어요. 점심에 갈비를 먹었어요.

15) Irregular predicates in -ㅁ

Some predicates whose stem ends in ㅁ are subject to variation in the stem form. When the following suffix begins with a vowel, ㅁ becomes either 우 or 오.

예) 가깝다- 가까워요, 춥다-추워요, 덥다-더워요, 어렵다-어려워요

For monosyllabic irregular verbs in -ㅁ, such as 돕다 ‘to help’, 곱다 ‘to be pretty’, ㅁ changed to 오.

예) 돕다-도와요, 곱다-고와요

Irregular predicates in -ㄷ

When an adjective or verb stem ending in ㅌ is followed by ㄷ, ㅌ, ㅍ, ㅊ, the final ㄷ is omitted. In this case, the vowel -(으) is not inserted. (알+ -으세요-> 아세요)

예) 9시에 문을 여니까 그때 오세요. 학교에서 집까지 멀니까.

맛있는 쿠키를 만드세요.

6.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과 규범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용 오류들을 점검하며 실제 언어 현장에서 많은 규정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들을 보았다.¹³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기초 문법의 주요 사항들을 영어 설명과 함께 정리해 보았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특별히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설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모국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 집적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다양한 교재 개발, 교사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¹⁴

¹³⁾ 텃거스대학 및 한국학교에서 발견한 오류 및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오류들을 모아 정리함.

¹⁴⁾ 최용기(2007),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전망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에 관한 올바른 문법 지식의 이해를 가지고 학습자 앞에 서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학습자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수혜자(受惠子)와 전달자(傳達者)의 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언중(言衆)에 의해 그 체계와 성격이 조금씩 변하므로 언어 규범도 그에 맞게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변화되는 언어 규범을 빠르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사들의 몫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학교의 교사들은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를 통해 올바른 문법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재욱(2006),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북피아
- 김중섭(2006), 한국어 교육의 정체성과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 논문 발표 자료집,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 민현식(2004), 한국어의 특징과 맞춤법, 한국어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어세계화재단
- 박경래(1997), 실용문에 나타난 유형별오류실태분석1, 언어학 제1호, 중원언어학회
- 박경래(2000), 실용문에 나타난 유형별오류실태분석3, 언어학 제4호, 중원언어학회
-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이지영, 한국어문법 교수법, 한국어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상명대한국언어문화센터
- 이희승, 이병희(1995),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정원돈(2005), 문법과 언어교육, 세명대학교
- 정호성, 한국어 어문 규범, 한국어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상명대한국언어문화센터
- 정희원(2002), 국어 어문 규정, AATK 7th Annual Conference, 국립국어원
- 최용기(2007),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국립국어원
- 홍종민, 정희원(2005),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과 실제, 한인교육연구 23호
- 〈한글 맞춤법〉(1988), 문교부 고시 제88-2호
- 〈표준어 규정〉(1988),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 〈외래어 표기법〉(2004), 외래어 표기 용례집 중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
문화체육부 제 2004-11호
- KLEAR Textbooks,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 University of Hawaii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 커뮤니케이션북스

한국 역사/문화 교육 연구

김현주 백년 전 그대의 꿈

홍선표 서재필과 재미 한인의 3·1운동

최미영 주말 한국학교에서의 한국 역사문화교육 15년을 돌아보며

임정은 3·1운동 100주년, 그 활동과 의미 가르치기

백년 전 그대의 꿈

김현주

캘리포니아 프리몬트통합교육구, 교육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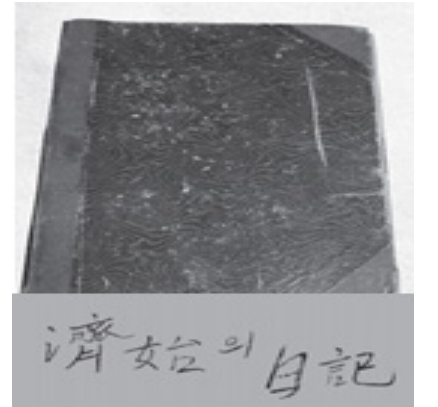
- 프롤로그, 백년 전의 젊은 그대
- 미국공립학교 교육이야기
- 미국사회에서 목소리 내기
- 정체성 교육, 역사교육
- 에필로그, 다가 올 백년의 과제

프롤로그, 백년 전의 젊은 그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투표를 해봤습니다. 꼭 당선되세요”, “한국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6일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던 날이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날이기도 했다. TV 나 라디오 뉴스에서나 듣던 미국 선거에 지역 공립 고등학교교육구의 ‘교육위원(school board member)’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나의 출마 소식은 지역 한인사회에 퍼져 나갔다. 십여년간 ‘한국학교’라는 한 인커뮤니티에서 일해 왔던 경험으로 지역 주류사회 교육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나의 도전에 한인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이 이어졌다. 선거운동은 쉽지 않았지만, 참 다양하고 많은 커뮤니티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을 겪으며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것의 중요함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과도 같이 당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을 때 내 마음 속에 한 분이 떠올랐다. ‘양우조’, 내 할아버지였다. 19세가 되던 1916년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오신 후, 초등학교부터 미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시작했다. 일하며 공부하던 힘겹던 시절, 한국에 다녀온 미국 선교사의 강연에서 가난한 동포들이 변변한 옷 하나 제대로 없어 헐벗은 채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조국에 돌아가 방직공장을 세워 내 동포를 입히자는 계획을 세우며 대학에서 방직공학을 전공하게 된다. 흥사단 활동을 했던 할아버지는 학업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르지만, 독립된 조국이 먼저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결혼하고 이듬해, 딸이 태어난 날부터 아내와 함께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 일기는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1946년까지 8년동안 기록되었다. 나는 운 좋게도 그 일기를 할머니를 통해 전해 받았다. 이 일기장을 통해 나는 임시정부 요인분들의 삶을 알게 되었다. 내 동포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내 마음 속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 후로 엔지니어인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해 오며 아이들과 다니던 도서관이나 서점에 한국에 대한 변변한 책이 없는 것을 보며 많이 속상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리도 바라던 독립된 나라에서 당당한 한국인으로 자란 나이지만 내 나라가 미국땅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는 안타까움 이상의 감정이 솟아 올랐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국계 아이들이 미국사회에서 한국을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학교’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도 내가 만난 할아버지와 임시정부요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학교에서 더 나아가 미국학교에서 정책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을 전하고자 꿈꾸게 된 것에는 역시 일제의 식민지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독립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그 분들의 삶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분들이 헌신했던 임시정부는 그 수립 백주년을 맞았다. 백년 전 젊은 그대가 도전정신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했던 미국의 학교에서 나 역시 변화를 만들고자,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짧지만 그동안의 여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부족하나마 나누고 싶다.



미국공립학교 교육이야기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인 공립학교 교육구의 교육위원으로 일하며 학교의 재정, 커리큘럼, 학교 설비와 건물 건축까지 학교운영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접하고 있다. “교육위원”은 한마디로 공립학교의 정책과 규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감과 교육구 직원들이 행정과 운영의 현장에서 일한다면 그들이 학교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교육위원들이 모여 진행하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립학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시민들을 대표하여 교육위원이 학교 행정을 심의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구의 비전과 목표도 결정하고, 교육감도 평가한다. 매 달 두번씩 열리는 교육위원회 회의 전에는 늘 700-800장 분량의 검토 서류를 교육구에서 받게 된다. 이를 살펴보고 교직원에게 질문하며 교육구의 운영과 현주소에 대해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그 추진의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제까지 느끼게 된 공립학교의 비전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공립학교는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즉, 모든 학생들을 아우르기 위한 교육이며 이를 평등(equality)한 교육이 아닌 공평(equity)한 교육의 개념으로 풀어나간다. 즉,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도움을 더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 장기결석생이나 학교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학생들의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정책들, 그리고 그 예산의 비중이 높다. → [결과적으로] 이는 다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구성원을 만들어야 하는 공립학교의 임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이런 공립학교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여러가지 학교의 노력과 관련 활동을 보며 사회를 배워나간다.

-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Comprehensive School)을 추구하고, 진로 및 직업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도 제공한다. 학교의 기능이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뿐 아니라 폭넓게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관련 과목과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큰 규모이기에 그만큼 다양한 활동이 존재한다.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클럽과 활동이 있고, 같은 교육구 내의 다른 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다. 또, 공립학교와 학교가 위치하는 시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시청이나 카운티 사무실 등 관련한 행정구역 안에서의 학생활동 및 리더쉽을 기를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기회가 많다.



미국사회에서 목소리 내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행사와 미팅에도 참석할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지역사회 리더들과 만나곤 한다.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관심을 표시하고 한인들과 연결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이야기한다. 지역 정치인들이 한인들과 연결될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다.

지난 해 교육위원 선거운동을 하면서 중국분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놀라곤 했다. 교육위원 후보자인 나에게 이메일을 해서 나의 계획을 묻거나 자신들의 관심사나 교육구 행정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물어보기도 했다. 지역마다 중국인들의 다양한 그룹이 있어서 그 그룹이 함께 나를 만나자고 요청하여 두시간 이상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지역사회 중국인들의 관심사와 지향하는 점에 대해 알아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런 일은 나뿐만 아닌 다른 선출직 정치인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미국사회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것은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도 비례하며 이는 우리 한국계 아이들이 미국에서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과도 통한다고 믿는다. 또, 한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더 많이 나오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주류사회에서 더 많이 수용되는 결과를 낼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이민사가 짧은 우리가 미국사회에서 좀 더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류사회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한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 이전에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그것은 꼭 한인사회 리더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나 개인이 하는 활동이 모이고 모여 지역 한인들의 목소리가 주류사회에서 더 커져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시도들이 있을 때 말이다.

-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부모 미팅이나 워크샵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 학교에서 오는 이메일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학부모를 위한 행사 정보를 파악하고 참가한다면 내 아이의 학교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측에도 한인 학생의 존재와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원이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결과를 낼 것이다.
- 문화차이를 극복한다. 즉, 겸양의 문화에서 파생되는 단점은 내가 아는 것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토론과 발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전달하기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단, 개인의 관심과 이익만을 위한 생각이나 질문보다는 공동체의 관심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더 큰 효과가 날 것이다. → 모임이나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질문하며 내가 아는 바를 발표할 때 더욱 인정받는다.
- 그룹과 조직만들기의 중요함은 아주 크다. 구성원의 숫자와 상관없이 함께 모여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고 목소리를 모으는 것은 즉, 힘을 모으는 것이다!
- 지역사회와 연결된 행사나 활동에 참여한다. 문화축제도 좋고, 자원봉사 활동도 좋다. 함께 하는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내 몫을 하며 한인의 존재감도 보여 준다.
- 한인학생들에게는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Proactive)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부탁하고 싶다. 즉, 수동적으로가 아닌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습관의 중요함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길 바란다. ‘커뮤니티’란 작게는 학교 클럽에서부터 지역사회 청소년 모임까지, 그 크기와 상관없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리더쉽’이 좋은 대학을 가는데 중요한 요건이라고 회자된다. ‘리더’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를 위해 진지하게 일하며 학업 이외의 값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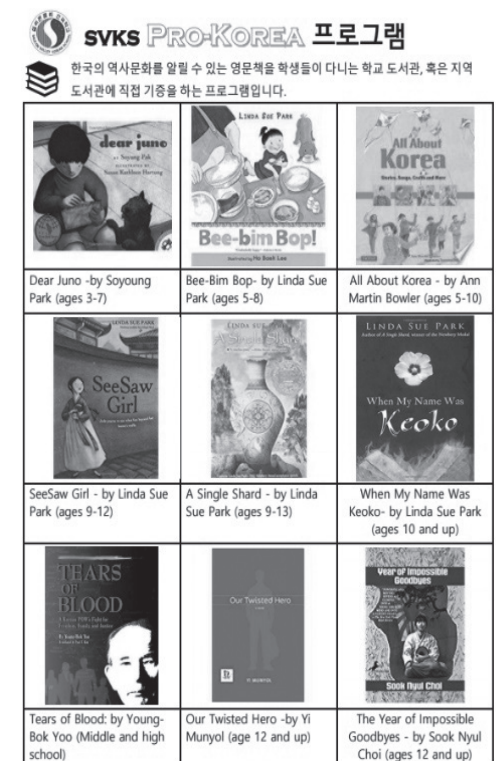
힘을 쌓아나가는 것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역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녀교육을 하고 싶다면 역시 같은 자세를 가지시고 활동하시길 권한다.

정체성 교육, 역사교육

십여 년 전 일이다. 한국학교 일을 시작할 무렵이었다. 운전을 하며 듣던 라디오 방송에서 한 일본계 미국인 학자를 인터뷰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분야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모국인 일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 인터뷰 진행자도 방송을 듣는 나는 감탄이 절로 났다. 그리고, 그의 존재에 감사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기에 그는 두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만의 감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음이 느껴졌다. 바로 그것이였다. 한국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에서 한국과 연결점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이를 두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인재를 키워가는 것이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역사문화에 대한 지식을 탄탄히 키워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내 목표요 과제가 되었다. 적어도 내게 배운 아이들이 한국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또 훗날 성장한 후에 한국역사문화에 대한 책을 출판하거나 자신의 직업에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되면 미국사회에 어느새 한국의 역사문화가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기에 이 미국에서 또 한인사회에서 한국학교의 역할은 무엇보다 소중한다. 또, 우리의 한국학교 수업은 교실 안에서만 머물리지 않는다. 한국학교 수업은 다음과 같이 연계될 수 있다.

- 교실 안에서 한국역사문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진행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발표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한다. 이는 아이들이 자신이 다니는 미국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미국학교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와 발표를 많이 권장한다. 한국계 아이들이 자신의 모국인 한국역사문화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감과 자신감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됨은 물론이다.
- 지역의 미국학교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cultural fair같은 문화행사에 자료나 소품을 지원 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학교는 한국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모여있는 곳이다. 한국학교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한국역사문화를 알리는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의 미국학교나 도서관에 한국에 대한 책을 기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역 학교나 도서관에 한국에 대한 자료나 책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서 나아가 책들이 구비되도록 변화를 만들면 된다. 이는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역사문화에 대한 영어로 된 책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직접 책들을 조사해서 읽어본 후에 기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몸담는 ‘실리콘밸리한국학교’에서는 ‘Project Promote Korea’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미국학교의 도서관에 한국역사문화에 대한 책을 기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학생들에게 기증하고 싶은 책을 고르도록 한 후에 신청을 하면 한국학교에서 책을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은 그 책을 직접 기증한 후 도서관 사서의 사인과 함께 사진을 제출한다. 이는 미국 학교에 한국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책을 기증하는 학생들 역시 앞으로 도서관에 한국에 대한 책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으로 이어진다.



에필로그, 다가올 백년의 과제

미국에서 한국어와 한국역사문화를 가르치는 일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다. 이는 우리가 한인커뮤니티의 근간이 되는 토대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차세대 한인들의 교육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백년 전 독립을 위해 도전하고 희생을 감수했던 독립운동가분들의 귀한 정신을 잇는 활동이라고 말하고 싶다. 조국을 되찾고 다음 세대들이 독립된 나라에서 당당히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분들의 희생의 이유요 목표였다면, 우리 한인교육자들의 목표는 미국사회에서 한국계학생들이 한국인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사회에서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 한인교육자들의 역할은 한국학교 교실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서있는 곳에서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내가 가진 한국인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내가 속한 커뮤니티 일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고마워할 것이다. 나 개인이 커뮤니티의 귀중한 일원으로 인정받을 때 나의 한국인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은 커뮤니티에서 재평가받게 된다.

나의 개인적인 과제는 교육구 내의 학생들의 미팅이나 행사 등에 많이 참가하여 학생들에게 한국계이며 아시안계인이 리더로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는 것이다. 또,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는 교육구가 되도록 하고 싶다. 미래의 리더들인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또 학생들을 위해 직접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다. 마지막으로 교육구 내의 학부모님들과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가져서 의견을 듣고 싶고, 또 교육구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싶다. 특별히 한인 학부모님들과 교육구 리더십과의 다리가 되고 싶은 것은 물론이다.

역사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존재한다. 삼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을 기억하는 올해, 우리의 한국학교는 다음 백년에 어떤 모습으로 새겨지게 될까? 우리가 마주하는 한국학교에서의 모든 시간들의 의미와 이유를 새기며 내가 속한 크고 작은 커뮤니티를 위해 노력하고 일해 나갈 때, 우리는 백년 후의 한인이민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 한국학교 학생들이 기억하고 되새길 오늘의 한국학교를 위해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다가올 백년에 가슴 설렌다. 백년 전 그대가 꿈꾸었던 모습일 것임을 믿으며...



[사진 설명]

-첫번째 사진: 일기장 원본, 일기 안에 '제시의 일기'라고 씌여져 있는 모습

-두번째 사진: Board Meeting 모습, Fremo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제공

-세번째 사진: Project Promote Korea를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책 리스트, 실리콘밸리한국학교 제공

-네번째 사진: 임시정부 국무요인들 사진, 윗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양우조, 출처:한국근현대사

사진 모음(contents.history.go.kr)

서재필과 재미 한인의 3·1운동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회의' 등 선전활동을 중심으로 -

홍선표

나라역사연구소 소장

1. 머리말

3·1운동은 더 이상 일제강점의 식민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전 세계 만방에 한국 독립을 선언한 거족적인 독립운동이다. 그래서 3·1운동은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자 한국독립운동의 분수령이라 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독립운동은 이전 소수 엘리트 지식인층이나 특정 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민족운동이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독립운동의 이념도 특정한 한 가지의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화 되었고 방략 또한 다변화 되는 발전을 이루었다.

3·1운동의 양상은 대체로 '만세시위'로 대변되어 나타났지만 간혹 의열 및 무장 투쟁의 방식으로도 표출되었다. 때문에 일제의 강력한 무장진압 앞에서 식민지 민족의 독립 염원의 뜻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웠다. 이것은 3·1운동을 폄하하는 세력들에게 독립무망론으로 이어져 친일과 부일, 또는 자치와 타협의 길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독립 선언 이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진 독립무망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란 그러한 길 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 선언의 기운과 기백을 이어받은 민족 세력들에게 3·1운동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절대 독립이라는 고난의 길을 자발로 뛰어든 것이다. 3·1운동이 한국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된 것은 현실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이상론자들처럼 보인 민족 세력들이 스스로 자주독립의 꿈을 지고 헌신했던 까닭이었다.

3·1운동으로 한국독립운동은 활기를 되찾아 더욱 다양화 되고 다변화 되었다. 국내에서는 소위 일제의 문화통치를 계기로 언론·출판·결사가 부분 허용되어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이 전개되었고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사상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임시정부가 상해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내외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만주에서는 독립군단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독립전쟁에 돌입하였다. 이처럼 3·1운동으로 인해 국내는 국외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본 발표는 미주에서 일어난 3·1운동, 즉 서재필이 주관한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회의'를 비롯해 한국통신부, 한국친우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전활동을 살핀 글이다. 이를 통해 '제1차 한인회의' 100주

년을 기리고 서재필의 독립운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제1차 한인회의’의 개최

1) 개최 배경과 추진

미주 한인사회에서 국내 3·1운동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현순(玄楯)의 전보가 1919년 3월 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전달되면서다. 당시 국민회를 중심으로 한 미주 한인사회는 미국이 주도하는 파리강화회의를 한국 독립의 호기로 판단, 이승만과 정한경을 한인대표로 선정하고 이들을 파견하는데 온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한국문제를 일본의 국내문제로 간주하여 한인대표에게 여권 발급을 불허해 모처럼 일어난 독립운동의 열기는 다소 침체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3·1운동의 소식이 전파되자 미주 한인사회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 주었다. 『신한민보』는 이 소식을 받은 충격을 “장래하여도 이렇게 장래하고 신기하여도 이렇게 신기한 일은 진실로 무엇에 비할 데 없으니 기쁨에 겨운 우리는 눈물을 뿌렸노라” 라고 표현할 정도였다.¹⁾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는 우선 3·1운동 소식을 즉시 서재필을 비롯해 파리강화회의의 한인 대표 이승만과 정한경 등 주요 한인들에게 알리고 향후 협조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San Francisco Examiner지와 San Francisco Chronicle 등 미국 언론에 알려 3·1운동 소식이 전 세계에 확산되도록 하였다.

3·1운동을 계기로 재미한인들은 독립운동의 방략을 그동안 추진한 파리강화회의 대표파견을 통한 청원외교활동에서 선전외교활동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재정을 통한 독립운동 후원활동을 미주 한인들의 중요 사명이 되도록 했다. 안창호는 1919년 3월 13일 중앙총회 위원 모임에서 3·1운동 이후 재미한인이 취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개개인이 독립의 각오와 일치된 행동을 가질 것, 둘째, 미국 각 언론·잡지나 종교계에 3·1운동의 소식과 기독교 박해사실 등 한국의 사정을 미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 동정을 얻고 한인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얻도록 할 것, 셋째,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북미·하와이·멕시코 재류동포들이 재정공급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했다.²⁾ 이것은 3·1운동을 계기로 선전외교활동과 재정공급이 미주한인들의 주요 활동이 되어야 함을 제시한 것이었다.

3·1운동 직후 미주한인사회에 처음으로 대규모 선전외교활동을 전개한 것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 ‘제1차 한인회의’(First Korean Congress, 일명 ‘한인자유대회’)이다. 대한인국민회 파리강화회의의 한인 대표였던 이승만·정한경이 필라델피아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던 서재필과 협력해 미주지역 처음으로 3·1운동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시내 리틀극장에서 개최한 ‘제1차 한인회의’의 개최 목적은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통치와 식민지 한국의 실상을 알리고 3·1운동으로 나타난 한국의 독립과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의 열망을 전

미국사회에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서재필은 이승만·정한경과 연명해 1919년 3월 24일자로 ‘대한인국민회 총대표회 위원’ 명의의 청첩장을 중앙총회와 각 지방 재류동포들에게 보냈다. 특별히 이승만과 정한경은 대한인국민회에 보낸 3월 28일자 전보에서 안창호와 윤병구의 참석을 요청했다.³⁾ 이에 대한인국민회는 윤병구와 민찬호를 대표로 파견했다.

‘제1차 한인회의’는 급하게 준비되었고 특별히 한인들이 적은 미국 동부지역에 개최되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나 매우 성공적인 대회였다. 3일 동안 연참가자 수가 약 150명 정도인 것은 당시 하와이 한인 6,500여명을 제외한 북미 한인의 숫자가 약 1,600여 명에 불과했음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사람이 참가했다고 볼 수 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미국 중·동부지역 한인유학생들이었는데, 여기에는 북미대한인유학생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⁴⁾

필라델피아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다른 어떤 한인보다 미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인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서재필의 역할 때문이었다. 서재필은 실질적인 대회 준비나 운영을 총괄하며 추진했다. 즉, 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사의 초청이나 장소 선정, 독립관으로의 시가행진에 필요한 필라델피아시측의 협조 등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서재필은 이번 대회 의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활동을 주도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업활동에 주력했던 그는 ‘제1차 한인회의’를 통해 한국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첫 번째 무대가 되었다. 대회 운영은 서재필·이승만·정한경 외에 임병직·김현구·‘장기한’(장택상으로 보기도 함)이 간사로, 천세현이 서기로 활동하였고, 영어숙기를 위해 미국인 리글씨가 고용되었다. 대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을 보면 윤병구·민찬호·김현구·임병직·장택상·조병옥·유일한·김노디·민규식·천세현·임초 등이다.

2) ‘제1차 한인회의’의 내용과 성격

‘제1차 한인회의’는 오전에는 주로 초청 연사의 강연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주제별로 작성한 결의문 및 호소문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순서를 가졌다. 각 주제별 결의문 및 호소문의 작성·발표는 미리 선정된 기초위원을 통해 하도록 했는데 이 일은 대회의 핵심 활동이었다. 작성한 6개의 결의문과 호소문은 ①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내는 결의문』, ② 『워싱턴의 미국 적십자본부에 보내는 호소문』, ③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④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 ⑤ 『일본의 지각 있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결의문』, ⑥ 『미국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청원서』 등이다.

각 결의문과 호소문의 일관된 관점은 한국의 독립과 독립된 한국을 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국가인 기독교 민주주의의 국가건설과 미국식 공화제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내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고매한 기독교인들이며 고등

¹⁾ 신한민보, 1919년 3월 13일자 호외, 『대한독립을 선언하고』.

²⁾ 신한민보, 1919년 3월 20일자 논설 『중앙총회장 안창호의 주전』.

³⁾ 신한민보, 1919년 3월 29일, 『우리 대표자의 급한 전보』.

⁴⁾ 신한민보 1919년 4월 8일, 『광고』. 북미대한인유학생회는 오하이오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1919년 1월경 조직된 것으로 임원은 회장 李春浩, 사무원 安鐘淳, 재무 曺宗경, 서기 李炳斗·林炳瓊, 기자 金鉉九·박줄리언이다

교육을 받은 자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정부의 원칙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재미한인들은 도의적, 물질적, 육체적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 때까지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임시정부를 이번 대회를 통해 미주 한인들은 처음으로 임시정부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것은 매우 선구적인 자세이자 해안 있는 결단이었다.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에는 우리의 투쟁 목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희망은 기독교 신앙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므로 이 호소가 미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지각있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결의문』에서는 일본 국민들이 지성있고 현명하다면 일본정부에게 국제 정의의 원칙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내는 청원서』에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 민족을 위한 자결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다시 얻어 기독교 민주주의라는 기본이념 아래 자유 국민으로써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제1차 한인회의’는 몇 가지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한국 독립의 목표와 새로운 국가건설의 열망이 미국의 이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을 과신(過信)하였다.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가운데 한국인이 주장하는 ‘자유’, ‘아시아 민주주의 실현’, ‘기독교 신앙의 전파’ 등은 “진정한 자유와 국제 정의의 실현을 위한 선구자적 사도”인 미국이 기꺼이 지지할 만한 것들이라고 했다. 또한 이승만은 “한국 국민의 목표와 열망이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연맹을 구성하고자 하는 미국 대통령의 목적이나 열망과 일치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입장은 대회를 주도한 서재필을 비롯한 모든 한인 참석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둘째, 한국문제를 국제 여론화하기 위해 한국인 최초로 한·미 연합의 국제대회로 개최되었다. 미국 국가를 부르며 대회를 시작하고 간간히 한국어를 사용 하였으나 대부분 회의진행을 영어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참가한 인사들은 한국인들 외에 각계의 저명 미국인들도 참석했다. 종교계 인사로는 필라델피아 성삼위교회의 톰킨스(F. W. Tomkins) 목사, 카톨릭계 빌라노바 대학 총장인 딘(J. J. Dean) 신부,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유대교당 랍비인 버코윙츠(H. Berkowitz) 박사, 펜실베이니아주 랜스다운시의 세인트 존교회의 맥비(C. McBee) 목사, 필라델피아 기독교계 지도자 맥카트니(C. E. McCartney) 목사가 참석했다. 교육계로는 오벌린대학의 사회학과 교수 겸 ‘중유럽연합 의장’인 밀러(H. A. Miller) 교수, 스와스모어 대학의 레이머(Reimer) 박사, 러시아의 세인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다년간 연구활동을 한 샤프트(A. J. G. Schadt) 교수가 참석했다. 그 외에 재한선교사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귀환한 데밍(Demming) 선교사와 쿡(Mrs. E. L. Cook) 여사, Evening Ledger지의 베네딕트(G. G. Benedict) 기자가 참석했다. 이들 모두 서재필과 친분있는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성경 봉독, 기도, 축사, 강연, 증언 등의 순서를 맡음으로써 국제대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셋째, 기독교 집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었다. 대회에서 줄곧 표현된 ‘기독교 정신’의 강조는 기독교적인 대회 분위기의 성격을 잘 반영해 주었다.

‘제1차 한인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필라델피아시 당국에서 제공한 악대부의 협조를 받아 한국과 미국의 국기를 양손에 들고 리틀극장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시가행진을 했다.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안에 들어간 참석자들은 대회 직전 임시정부의 ‘국무경’으로 선임된 이승만의 3·1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삼창, 그리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1차 한인회의’의 영향은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독립경축일(4월 15일)로 이어졌다. 대회 결

과물은 『제1차 한인회의(First Korean Congress)』란 제목의 영문 책자로 만들어 미국사회에 널리 홍보했다.

3) ‘제1차 한인회의’의 역사적 의의

1919년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원천이 3·1운동 직후 필라델피아에서 거행한 ‘제1차 한인회의’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1차 한인회의’가 가진 역사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3·1운동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독립을 대외로 선언한 제2의 3·1운동이다.

둘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사실을 처음으로 미국사회에 알림으로서 이후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광복 이후 수립될 자주 독립 국가의 기본틀을 제시함으로써 독립 후 국가건설의 대강을 처음으로 설계하고 제시했다.

넷째, 한국 독립을 위해 선전·외교활동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본격화하는데 첫 단초를 열었다.

3.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의 설립과 활동

1) 설립

서재필은 ‘제1차 한인회의’ 이튿날인 4월 15일에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전문적인 선전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활동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⁵⁾ 그의 생각은 세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미국에 막강한 통신사를 두고 한국의 실상에 관해 왜곡된 선전을 계속해 왔다. 둘째, 조직적인 정부의 후원이나 재력 및 적당한 후원기관도 갖지 못한 한인들이 일본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한인만이 갖고 있는 진실되고 정당한 대의명분을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 이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수에 의한 추진 보다 모든 한인들이 참여한 조직적이고 항구적인 기구 설립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일본의 왜곡된 선전활동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한국 지배에 대한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시작되었다. 국내 The Seoul Press지의 발간과 워싱턴DC에 ‘동양선전국’(Oriental Information Bureau)의 설치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1919년 3월 30일자 New York Times 『이집트와 한국』이라는 논설에서 한국은 자치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폈는데 이것은 The Seoul Press 1919년 3월 7일자 논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친일 미국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식민지배를 합리화 시키는데 노력했다. 그 중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친일론자는 예일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조지 래드(George T. Ladd), 미국 언론인 조지 케난(George Kennan),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총무 아더 브라운(Arther J. Brown) 등이었다. 특히 래드는 일본의 사주를 받아 The New York Times Sunday Magazine 1919년 5월 11일

⁵⁾ 원성옥역, First Korean Congress: 최초의 한국의회 (범한서적, 1986), 169~170쪽

자에 3·1운동에 대한 논평에서, 한국 민족을 중국의 저속한 풍습의 영향을 받아온 자치능력이 없는 민족이라고 혹평하였다. 또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매우 유익하며 대다수 한인들은 일본의 통치를 만족하고 있으며, 3·1운동은 다수의 한인 중 소수 불평자의 소행으로 과소평가 했다. 이 글이 게재되자 이승만·정한경·윤병구는 맹렬하게 비판했다.⁶⁾

일본은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한 후 『조선 개혁에 관한 연례보고서(The Annual on Reform and Progress in Chosen)』라는 영문판 연감(年鑑)을 매년 발간하여, 미·영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왜곡된 식민통치를 선전했다. 이 연감의 주요 논리는 식민지 한국 민족이 일본 정치인의 지도로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모두가 행복해 하며 일본통치 하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재필은 일본의 왜곡된 선전활동의 폐해를 알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1918년 12월 19일자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국제정세가 한국 독립문제를 선전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니 영문잡지를 발간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대한인국민회는 1919년 1월 4일과 2월 24일 회의에서 그의 제안을 부결시켰다. 부결의 주된 요인은 당시 이승만·정한경의 파리행을 시도하고 있던 마당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출판사업을 추진할 경제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1919년 1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새로 결성한 북미대한인학생연맹(The Korean Student's League of America)은⁷⁾ 월 300달러의 저예산으로 파리강화회의 기간(1919.1~6.)동안 영문 잡지 발간을 추진했다. 그 결과 Freedom and Peace with Korea under Japan? 라는 제목으로 『신한민보』의 후원을 받아 1919년 3월부터 제1호를 발간했다. 이것은 3·1운동 발발과 함께 미주 한인사회에서 맨 처음 발행되는 영문잡지로 국제회의 기간 동안 한국의 독립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인유학생들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일본의 왜곡된 선전활동에 대한 폐해와 3·1운동 이후 선전활동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자 대한인국민회는 서재필의 통신부 설립안을 받아들였다. 4월 19일 중앙총회 제20차 위원회의에서 그를 외교고문으로 임명하고 필라델피아에 통신부 설립과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The Bureau of Inform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는 서재필의 사업장과 바로 인접한 필라델피아 시내에 사무실을 두고 개소되었다. 설립 시기는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의 재정장부의 기록이 1919년 4월 22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⁸⁾ 이로써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3·1운동으로 나타난 한국 독립의 열망과 일제의 식민통치의 진상을 널리 알려 반일여론과 친한여론을 일으키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는 부장 1인(서재필), 서기 1인(박영로),⁹⁾ 외교 협찬원 3인(정한경, G. Benedict, Miss. Guthaphel), 사무원 1인(Miss. Chester)으로 구성했다.

2) 주요 활동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의 활동방향은 서재필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에게 보낸 1919년 4월 29일자 서신에서 밝혔다. 첫째, 책자 발간을 통한 출판선전활동, 둘째, 대중집회를 통한 강연활동, 셋째, 미국인들에 의한 친한 단체, 예컨대 한국친우회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두었다.¹⁰⁾

서재필이 언급한 것 중 주목할 점은 선전활동의 대상을 주로 미국 국민에 둔 점이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대한(對韓) 태도가 3·1운동 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컨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미 국무성의 한 고위관리는 1919년 4월 20일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지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문제에 대하여 영국과 이집트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동일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한국문제는 전적으로 일본의 내정문제로 우리 필리핀에 폭동이 일어났을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하고 있었다.¹¹⁾ 따라서 한국 독립문제가 일본의 내정문제라는 인식을 가진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삼기보다 미국 국민에게 집중하여 친한 동정여론을 일으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미국 언론과 의회에 반영시켜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에 유리한 대한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재필이 선전활동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오래전부터 구상해 온 영문잡지를 발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북미대한인학생연맹이 1919년 3월부터 발간하던 영문잡지를 인수해 1919년 6월부터 Korea Review(『한국평론』)라는 새 이름으로 발행했다. 새로 발간한 Korea Review는 1권당 16쪽 분량에 책값은 20센트이며 1년 구독료는 2달러였다. 편집 및 발간의 모든 운영은 서재필이 주관했으나 기사의 취재나 집필, 세부 편집활동 등은 북미대한인학생연맹의 편집진이 맡았다. 그 외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가 발간했거나 선전용으로 활용한 책자들은 다음 표와 같다.

선전용으로 활용한 영문 책자

저자	책명	발행처
-	<i>First Korean Congress</i>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
박영일	<i>Little Martyrs of Korea</i>	
Joseph W. Graves	<i>The Renaissance of Korea</i>	
Nathaniel Pepper	<i>The Truth About Korea</i>	

⁶⁾ Korea Review, 1919년 6월호, 6-10쪽 참조

⁷⁾ 임원은 회장 이춘호(李春浩), 사무원 안종순(安鐘淳), 재무 옥종경, 윤영선, 서기 이병두(李炳斗), 임병직(林炳稷), 기자 김현구(金鉉九), 박출리언이다.

⁸⁾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서320, 재정장부.

⁹⁾ 서기는 1920년 9월부터 레딩시에 거주하는 김장호로 바뀌어 졌다.

¹⁰⁾ 신한민보, 1919년 5월 16일자, 『서재필씨의 편지』 참조.

¹¹⁾ 조선총독부경무국, 米國ニ於ケル朝鮮獨立運動ニ關スル調査報告書, 1921, 124쪽.

-	<i>The League of Friend of Korea</i>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
-	<i>Independence for Korea</i>	
서재필	<i>Hansu s Journey</i>	
F. A. Dolph	<i>Briefs for Korea</i>	구미위원부
	<i>Japanese Stewardship of Korea, Economic and Financial</i>	
	<i>Balancing Debits and Credits in Far East</i>	
정한경	<i>The Orient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i>	
	<i>Korean Treaties</i>	
	<i>The Case of Korea</i>	
W. Kendall	<i>The Truth About Korea</i>	대한인국민회
Arther McClennan	<i>Japanese Atrocities and Force in Korea</i>	
J. E. Moore	<i>Korea's Appeal for Self-Determination</i>	
F. A. McKenzie	<i>Korea's Fight for Freedom</i>	뉴욕
신홍우	<i>The Re-Birth of Korea</i>	뉴욕
김규식	<i>The Claim of the Korean People and Nation</i>	파리한국통신부
V. S. McClatchy	<i>The Germany of Asia</i>	캘리포니아
미국 기독교연합평의회 동양관계위원회	<i>The Korean Situation 1</i>	뉴욕

이들 선전용 책자들은 대부분 선전대상이 주로 미국인에 국한되어 그 논조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은 한국의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있다. 둘째, 한국에서 일본의 개혁정책은 순전히 허구일 뿐 아니라 기만적이다. 셋째, 한국은 오랜 기간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려왔고 현재 충분히 그러한 자치능력과 민족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넷째, 미국은 과거 한국과 맺은 한미수호조약에 의해 한국을 도울 의무가 있으며,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약소민족의 정당한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요충지인데 일본이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국익과 상충된다. 여섯째, 미일 양국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 한국을 우선 독립시켜야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미국의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서재필은 한국통신부를 중심으로 강연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는 이승만·정한경을 비롯해 한국에서

오랜 동안 선교활동을 한 벡(S.A. Beck)목사, 한국친우회장 톰킨스 목사 등과 함께 대중 강연활동에 전념하였다. 서재필은 한국통신부에서 활동한 3년 동안 미국 각지에 300회 이상의 연설을 통해 약 10만여 명의 미국인들에게 한국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¹²⁾

이 밖에 서재필은 미국의 언론이나 단체에 대한 기고활동을 통해 한국 독립문제와 주장하고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통치를 집중 성토했다. 예컨대 Philadelphia Public Ledger지에 『한국은 실질적인 독립을 원한다』(1919. 8.22), 『일본은 세계 국가들과 협력을 바란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1919.11.23), 『한국민족은 열등민족이 아니다』(1920.1)라는 글을 썼다.¹³⁾ New York Commercial Journal에 『동양에서 일본의 특별한 권리』(1919.7.21), World Trade Review에 『한국에서의 일본』(1919년 10월호)등을 게재하였고 1920년 7월 30일자로 필라델피아상공회의소에 『한국에서 일본의 무역독점』의 제목으로 편지를 보내 미국의 대일간섭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친일선교사 셰릴(Charles. H. Sherril)이 일본의 한국지배를 합리화하고 한국 민족을 가장 지겨운 민족이라는 내용의 글을 Scribner's Magaine 1920년 3월호에 신자 서재필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뉴욕의 장로교선교위원회에 항의문(1920.3.8.)을 보내 사과를 받아 냈다.¹⁴⁾ 또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딩(Warren G. Harding)에게 공개 서한(1920.11.22)을 보내 한미조약의 준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였다.¹⁵⁾

3) 활동의 성과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는 1921년 6월부터 구미위원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1922년 7월 Korea Review 발간이 중단될 때까지 서재필의 자구노력과 자비에 의해 유지되었다. 주요 원인은 재정지원을 전담한 구미위원부가 자체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구미위원부는 재정권 관할문제로 기존의 대한인국민회와 마찰을 일으켜 미주 한인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다.

재정권 관할문제는 대한인국민회가 1919년 6월경 상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아 애국금 수합활동을 전개하자, 이승만은 새로 설립한 구미위원부를 내세워 1919년 9월 4일자로 애국금 수합을 전면 중단하고 공채금 모집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20년 2월 상해 임정이 독립공채로 재정을 통일하기로 하면서 구미위원부로 모든 재정권이 넘어갔으나 두 기관의 위신추락은 물론 미주한인사회를 분열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또 구미위원부 초대 위원장인 김규식이 이승만의 독단 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1920년 8월 7일 사임서를 제출한데다,¹⁶⁾ 이후 김규식의 뒤를 이은 현순이 1921년 4월 무리한 대사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많은 재정을 소모하였고 여기에 반발해 구미위원부 내부에서 내홍이 발생했다.

¹²⁾Korea Review, 1922년 4월호, 15~16쪽 참조.
¹³⁾신한민보, 1920년, 1월 15일자 및 17일자, 『서재필기고문』 참조.
¹⁴⁾Korea Review, 1920년 4월호, 1~2쪽.
¹⁵⁾Korea Review, 1920년 12월호, 1~6쪽.
¹⁶⁾강화회의 참석을 위해 파리에 있던 김규식은 미국에서의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1919년 8월 22일 미국에 온 이후 구미위원부의 초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의 역할이 단순히 이승만을 보좌하는데 그칠 뿐 위원장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자 그는 1920년 10월 3일 워싱턴DC를 떠남으로써 이승만과 결별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구미위원부는 미주한인사회에서 신용을 추락해 자체 유지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여기에다 활발한 재정모금과 지원에 비해 가시적인 독립운동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주한인들의 실망과 미국 경기의 침체, 캘리포니아주 한인 벼농사 사업의 실패의 예에서 드러난 한인 경제의 불황 등으로 전반적인 독립운동의 열기가 침체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재필은 워싱턴회의(1921.11~1922.2)에 대한 외교활동을 마친 직후 미주한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앞으로 한국통신부와 한국친우회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¹⁷ 그는 1922년 7월호를 마지막으로 Korea Review 발간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한국통신부의 활동을 접었다.

서재필이 한국통신부의 활동을 중단하게 된 데는 첫째,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할 만큼 개인 사업을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사업상의 어려움에는 독립운동 헌신에 따른 서재필의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당시 1921년 전후부터 불어 닥친 전반적인 미국 경기의 침체도 큰 몫을 차지했다. 둘째,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를 구미위원부로부터 독립해 영구적인 기관으로 유지하려는 계획이 미주한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독립운동 열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성사되기 어려운 사정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의 선전활동은 3년여의 짧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3·1운동으로 나타난 한국문제를 미국 의회·언론·교회·선교단체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시켜 국제여론화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재필은 미주 한인들에게 보낸 1921년 4월 18일자 『통고문』에서 첫째, 한국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만든 것, 둘째, 한국인이 일본에 항거하는 이유를 알린 것, 셋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한국을 동정하는 수천명의 사람을 얻은 것, 넷째, 일본에게 한인의 인권을 존중토록 한 것, 다섯째, 재미한인사회에 단합된 행동을 일으키게 한 것, 여섯째, 구미위원부의 활동을 도운 것 등을 나름의 성과로 보았다.

4. 한국친우회의 결성과 활동

1) 결성

한국친우회(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는 ‘제1차 한인회의’ 이튿날(1919.4.15) 서재필이 선전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리에서 미국 내 친한 미국인을 많이 확보해야 될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처음 제기되었다. 그리고 서재필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에게 보낸 1919년 4월 29일자 서신에서 미국인 단체를 조직해 친한여론을 일으킨다면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할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¹⁸

서재필의 구상에 대해 ‘제1차 한인회의’에 연사로 참한 톰킨스(F.W. Tomkins)목사,¹⁹ 오버린 대학 사회학과의 밀러(H. A. Miller) 교수, I.N.S(International News Service)베네딕트(G. Benedict) 기자 등은 적극 지지하였다. 이 가운데 톰킨스 목사는 한국이 주장하는 독립과 자유를 위해 기꺼히

도울 것을 약속함으로써 한국친우회의 조직에 앞장섰다. 이에 따라 서재필·톰킨스·베네딕트는 1919년 5월 2일 필라델피아 시내 시티클럽에서 종교계·교육계·실업계의 각 분야별 저명인사 22명을 초청하여 한국친우회 발기모임을 가졌다.²⁰ 여기서 서재필은 미국 국민이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여 자유와 독립을 한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지금 한인들이 이를 위해 싸우는 마당에 미국 국민이 이를 모른 채 한다면 크게 모순되는 일이고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한국친우회의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친우회는 1919년 5월 15일 레딩(Reading)시 라자(Rajah)극장에서 성대한 집회를 개최한 후 5월 16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설립 목적은 첫째, 기독교와 자유 독립 국가를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민족들에게 미국인의 동정과 도덕적인 지원을 보낼 것, 둘째, 한국 민족이 지금까지 받아온 일제의 학정과 부당한 대우를 가능한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미국민의 도덕적 영향력과 호의적인 조정을 사용할 것, 셋째, 한국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미 국민들에게 알릴 것, 넷째, 세계 모든 민족과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증진시키며 하나님의 법이 온 세계에 수립되도록 돕는 것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서재필은 한국친우회가 성공하여 일백만 이상의 회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다분히 한국 독립을 위한 정치적인 운동까지 계산하였다.²¹

한국친우회는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와 처음부터 상호 협조체제 속에서 운영되었다. 대체로 한국친우회는 한국통신부나 구미위원부의 지시나 재정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의 회비 수입과 의연에 의해 운영되었다. 때문에 나름대로 독립된 자치활동을 전개했다.

2) 각 지역별 조직

한국친우회는 필라델피아를 비롯해 미국 각지에 21개의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런던과 파리에도 각각 설립되었다. 스스로 전체 회원수를 25,000여명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고 약 1만명 내외인 것으로 보인다.²² 한국친우회는 1923년 말 폐지될 때까지 3·1운동으로 나타난 한국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친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잊혀진 나라 한국 민족을 위해 외국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의 조직과 활동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²⁰⁾ 신한민보, 1919년 5월 13일자, 『대한자유친구회조직』.

²¹⁾ 신한민보, 1919년 5월 27일자 『대한친구회의 조직과 의결안』 참조.

²²⁾ Korea Review, 1921년 8월호, 13쪽 및 1922년 1월호, 11쪽. 그런데 朝鮮總督府警務局, 米國ニ於ケル朝鮮獨立運動ニ關スル調査報告書(1921), 117~118쪽의 일본측 조사에 따르면 전체 회원수를 약 3,000명으로 잡고 있다.

¹⁷⁾ 신한민보, 1922년 2월 23일, 『서재필 서신』.

¹⁸⁾ 신한민보, 1919년 5월 16일자, 『서재필씨의 편지』.

¹⁹⁾ 톰킨스 목사에 대해 서재필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잘 무장된 군대의 몇 개 연대와 맞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의 인물됨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친우회 조직 상황

단체명	설립일	지역	조직 구성
필라델피아 한국친우회	1919.5.16	펜실베이니아주	회장 톰킨스 ²³ 부회장 밀러 회계 페이스리(H. E. Paisley) 서기 베내딕트
레딩(Reading) 한국친우회	1919.6.26	상동	회장 리빙우드(F. Livingood) 부회장 존(G. M. Jones) 회계 화이트(W. White) 서기 셰너(J. B. Shaner) 블랙번(R. M. Blackburn)
포스트리아 한국친우회	1919.8.3	오하이오주	회장 윌버(F. A. Wilber)박사 부회장 크루익산크(J. L. Cruikshank) 회계 저페(J. M. Jerpe) 서기 프리즈(J. F. Freese)
티핀(Tiffin) 한국친우회	1919.8.5	상동	회장 슈만(A. C. Shuman) 부회장 워너(E. H. Warner) 회계 오스카 쉬라더(Oscar Shrader) 서기 제이콥 마틴(Jacob Martin)
핀들레이(Findlay) 한국친우회	1919.9.20	상동	회장 기어(W. H. Guyer)박사 부회장 레버(F. W. Reber)목사 회계 크래트(W. E. Crates) 서기 매크로린(W. H. McLaughlin)
리마(Lima) 한국친우회	1919.9.21	상동	회장 해밀톤(T. R. Hamilton)박사 회계 알스페츠(W. A. Alspach)목사 서기 몽고메리(W. Montgomery)
워싱턴DC 한국친우회	1919.10.1	워싱턴DC	회장 보일(G. L. Boyle)상원의원 ²³⁾ 부회장 스팀(G. W. Stearn) 회계 콜린스(M. D. Collins) 서기 오텐버그(L. Ottenberg)
샌프란시스코 한국친우회	1919.10.11	캘리포니아주	회장 맥아피(L. A. McAfee)목사 부회장 바로우스(D. P. Barrows)박사 서기 그로스(H. C. Gros)
시카고 한국친우회	1919.9	일리노이주	회장 바버(J. J. Barbour)상원의원 부회장 타이틀(E. F. Tittle)박사 회계 스티븐스(C. N. Stevens) 서기 가터필(M. L. Guthaphel)

단체명	설립일	지역	조직 구성
캔사스시시티 한국친우회	1919.11.10	미조리주	회장 이세트(W. C. Isett)목사 부회장(3명) 비숍(C. S. Bishop) · 콩돈(J. E. Congdon) · 쿡(E. F. Cook) 회계 무디(C. B. Moody)
컬럼버스 한국친우회	1919.11.25	오하이오주	회장 휴스턴(W. Houston: 오하이오대학교 교목)박사 서기 겐 회계 소드(H. M. Sourd)
맨스필드 한국친우회	1919.12	상동	회장 툴로스(R. E. Tulloss)박사 부회에 맥밀린(McMilln)박사 서기 겐 회에 엘리엇(F. Elliot)
얼라이언스(Alliance) 한국친우회	1919.12	상동	회장 브라이슨(F. J. Bryson) 부회장 맥카티(B. McCarty) 회계 위버(L. L. Weaver) 서기 제실(Zechiel)
뉴버그(Newberg) 한국친우회	1919.12.14	오렌군주	회장 김슨(C. E. Gibson) 부회장 멘텐홀(H. G. Mendenhall) 회계 밀스(J. D. Mills) 서기 필(C. S. Piel)
보스톤 한국친우회	1920.1.11	보스톤주	회장 머린(L. H. Murlin: 보스톤대학교 총장) 회계 마건(H. I. Magoun) 서기 스타레트(A. M. Starrett)
안아버(Ann Arbor) 한국친우회	1920.2.20	미시간주	회장 루스프(W. C. Rufus) 부회장 우드햄스(R. Woodhams) 회계 웰톤(J. W. Welton)여사 기록서기 오코너(W. O' Conner) 집행서기 이병두
뉴욕 한국친우회	1920.4.20	뉴욕주	회장 스미스(C. J. Smith) 서기 길모어(G. W. Gilmore)
팍빌(Park Ville) 한국친우회	1920.3.9	미조리주	팍 대학생 이용직 주도 임원진 미상
덴버 한국친우회	1920.3	콜로라도주	이승만, 정한경 주도 임원진 미상
업펠 퍼키오멘 벨리 (Upper Perkiomen Valley) 한국친우회	1920.8.3	펜실베이니아주	회장 드롱(C. M. DeLong) 부회장 키슬러(W. U. Kistler) 회계 리터(R. E. Ritter) 서기 엘커(A. L. Welker)
마리온(Marion) 한국친우회	1921.1.2		이병두 주도 임원진 미상
런던 한국친우회	1920.10.26	영국	의장 로버트 뉴만(Rovert Newman)하원의원 명예회계 히스롭(W. G. Hislop) 명예서기 윌리엄즈(W. L. Williams) 간사위원 존 에드워드(John Edwards), 페리 (J. H. Parry), 맥켄지 등 7명 회원 62명
파리 한국친우회	1921.5.20	프랑스	루이 마랭 회장 등 임원 11명 행동위원회 5명 기타 회원 7명 등 총 23명

²³⁾ 회장은 뒤에 올슨(J. C. Olsen) 전 해군장군으로 바뀌어 진 것 같다.

3) 한국친우회의 성격

한국친우회의 결성과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첫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인도적이고 비정치적인 시민단체로 출발했으나 한국친우회가 한국문제를 위한 정치적인 압력단체로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각 지역 친우회가 조직될 때 발표되고 있는 결의문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한국친우회를 결성할 때 발표한 결의문을 보면 미국 정부가 1882년 한미조약을 준수하여 부당한 일본지배를 막고 한국의 독립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한 뒤 이 결의문을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보내 한국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한국친우회와 레딩 한국친우회의 경우처럼 워싱턴회의 미국대표단 단장 휴즈에게 워싱턴회의에서 한국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는데 이 같은 행동은 한국친우회가 정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 한국친우회의 조직은 미국의 중·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선전활동이 주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졌음을 의미한다. 주된 요인으로는 지리적으로 한국통신부와 한국친우회가 처음 결성된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차차 인근의 워싱턴DC와 뉴욕 등지로 확산된 데다 미국 중·동부지역에 있는 한인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러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셋째, 친우회 결성은 주로 대중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친우회의 조직 활동이 미국 전역에 걸쳐 가능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먼저, 미국인 정서에 부합하면서 효과적으로 강연활동을 전개한 유능한 인재들의 활약을 들 수 있다. 먼저 서재필은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를 통해 처음부터 한국친우회 결성에 앞장섰고 여기에 이승만이 합류함으로써 그 성과를 배가시켰다. 아울러 정한경을 비롯해 톰킨스·헬버트·백²⁴·그리피스²⁵·가터필²⁶·화이팅²⁷ 등 친한 미국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미주 한인유학생들이 한국친우회를 조직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진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이다. 이들에 의해 친우회가 결성된 곳을 보면 오하이오주 지역을 비롯하여 미조리주, 매사추세츠주, 미시간주, 뉴욕주, 등 13곳이나 되는데 이것은 미국 전체 친우회조직 가운데 60%를 넘고 있었다. 친우회 조직 때에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인사들이 활발히 참여했는데 이는 그만큼 이들 한인 유학생들의 노력이 컸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팽배한 반일여론을 적극 이용한 점이다. 당시 미국에서 일어난 반일여론의 논거는 일본의 침략적 팽창주의정책과 ‘황화론(黃禍論)’이다.²⁸ 여기에 3·1운동 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비인도적인 탄압 행위가 덧붙여져 일본이라는 나라는 식민지를 통치할 민족이 못 된다는 여론이 일게 되었고 아울러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본인 배척문제가 제기되면서 반일여론은 격화되었

다. 파리강화회의에서 산둥(山東)의 이권이 일본에게 넘겨지자 미국 의회와 언론은 인류의 해방을 위해 세계대전에 참가한 미국의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는 논리로 반일여론을 선도하였고 이를 강화조약의 비준과 국제연맹의 결성에 반대하는 구실로 삼았다. 이처럼 미국 내 반일 분위기는 한국친우회 조직시 미국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리한 배경을 만들었다.

한국친우회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에도 조직되어 광범위한 국제적인 조직을 갖추에 따라 3·1운동으로 나타난 한국의 실상을 전파하고 친한여론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국친우회는 서재필이 워싱턴회의 종결 이후 모든 활동을 중지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침체에 빠졌다. 한국친우회는 관동대지진으로 한인 학살문제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때 필라델피아 한국친우회 회장 톰킨스가 1923년 11월 20일자로 미국무장관 휴즈에게 항의문을 보내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아 1923년 말까지 계속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²⁹

5. 맺음말

3·1운동 이후 한국독립운동을 고찰할 때 그동안 주로 국내나 만주 그리고 중국 관내지역을 중심으로 고찰되고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실상이 하나씩 밝혀지고 미주지역 독립운동이 한국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재검토하게 되면서 다시금 주목받는 자리가 되었다. 그런 전환점의 시기가 바로 3·1운동 직후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된 미주 한인들의 강렬한 독립운동이었다. 국내 3·1운동이 미주 한인사회에 미친 파급력은 매우 컸다. 3·1운동을 계기로 미주 한인사회는 필라델피아의 서재필을 중심으로 냉각된 독립운동의 열기를 되살려 한국 독립을 위해 하나로 결집하였고 그 힘으로 대대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3·1운동 이후 미주 한인사회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은 국내나 만주, 그리고 중국 관내와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을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이었다. 국내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전환된 뒤 새로운 단체와 언론 잡지가 발간되어 민족운동의 영역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만주에서는 독립군단들이 편성되어 항일무장투쟁의 기치를 올리고 독립전쟁을 개시하였다. 중국 관내에는 상하이로 집결한 독립운동가들이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의 서재필은 주요 한인들과 친한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사회와 미국인을 상대로 활발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 직후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선전활동은 독립운동의 양적인 면이나 질적 수준에서 다른 어떤 지역과 견줄지라도 결코 뒤쳐지거나 모자라지 않는다. 이같은 선전활동은 미주지역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사방으로 그 열기를 확산시켜 상해 임시정부를 강하게 뒷받침 해 주었다. 그리고 국내외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3·1운동 이후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미주 한인의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켜 준 인물은 서재필이었다. 그의 활약으로 이승만·정한경은 물론 톰킨스·밀러·헬버트 등 친한 미국인들을 움직였다. 그리하여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 한국 독립문제를 국제여론화하여 국제적인 동정과 지원을 얻어냈다.

²⁴⁾ 백 목사는 한국의 성서공회에서 20여 년간 재직한 바 있는 친한선교사이고, 한국친우회뿐만 아니라 한인구제회의 활동에도 많은 활동을 하여 1919년 5월 1일부터 1920년 9월 20일까지 200여 곳에 30여 만명의 사람들에게 강연활동을 할 정도로 한국 독립에 헌신한 인물이다.

²⁵⁾ 그리피스는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활동한 바 있으며 Korea, The Hermit Nation (은둔의 나라 한국)을 쓴 저자다.

²⁶⁾ 가터필여사의 활동은 신한민보, 1920년 4월 2일자, 『가터필여사의 활동』 참조

²⁷⁾ 화이팅(H. C. Whiting) 선교사는 친우회 조직활동의 전면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한국의 독립을 위해 266회의 강연활동과, 각 처에 친우회를 조직하고 공채표를 발매하였다.

²⁸⁾ 여기서 ‘황화론’이란 인종론에 바탕을 갖고 동양인 특히 일본의 시베리아 및 중국으로의 대륙팽창정책이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미국 허스트계 신문의 反日 선전논리다.

²⁹⁾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3861-226, 『톰킨스의 조선인학살항의문에 관한 건』.

주말 한국학교에서의 한국 역사문화교육 15년을 돌아보며

최미영

다솜한국학교 교장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전 총회장

들어가는 말

필자가 교장으로 있는 다솜한국학교가 올해로 개교 15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5년의 다솜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21세기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한국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26년간 한국학교 교사 및 교장으로 지내오면서 특별히 지난 15년 동안의 한국학교는 여러 면에서 성장과 발전이 많았고 동시에 학습자 구성과 교육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기억한다. 학습자 구성이 한인 1세와 2세에서 3세와 4세 및 다문화 가정 등으로 다양해졌고, 한글만을 교육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어 및 한국 역사와 문화를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연구하여 가르쳐야 하는 시기에 도달하였으며 수업 방법도 전통적인 교수 방법 외에도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방법을 도입해야 했다.

다솜한국학교의 지난 15년의 역사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2천여 한국학교들과 더불어 한국학교 역사의 당당한 주역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무엇에 중점을 두어 왔는지를 돌이켜보았다. 미주에서의 한국학교의 역사를 대개 50년으로 보고 있는데 본교가 설립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주말 한국학교의 교육 목표가 한글 교육에만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고 재미 동포 학생들에게 Korean-American 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강조해야 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그로부터 미국에 있는 많은 학교가 한글학교라는 이름에서 한국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기억한다.

주말 한국학교의 최종 목적은 재외 한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여 한국과 교류 국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동포 학생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어 뿐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교수 방법에 관하여 더 많은 연구와 적용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사는 동포 학생들의 경우 정규 학교에서 왜곡된 내용의 역사 및 영어 교재를 통해 한국을 배워왔고 심지어 한국을 다

루는 내용도 전혀 없다시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말 한국학교 3시간의 수업에 한국 역사 문화를 심도 있고 흥미 있게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하여 긍지를 가지며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며 역사 문화 교육에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가르쳐 왔다.

개교 초기의 한국 역사문화 교육

학교를 개교하고 한국어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교재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었지만, 한국 역사 문화는 미국의 한인 동포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진 교재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결국 교사들이 여러 교재를 읽고 발췌하여 나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르치고 평가 방법은 요즘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역사 골든벨 퀴즈대회로 대신하였다. 반마다 다른 수준으로 배우므로 반별로 5문항씩 출제하고 어린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교사와 함께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했다. 이런 방법으로 수년을 이어오다가 2009년에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영어과 교재로 널리 사용되던 ‘요코 이야기(So Far From the Bamboo Grove)’ 퇴출 운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역사 문화 교재를 함께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때 출판한 책이 <한국을 찾아라>와 <한국을 알자> 및 <한국 역사문화 표준교육과정>이다. 본교에서는 이 책으로 4년을 수업했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한국 역사 문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5~2016학년도 한인 이민사 교육

<한국을 찾아라>와 <한국을 알자>로 수업을 하면서 깨닫게 된 점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현재 속한 곳의 한인 역사를 배우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었다. 뿌리 교육을 강조하지만 정작 학생 본인과 부모님이 속한 한인 이민 이야기는 생각해 보지도 못하였다. 미주 한인 이민 초기의 모습과 한인들이 이민자로서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이제는 700만 재외 동포가 된 한인 이민 초기인 중국과 연해주로의 이민 역사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본인의 이민사를 기록해 보고 자신이 처한 곳이 어디인지 앞으로 나갈 방향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기도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인 뿐 아니라 재외 한인들도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데 자신의 몫을 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작, 미주 이민사, 이민 개척자들의 이야기, 가족 이민사 이야기, 통일로 가는 길 등 5개의 단원으로 1년간 수업하고, 단원마다 교사용 강의 내용과 활동 내용을 담은 파워포인트, 학생들과 함께 역할극을 할 수 있는 역할극 내용과 스크립트 및 필요한 도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발된 초급, 중급, 고급의 학생 활동지, 한국어와 영어로 된 단어 목록, 답안지 및 기타 자료로 구성된 <역할극으로 배우는 한인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출판하게 되었다. 다음은 한인 이민사를 공부한 1년간의 본교의 한국 역사문화 교육과정이다.

(2015-2016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과정의 예)

월	시수	주제 및 내용	강의 방법	교재 및 행사 내용
9 월	2 주	추석에 관한 내용 수업	동영상, 실연	추석 송편 만들기, 강강술래, 한국을 찾아라 및 자체 개발교재
10 월	4 주	재외동포 이민사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한국을 찾아라 및 자체 개발교재
11 월	4 주	미주 이민사		
12 월~1 월	4 주	미주 이민 개척자들		
1 월	1 주	프로젝트 발표회	포스터	팀별 프로젝트 발표회
2 월	1 주	설날 행사	동영상, 실연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행사, 세배, 민속놀이, 설 음식 맛보기
3 월	4 주	한국 전쟁과 분단 및 이산 가족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한국을 찾아라 및 자체 개발교재
3 월	1 주	개교 기념식	발표회	우수 프로젝트 발표회
4 월	4 주	통일로 가는 길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한국을 찾아라 및 자체 개발교재
5 월	1 주	총 정리	게임	제파디 게임

2016~2017학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배우는 한국 역사문화 I

5천 년이라는 긴 역사와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에 관하여 우리 학생들이 흥미 있고 즐겁게 배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방대하여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선생님들과 의논하여 생각해낸 것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에 관하여 내용과 시대 그리고 관련 인물을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과 관련된 내용과 시대, 인물 등을 배우는 교육과정을 2016년 가을학기부터 2018년 봄학기까지 진행하였다.

첫 해에 5가지의 유물을 공부하였는데, 학생들이 잘 알고 있고 가장 가까운 조선 시대의 궁궐과 조선 왕조실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임금님과 신하가 나랏일을 보았고 임금님 가족의 집이기도 했던 궁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역할극으로 배우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재미난 일들을 재현해 보았다. 조선왕조실록은 어려운 책으로 생각되어 걱정도 됐지만, 학생들은 재미있게 배웠고 조상들의 기록 정신에 놀라워했다.

기록 유산인 동의보감을 배울 때에는 직접 약재를 싸보기도 하고 마셔보기도 하고 한의학 방식을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현대 의학과 다른 점을 공부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적용할 점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 수원화성을 완성한 후 직접 수원까지 행차한 정조 임금님의 행차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해보고 수원화성을 건축한 이유와 중요성 그리고 정조 임금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부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인 직지에 관해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과학과 기록을 중시하는 민족의 후손임을 기억하게 되었다. 이 많은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배울까 싶은 점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교사의 후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에게 작지만 깊이 스며든 역사의식이 깊음을 알 수 있었다.

(2016~2017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과정의 예)

월	시수	주제 및 내용	강의 방법	교재 및 행사 내용
9 월	2 주	추석	동영상, 실연	추석 송편 만들기, 강강술래, 한국을 찾아라 및 자체 개발교재
10 월	4 주	유네스코 문화유산 창덕궁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자체 개발교재
11 월	4 주	유네스코 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12 월~1 월	4 주	유네스코 기록유산 동의보감		
1 월	1 주	프로젝트 발표회	포스터	팀별 프로젝트 발표회
2 월	1 주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설날 행사	동영상, 실연	세배, 큰 옷놀이, 전통혼례 체험, 설 음식 맛보기
2 월	1 주	삼일절 행사	삼일만세운동	만세 부르기
3 월	4 주	유네스코 문화유산 수원화성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자체 개발교재
3 월	1 주	개교 기념식 및 운동회	운동회	한국 문화
4 월	4 주	유네스코 기록유산 직지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자체 개발교재
5 월	1 주	종업식 및 졸업식	포스터	우수 프로젝트 발표회

2017~2018학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배우는 한국 역사문화 II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업 두 번째 해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김장 문화와 아리랑과 훈민정음, 그리고 신라 시대로의 여행을 떠나 석굴암과 불국사에 관하여 공부하였다. 훈민정음을 통해서 세종대왕의 애민

사상과 한글에 담긴 과학성을 다시 한번 배우며 한글이 창제되는 과정에 관하여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집에서 먹는 김치를 담는 김장 문화가 오랜 세월 한국인들의 삶에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공유해 왔음을 알았고 아리랑을 통해 아리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나라를 잃었던 일제강점기에 독립정신을 표현하는 노래로도 불렸음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BTS(방탄소년단)의 아리랑 군무와 독도를 지키는 마음을 표현한 홀로 아리랑도 있음을 배웠다.

김장을 함께 만든 후에는 집에서도 김치를 제일 잘 담그는 사람처럼 부모님과 함께 김치를 담그려는 어린 학생 부모님들의 증언을 들었다.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것은 경주로의 수학여행을 주제로 배운 석굴암과 불국사였다. 학생 기자 3명이 타임머신을 타고 천 년 전의 신라 시대로 돌아가 선덕여왕, 김대성, 화랑 등 신라인들과 인터뷰를 하는 역할극과 게임으로 시작하여 한국인들의 국민 수학여행지였던 석굴암과 불국사로 모의 수학여행을 떠나보는 활동을 해보았다. 불국사의 백운교와 청운교를 건너 몸으로 석가탑을 만들고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찾아보고,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을 던져 팀을 나누어 다보탑 쌓기 대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자연적으로 석굴암의 습기가 조절되었음을 비눗방울 놀이로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석굴암의 과학성과 특별한 점을 배웠다. 학생들이 직접 석굴암과 불국사를 가보지는 못해도 흥미 있게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다. 모의 수학여행을 마치고 학생들이 쓴 수학여행 후기에는 다보탑을 지키던 4마리의 돌사자 중에서 일제 강점기에 없어진 세 마리의 돌사자에 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고 한국에 가면 꼭 경주에 가서 석굴암과 불국사를 가보겠다고 다짐한 학생도 있었다.

(2017~2018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과정의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훈민정음, 김장 문화, 아리랑, 석굴암과 불국사를 주제로 1년간 역사문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월	시간	주제 및 내용	강의 방법	교재 및 행사 내용
9 월	2 주	추석	동영상, 실연	추석 송편 만들기, 강강술래, 한국을 찾아라 및 자체 개발교재
10 월~11 월	4 주	유네스코 기록유산 훈민정음과 세종대왕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자체 개발교재
10 월	1 주	독도의 날 행사		자체 개발교재
11 월~1 월	4 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김장 문화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자체 개발교재
1 월	1 주	프로젝트 발표회	포스터	팀별 프로젝트 발표회
2 월	1 주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설날 행사	동영상, 실연	세배, 큰 옷놀이, 전통혼례 체험, 설 음식 맛보기

2 월	1 주	삼일절 행사	삼일만세운동	만세 부르기
2 월~3 월	4 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자체 개발교재
3 월	1 주	개교 기념식 및 학습발표회	발표회	
4 월	4 주	유네스코 문화유산 석굴암과 불국사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자체 개발교재
5 월	1 주	종업식 및 졸업식		

2018~2019학년도 한국역사문화 딱지로 배우는 한스타일

2년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제로 선정한 것은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6가지 한스타일이었다. 한스타일은 한지, 한옥, 한복, 한글, 한식, 한국음악 등 ‘한’으로 대표되는 우리 전통문화를 브랜드화한 것으로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관하여 배우고 다른 민족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또한 한옥, 한복 한식은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역사 및 일반 사회과 교육과정에 한국에 관한 내용이 많이 실리면서 2018년에 교육부가 채택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육출판사 책에도 소개된 내용이다. (사진 1 참조) 단원명을 ‘한국,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라고 적혀 있는 단원에서 10페이지에 걸쳐 한국 역사에 관하여 기술하고 뒤에는 김치와 한복 그리고 온돌을 소개하였다. 김치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치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김치’라고 말한다고 하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한국의 대표적 음식으로 적어도 160종 이상이 있다고 소개하였고 한옥에 사용되는 온돌은 1세기경부터 사용된 난방 시스템으로 오늘날 주택에도 현대적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여성 한복은 7겹의 속옷과 부풀어 오른 긴 치마에 짧고 잘 맞는 저고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남성 한복은 긴 바지에 넓은 소매통을 가진 긴 저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술했다. 한복의 재료는 마, 비단 등으로 다양하며 대개 밝은 색상의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날에는 특별한 행사에 한복을 착용한다고 서술하였다.

학생들의 정규학교 교과서에 한국에 관한 내용이 많아질수록 한국학교가 가르쳐야 할 내용도 더 깊고 넓어진다고 생각한다. 정규학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배워나간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좀 더 자랑스럽게 소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스타일 교육과정을 정리하면서 본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스타

일 관련 <다솜 역사문화 딱지>(사진 2 참조)를 개발하였다. 한옥과 한지는 한 단원으로 묶어서 5종의 딱지를 오방색에 맞추어 각 단원별로 24개의 딱지를 개발하였는데, 한글은 검정, 한식은 파랑, 한옥과 한지는 빨강, 한복은 노랑, 한국음악은 하양으로 제작하였다. 딱지에는 단어의 뜻을 나타내는 그림과 한글 및 영문 글씨가 있고 어려운 난이도에 따라 별이 1개부터 5개까지 새겨져 있다. 또한 뒷면에는 단어와 관련된 퀴즈가 적혀 있다.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학습에 동기부여가 되도록 실험을 통해 개발하였다. 역사문화 딱지로는 같은 딱지 맞추기, 빙고 게임, ‘별높’이나 ‘별낮’이라고 말하면서 별의 숫자를 가지고 하는 별 높낮이 게임, 딱지를 쌓아 놓고 입으로 불어 넘기기, 딱지 붙이기, 손가락으로 딱지를 튕겨서 멀리 가도록 날리기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다. 모든 게임의 마무리는 단어를 읽거나, 뜻을 말하거나, 혹은 퀴즈에 답을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 처음에는 별의 숫자와 같이 간단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지속하여 게임을 하게 되면 학생들을 게임을 통해 저절로 단어 공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스타일 제1탄 <한식 여행>에서는 한식의 종류, 조리 방법에 따른 이름,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법 및 식사 예절, 밥상 차림, 한국의 장과 절기 음식 등을 학생들에게 스토리텔링과 실물을 보여주면서 배웠다. 먹거리 게임 여행을 통해 각 지역의 대표 음식을 알아보았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지역 특색이 있는 음식 이름을 알고 있어서 매우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였다.

한스타일 제2탄 <한옥 여행>은 한옥의 뜻, 한옥을 볼 수 있는 곳, 한옥의 종류 등을 설명하고 각 반에서 <겨울: 안방과 온돌 이야기>, <봄: 사랑방 손님 이야기>, <여름: 대청마루 이야기>, <가을: 처마와 곱감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하여 간단한 역할극을 함으로써 한옥은 안채와 사랑채로 되어 있고 온돌과 대청마루의 필요성 그리고 처마가 주는 과학성 등을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스타일 제1탄 <한식 여행>에서 배웠던 오방색이 처마의 단청에 사용되었다는 것과 창호지 문에 사용하는 한지의 재료와 만드는 법에 관해서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속담에서 한옥의 부분과 관련된 속담을 배웠다. “고래 등 같은 기와집,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다 가서 문지방을 못 넘어간다.” 등의 속담인데 한옥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 학생들까지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답을 맞히며 즐거워했다.

한스타일 제3탄 <한복 여행>에서는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활용 강의를 통해 한복의 종류와 구성, 계절별 한복, 한복의 특징과 우수성, 장신구, 오늘날의 한복과 한복 홍보하기 등에 관하여 학습하였고 장신구와 한복 명칭 이름 등에 관한 활동도 해 보았다. 학생들은 저고리 고름을 묶는 방법을 배우면서 어렵지만,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한복을 입고는 바르게 앉고 손을 단정히 모으는 예절에 관해서도 배웠다.

한복 여행의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은 반별로 진행된 한복 패션쇼에 참여하였는데 부채를 들고 패션쇼를 하는 반, 족두리를 쓰고 하는 반, 현대적 한복을 입고 나온 반,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가 입장하여 패션쇼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패션쇼에서는 우아미 상(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낸 자), 귀요미 상(귀여운 아름다움을 뽐낸 자), 큰 재미 상(재미난 포즈로 큰 웃음을 준 자), 걸음미 상(세련된 걸음걸이를 뽐낸 자), 춤추미 상(멋진 회전을 선보인 자) 등을 찾아보기도 했다.

한스타일 제4탄 <한국 음악 여행>에서 학생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종묘제례악부터 농악, 사물놀이, 판소리, 민요, 난타까지의 다양한 한국 음악을 동영상과 오디오로 접하며, 한국음악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맛보았다. 각각의 음악을 들은 학생들은 “종묘제례악은 뭔가 으스스한데, 사물놀이는 아주 신나요.”, “판소리는 처음 듣고 신기한데, 참 재미있어요.” 라는 반응이 있었다.

본교는 특별활동반으로 사물놀이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물놀이에 대하여 배울 때는 많은 학생이 친숙한 반응을 보였는데 학생들은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악기인 쥘거리, 장구, 북, 징이 각각 천둥과 번개, 비, 구름, 바람 등 자연의 소리를 담았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고 학생들이 직접 사물놀이 악기를 두드리며 소리를 들어보고 악기 소리의 높낮이와 길이, 그 외 특징을 다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가정에 있는 무거운 숯, 냄비 뚜껑, 상자 등의 물건을 통하여 사물놀이 악기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물건을 함께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한국 음악의 대표 장단인 세마치장단과 굿거리장단을 먼저 입으로 소리 내어 불러보고 무릎치기로 하여 배우며 세마치장단에 맞춰서 아리랑도 함께 불렀다. 한국음악에 사용되는 전통악기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가야금, 대금 등 대표적인 10개의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들의 소리를 듣고, 이름도 배우고, 원리와 소리가 비슷한 서양 악기도 찾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현대에 사용되는 다양한 한국음악의 맛을 보았다. “국악 구연동화”를 들으며 학생들은 노래와 이야기가 함께 담긴 판소리의 매력을 경험하였고 국악 체조인 “덩덕쿵 체조”를 들으며 체조도 흥겹게 따라하였다. 익숙한 동요인 “상어가족”의 국악 버전을 들을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국악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본교 학생들이 배운 한스타일 관련 교육과정이다. 한글은 지난 연도에 유네스코 유산에서 공부하였으므로 다시 교육과정에 넣지는 않았다.

(2018-2019학년도 한국역사문화 딱지로 배우는 한스타일)

월	시수	주제 및 내용	강의 방법	교재 및 행사 내용
9 월	2 주	추석	동영상, 실연	추석 송편 만들기, 강강술래, 한국을 찾아라 및 자체 개발교재
10 월~11 월	4 주	한국역사문화 딱지로 배우는 한스타일 제 1 탄: 한식 여행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자체 개발교재
10 월	1 주	독도의 날 행사		
11 월~1 월	4 주	한국역사문화 딱지로 배우는 한스타일 제 2 탄: 한옥과 한지 여행		
1 월	1 주	프로젝트 발표회	포스터	팀별 프로젝트 발표회

1 월	1 주	프로젝트 발표회	포스터	팀별 프로젝트 발표회
2 월	1 주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설날 행사	동영상, 실연	세배, 큰 옷놀이, 전통혼례 체험, 설 음식 맛보기
2 월~3 월		한국역사문화 딱지로 배우는 한스타일 제 3 탄: 한복 여행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자체 개발교재
3 월	1 주	삼일절 100 주년 행사	삼일만세운동	만세 부르기
3 월	1 주	개교 기념식 및 운동회	운동회	
4 월	4 주	한국역사문화 딱지로 배우는 한스타일 제 4 탄: 한국음악 여행	파워포인트, 동영상, 연극	자체 개발교재
5 월	1 주	종업식 및 졸업식		

맺는 말

이상으로 지난 15여 년 동안 본교에서 가르쳐 온 한국 역사문화 교육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관련 내용 및 교사 지도서와 학생용 워크북은 단행본으로 출판했으며 스티디코리아에 pdf 문서로 올려져 있다. 한국 역사문화 딱지로 배우는 한스타일 교재는 2019년 연말에 발행할 예정이다.

주말 한국학교의 목표는 한글 습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인 자녀들의 전 인격적인 성장과 재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또래 집단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특징과 자부심을 형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를 아는 역사 문화 교육이 매우 중요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본교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한인 인구 전체의 약 1/3이나 되는 많은 한인이 살고 있어서 공립 학교에서 한국 역사 문화를 다루는 내용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2016년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역사 및 일반사회과 교육과정 개편 전에는 공립학교 교육 13년 동안 한국에 관하여 배우는 내용은 한국 전쟁과 일제 강점기 두 가지에 불과했음을 지난 수년간의 교육과정 개편 운동에 참여하며 알게 되었다. 정규학교에서 자신의 뿌리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지내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역사 및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한국에 관한 내용이 많이 실리게 되어 교과서에도 많이 반영되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정규학교 일반 사회과 교과서에 한국에 관한 내용이 좀 더 들어갔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국학교 교사들은 학부모로서 자녀들이 정규학

교에서 한국에 관하여 무엇을 얼마나 바르게 배우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교재를 사용하여 배우고 있는지를 살피고 학교에서 한국에 관한 내용이 더 들어있는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학부모 회의에서도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말 한국학교가 해야 할 일은 정규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최근에 이민 3세와 4세 학생들로 그리고 유치반과 초등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주말 한국학교가 더 많아지고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은 그 나이부터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교에서 역사 문화를 가르치면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배우는 어린 학생들을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주말 한국학교마다 학생의 연령 및 수준의 분포가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각 학교에 맞는 한국 역사와 문화 내용을 선별하고 흥미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및 교사 연수를 지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학교에서 역사문화를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학교 교사들이 영어로 된 역사 문화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정규학교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날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말 한국학교에서 교재와 교구를 만들어 함께 해나가면 정규학교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규학교 교사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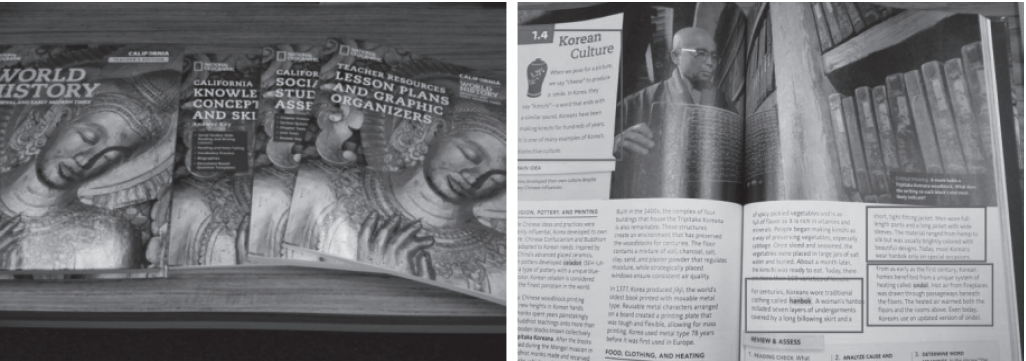


사진 1: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출판사의 2018년 판 World History book에 소개된 한식, 한옥, 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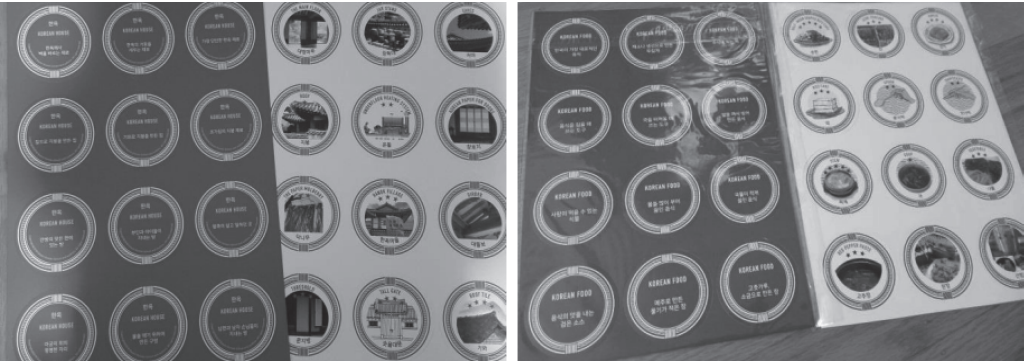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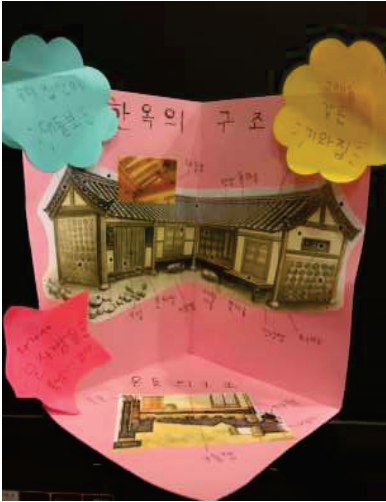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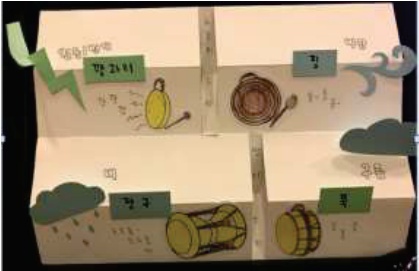


사진 2: 한옥 딱지

사진 2: 한식 딱지

〈학생작품의 예〉

	
한옥 관련 삼면책 구성	
	
한국음악 관련 아코디언 책 구성	
	• 팀 이름과 캐릭터 : 불가사리 • 홍보 내용 : 다섯 개의 팔을 가진 별 모양의 불가사리는 몸을 잘라내어도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뜻의 불가살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계속 먹고 싶고,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음식인 비빔밥의 특징을 캐릭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방색의 재료와 어울어진 밥, 고추장, 계란의 조합으로 된 작품입니다.
	• 팀 이름과 캐릭터 : 호랑이 • 홍보 내용 : 한국의 대표 동물인 호랑이를 캐릭터로 하여 오방색과 태극기에 비빔밥 재료를 넣어 한국인의 몸과 마음 속에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과 강인한 정신이 깃들여 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귀에 버섯, 콧등에 김, 팔에 나물, 다리에 고추장, 가슴에 계란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비빔밥을 홍보하기 위한 캐릭터를 만들고 홍보 내용을 적은 학생 작품들	

3·1운동 100주년, 그 활동과 의미 가르치기

임정은

독립기념관 교류협력부장

1. 머리말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국의 국권을 빼앗고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식민지 통치에 맞도록 변경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만주, 러시아 연해주 등으로 가 독립운동기지를 세우고, 국권회복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동포들이 뭉쳐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서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장과정에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전쟁 중 연합국에 합류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918년 14개조 평화원칙을 제시했다. 그 중 식민통치를 받는 민족이 주목한 내용은 ‘피지배 민족은 자기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민족자결주의였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민족자결주의에 접하고, 한국의 독립을 호소할 민족대표를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리는 파리평화회의에 보내려 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파리로 파견하는 데 성공했고, 한국, 중국, 러시아 등지에 대표를 보내 파리 활동에 힘을 실어줄 자금 모금과 대규모 시위운동을 준비하자고 독려했다.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은 민족자결주의와 신한청년당의 활동 소식을 듣고, 1919년 2월 8일 도쿄기독교 청년회관에서 2·8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세계 흐름과 2·8독립선언계획을 파악하고 있던 국내 민족대표들은 대규모 만세운동을 준비하여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한 7개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약 2개월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주 등지에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는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10여 년의 일본 식민통치기간 동안 겪었던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성별, 나이, 신분, 지역에 상관없이 2천만 민족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것이다. 3·1운동은 한국인의 주인의식과 자유·독립을 향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사건이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오늘, 독립기념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학습자들이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3·1운동 정신을 알고, 그 현재적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이다. 세상에 직접적 경험보다 더 좋은 교육방법은 없으나 역사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다루기에 결국 기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반추해보고, 역사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기억을 공유하며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기에 역사교육에 있어서 사료¹⁾학습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3·1운동 교육도 사료를 탐구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3·1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료를 소개하고, 각 사료를 통해 교사들이 학습자들과 3·1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활동 방법을 공유하려 한다.

II. 역사자료를 통해 3·1운동 가르치기

1. 『신한민보』 1918년 11월 28일자 호외



(우측에 표기된 부분) 이번 평화회의는 세계 각 소약국 민족이 잃은 대통령의 전쟁 목적의 성공에 의지하여 자유 회복을 도모하는 때니 이것이 실로 우리 민족의 만나기 어려운 큰 기회라

(좌측에 표기된 부분) 본 총회는 중앙총회(파리평화회의 등) 대표자 파견에 대한 경비를 공급하기로 가결한 바 생각건대 전후 경비는 반드시 거액의 재정을 요구할지라. 우리는 국가의 일이 있을 이때를 당하여 정성을 기울임이 당연하니 일반 동포는 다 같이 정성을 기울여 의연(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하여 돈이나 물품을 냄)하여 대사를 도모하기를 바라나이다.

‘민족자결주의’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918년 1월 8일 미국 의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당시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목적을 대내외에 천명한 14개조 평화 원칙 중 하나이다. 해외 한인들이 ‘민족자결주의’를 먼저 접하게 되었고,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리는 파리평화회의를 한국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신한민보』 1918년 11월 28일 호외이다.

『신한민보』는 미주 한인 단체인 대한인국민회의 기관지이다.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단체로 중앙총회를 중심으로 북미, 하와이, 러시아 시베리아, 중국 만주 등지에 지회를 두어 해외 동포사회를 이끌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 또한 『신한민보』를 발행하여 언론을 통

해 동포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11월 28일 호외에서는 파리평화회의가 독립을 위한 큰 기회임을 강조하고 미주 동포들이 대표 파견을 위한 재정 마련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전 세계에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미주에서 시작되었고, 이런 활동이 자극이 되어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음을 사료를 통해 학습자들과 확인할 수 있다.

2. 3·1독립선언서



▶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셋.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3·1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 33인 한국이 독립국임을 밝힌 선언문이다. 선언서는 최남선이 기초하였으며 본문과 독립운동의 실천적 방략을 담은 공약 3장, 날짜와 33인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첫째,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 국민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둘째, 제국주의와 강권주의를 거부하고 민족적 평등이 지켜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조선의 독립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공약 3장은 비폭력을 전제로 하면서 결연한 투쟁을 호소함으로써 만세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는데 행동강령이나 지침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2천만 민족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고, 일본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약 2개월간 만세운동을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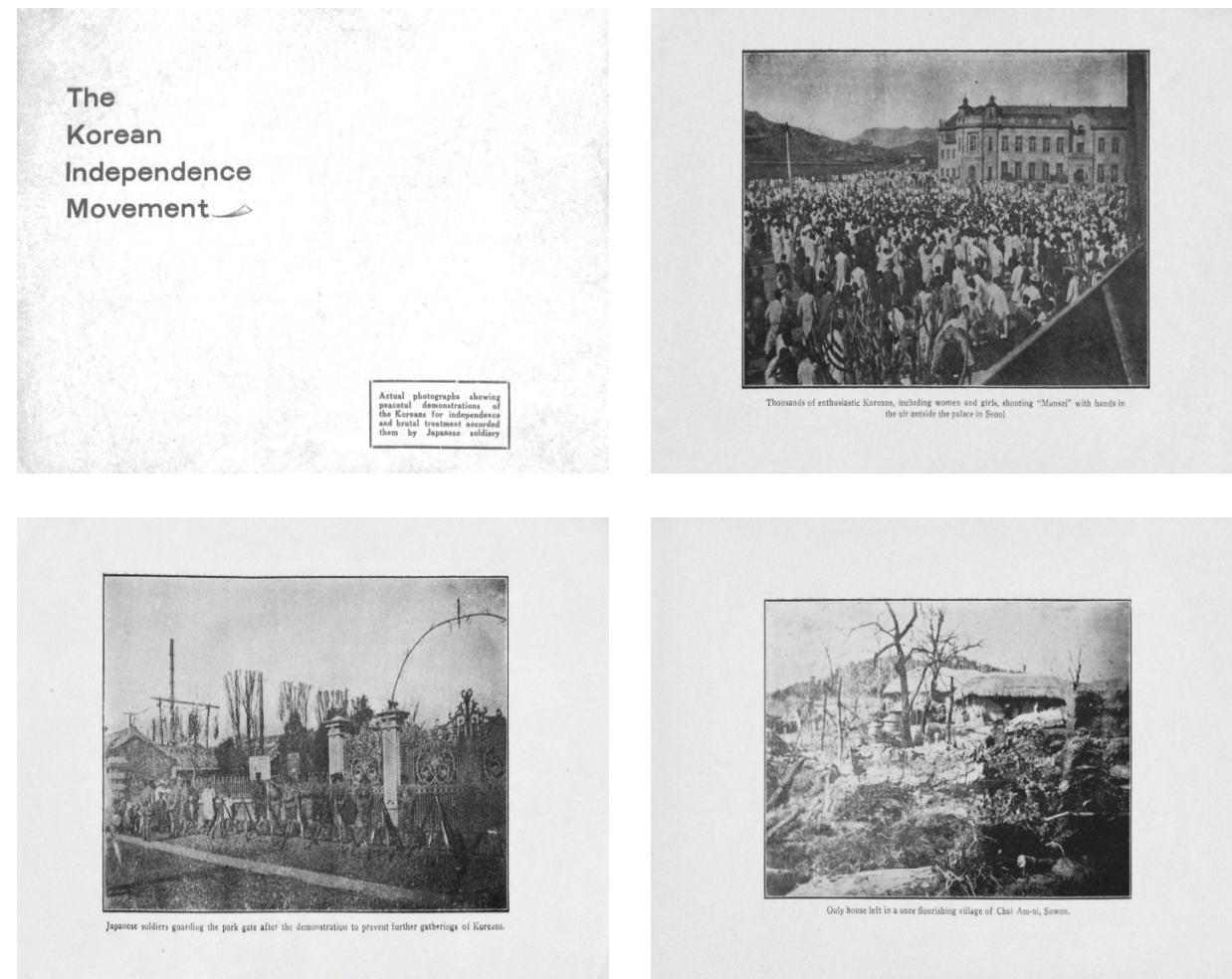
위 3·1독립선언서는 보성사에서 인쇄된 것이다. 제목은 선언서로 되어 있으며 1919년 2월 10일

¹⁾ 사료(史料)는 역사를 연구할 때 필요한 재료이다. 1차 사료는 동 시대 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편지, 자서전, 사진, 유물 등을 말한다. 2차 사료는 후세 사람들이 작성한 연구나 논문 서적들로 1차 사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경 독립선언서 초안이 완성되어 2월 15일 최린에게 전달되고 보성사 사장 이종일에게 맡겨졌다. 보성사판은 2월 27일 2만 1천장이 인쇄되어 3월 1일 전국에 배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선언서 내용을 통해 한민족이 독립을 주장하게 된 원인과 비폭력적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된 이유를 학습자들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언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상황을 통해 3·1운동이 당시 상당한 준비과정으로 일어날 수 있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3.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한국의 독립운동)』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한국의 독립운동)』은 중국 상하이에 있던 대한적십자회에서 일본의 잔혹한 한국 지배와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발행한 3·1운동 영문 사진집이다. 총 34장의 사진이 담겨있는데 모두 외국인이 찍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스코필드이다. 스코필드는 1916년에 세브란스연합의학교 교수이자 선교사로 한국에 와 3·1운동 준비를 도왔으며 민족대표 33인 중 1인이었던 이갑성의 부탁으로 만세시위의 현장을 찍었다. 특히 수원(현 화

성) 인근 제암리와 수촌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다 일본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현장에 찾아가 사건을 조사하고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보고서를 썼다. 스코필드의 사진과 글은 전 세계에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일본의 잔혹한 한국 지배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기에 스코필드는 흔히 '34번째 민족대표'라 불린다.

위의 그림은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한국의 독립운동)』의 표지와 스코필드가 찍은 사진 3장이다.

윗줄 오른쪽 사진은 현재 서울시청(당시 경성일보사) 앞에서의 만세시위를 찍은 것이다. 스코필드는 『동아일보』 1969년 3월 1일자 「하나로 뭉친 만세운동」이란 기사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파고다 공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파는 빨리 움직이는데다, 사방에 뿔뿔이 들어찬 인파는 더 큰 문제였다. …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위 군중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잡아야 했다. 나는 어느 일본인 케이크점 2층에 올라가 침실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신을 벗을 사이도 없이 베란다로 나가 급히 셔터를 눌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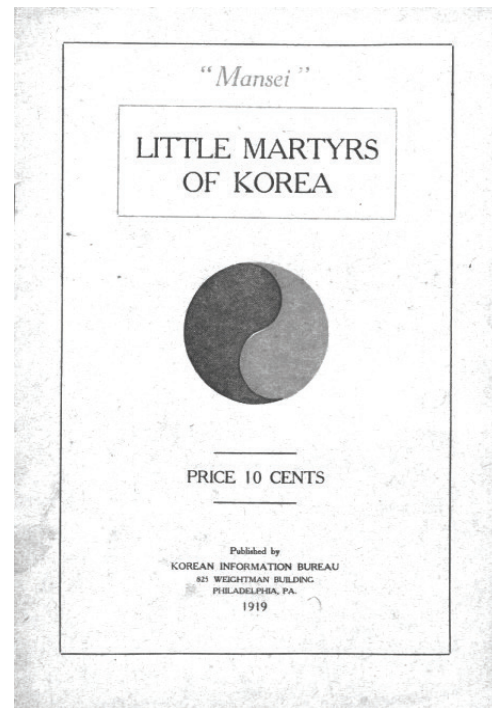
실제로 사진 아랫부분에 발코니가 찍힌 것을 볼 수 있다. 여성과 소녀를 포함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랫줄 왼쪽 사진은 3월 1일 독립선언이 있었던 파고다공원 앞에서 일본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한국인들이 생활하는 시내 한복판에 총과 칼을 갖춘 군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위압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아랫줄 오른쪽 사진은 한때 번창했던 제암리 마을에 집 한 채만 남은 상황을 찍은 것이다. 당시 일본은 만세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복으로 제암리 마을 주민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지른 상태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사건 소식을 들은 스코필드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고, 마을 사진을 찍었다.

이 사료를 통해 학습자들과 100여년 전 만세운동의 현장과 일본의 만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갑성의 부탁으로 시작되었으나 3·1운동이 진행될수록 당시 한국의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스코필드가 현장을 찾아 다니며 사진으로 찍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외국인들의 눈에도 만세운동을 통해 한민족이 보여준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이 인상적이었다는 점을 학습자들과 이야기해볼 수 있다.

4. 『한국의 어린 순교자들』



12쪽 'An Innocent Little Captive(천진한 어린 포로)'

한 작은 소녀가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왔다. 그녀는 경찰서장 앞으로 끌려나갔다. 그러자 서장이 소녀에게 질문하기도 전에 서장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하고 소녀가 겁먹은 듯이 물었다.
 “여기는 경찰서이다.” 하고 서장이 대답했다.
 “아,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와서 불평을 하는 곳이 여기군요?” 하고 그녀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 하고 서장은 소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 하면서 대답했다.
 “아, 그러면 저는 똑바로 찾아 왔군요. 왜냐하면 저는 잃은 것이 있거든요.” 하고 작은 소녀가 소리쳤다.
 “저는 조국을 잃어버렸어요. 저를 위해 그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꼬마 소녀가 대답했다. ...

『한국의 어린 순교자들』은 1919년 미국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에서 발간한 책으로 3·1운동에 참여한 소년·소녀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한국통신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3·1운동으로 나타난 한국의 독립 열망과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의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진 선전·홍보 기관이다. 한국통신부는 “3·1운동에서 가장 팔목할 만한 사건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한 역할이며,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매우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시위운동에 참가했다”라며 “한국의 적, 즉 일본이 퍼뜨린 한국인은 저열한 인종이어서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다는 말들을 반박할 생각으로 어린이들의 활동을 엮어 이 소책자를 간행한다”고 책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사료 사진 옆의 글은 소책자에 실린 15가지 소년·소녀의 이야기 중 ‘천진한 어린 포로’이다. 책 속의 에피소드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점은 일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만세시위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식민통치 상황에서도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그들의 용기는 현재도 불의와 불평등에 겪게 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지 학습자들과 생각해볼 수 있다.

5. 독립의연금 영수증



(위에 표기된 부분)
 (우측)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마지막 방울의 피가 흘릴 때까지 싸우기로 결심
 (중앙그림) 한국의 어린 순교자들 중 평양의 한 미션스쿨에서 실제로 벌어진 여학생의 일이 삽화로 그려져 있음
 (좌측) 우리는 장래자손에게 비참과 치욕을 주지 않고 영원한 자유행복을 전하기로 결심

(아래에 표기된 부분) 오른쪽은 대한독립선언의 비상한 시기에 재하여(있어서) 특별의연금으로 정히 영수함

서재필은 미국에서 3·1운동 소식을 듣게 된 당시의 기분을 그가 쓴 ‘My Days in Korea’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당시 내 기분을 묘사하기 힘들다. 거의 죽음과 같은 위험 앞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항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는 전율은 느꼈다. 한민족이 타락하고 쇠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기에 나는 매우 자랑스러웠다. ... 한국인들의 염원을 달성하는 데 내 온 힘을 쏟기로 결심했다. ...

서재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3·1운동 소식을 들은 한인들은 한국 독립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이었던 안창호는 재미 한인들에게 독립의 각오를 가지고, 미국 국민에게 한국의 현 사정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북미, 하와이, 멕시코 동포들이 재정 공급을 책임져야 함도 강조했다. 재미 한인 사회에서는 대대적으로 의연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위의 자료는 당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발행한 독립의연금 영수증이다.

독립의연금 영수증을 통해 당시 3·1운동이 해외 한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과 결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독립운동에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타지에서 자신의 생계가 힘든 상황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자금을 준비했던 미주 동포들의 활동도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III. 맺음말

지금까지 3·1운동과 관련된 사료 5개를 살펴보았다. 『신한민보』 1918년 11월 28일자 호외를 통해서 3·1운동의 배경을, 3·1독립선언서로 독립선언의 목적과 만세운동 전략을 알 수 있었다.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한국의 독립운동)』 사진집과 『한국의 어린 순교자들』로는 일본의 식민통치 상황과 당시 3·1운동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독립의연금 영수증을 통해 3·1운동이 해외 한인들에게 불러일으킨 독립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사진과 책 등의 다양한 사료를 통해서 3·1운동을 교육하면서 중요시해야 하는 점은 학습자들이 사료 탐구로 알게 된 개별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3·1운동 전반의 이해와 그 의미를 스스로 깨닫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 직업, 종교, 지역을 떠나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싸운 3·1운동 정신은 현재도 한국 사회에 이어지고 있으며, 그러기에 3·1운동 100주년 올해 그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은 한민족으로서 인간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학습자들과 나누는 것이 사료학습을 통한 역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태·유진·이항 역음, 『강한 자에게 호랑이처럼 약한 자에는 비둘기처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이운상, 『3·1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세계 시민 교육 연구

김태련

한국 바로 알기

김태진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과 한국 역사·문화 교재개발

신혜영/문지혜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한국학교 교육

방혜숙

21세기 디지털 리터러시를 지향하는 블렌디드 한국어 문화역사 교육 방안 연구

한국 바로 알기

김태련

아이코리아 이사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제2차 세계 대전 후 새로 탄생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오른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처럼 이런 일을 이룬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2015년에 수학능력 시험인 바칼로레아에 한국어를 필수선택 외국어로 지정하였다.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들이 제2외국어를 한국어로 지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80여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에서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의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 2017년도를 기준으로 경제와 인구규모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기구는 2007년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어로 채택하며 한글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

한국어의 위대함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3,000개의 언어 중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 정도인데 나머지 문자가 없는 국가를 위해 UN에서 한글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2010년에는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2012년 UN산하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각각 대한민국 송도에 세워 한국의 위대함을 전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발전적인 모습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만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예술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낸 성과를 우리 스스로 체감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의 좋은 전통을 잊어버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하버드 대학교 박사 출신이며, 현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연구원 원장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는 2013년에 “한국인은 모르는 다른 대한민

국”이라는 책을 펴냈으며, 그 중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외면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선진국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역할에 소홀해진다.
- ②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국가 전략을 세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③ 한국이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한국인이 원하는 명예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 ④ 결과적으로 어렵게 달성한 선진국의 위상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내려앉게 됨으로써 제2, 제3의 한국을 꿈꿔왔던 수많은 개발도상국에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주게 됨을 피력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53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67달러였으며, 문맹률이 80%가 넘어선 최빈국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약 30,000달러이고 경제대국 10위권 가까이에 들어섰으며,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등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IT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75톤급 이상 로켓 엔진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로 2018년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시험 발사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기술력을 전세계에 알리며, 우주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은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또 최근 2019년 6월에 영국의 웹블리 스타디움(Wembley Stadium)에서 공연한 가수 방탄소년단(BTS)을 보며, 외신은 비틀즈 보다 더 대단한 성취를 이룬 가수라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날 공연장에 모인 6만 관중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것이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널리 알린 계기가 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수록 앞으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1995년 본인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학원 교육과정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전공을 신설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인기가 가장 많은 전공이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스스로 인식해야 하며, 앞으로 더욱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축된 모습을 벗어 던지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긍지를 가져야 하며, 우리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1. 한국의 모습을 바로 파악하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달라진 한국의 모습과 한국의 위상을 바로 파악하면서 한국을 바로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 할 것이다.

2. 무엇보다 교사들은 지금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먼저 학습하고 변화된 교육방식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2007년에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교육방식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그 이후로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디아스포라(Diaspora)를 가진 나라이고 이들은 현재 전세계 180개국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발전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4차산업시대와 AI시대가 도래하였으니 이 시대에 걸맞는 선두주자를 키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즐겁게 잘 하는 것을 찾는 자 만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5. 우리가 잊고 살아온 과거 우리나라의 강점들을 살린 교육방식을 통하여, 한국어 교사를 키워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사교육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한 예로 3,000개의 언어를 가진 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이 한글을 도입하여 그 국가의 성경책을 만든다면 그 것이 시작이 되어 한국어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한 교육 · 격려 · 지원이 필요하다.

6. 앞으로 점차 더 많은 나라들이 제2외국어를 한국어로 선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현재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학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한국어 보급에 앞장설 때이다.

7. 모든 교육의 최종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키우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인성 교육으로 생명 존중 사상, 이웃에 대한 배려, 양보와 질서 교육, 실천적 봉사활동 등을 키워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런 특성을 가진 교사들이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한국인이라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런 좋은 상황에 놓인 기회를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가르치고 보급하며, 여러 나라에 교사를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시점에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과 한국 역사 · 문화 교재 개발

김태진

삼육보건대학교국제언어교육원 부원장

1. 들어가며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국가로 인구의 약 14%인 740만 명이 재외동포이다. 이들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주요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재외동포 차세대는 세계 시민 역량인 다중언어, 간문화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¹⁾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모국과 현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인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재외동포교육용 교재 공급과 역사문화 교재 개발, 장단기 모국수학연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어교재 개발,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재외동포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²⁾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은 주로 한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역사 · 문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한국어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 · 문화 수업을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5%를 넘지 않을 만큼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어 교육에 부차적인 혹은 보조적인 형태로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역사나 문화교육용 교재가 미비하거나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교재로 인해 역사 · 문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이민 1세대의 퇴장과 함께 한국 문화와 전통을 생활에서 체득하지 못한 차세대와 다문화 가정 학생 증가 등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역사문화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사명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여기서 역사란 인명이나 사건명과 같은 실질적 지식(substantive knowledge)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한국의 역사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역사문화 교육에 앞서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그들의 정체성 특성에 맞는 교육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¹⁾ 이 개념은 사회심리학과 의사소통 연구에서 폭넓게 사용된 ‘이문화능력’ 과 관계가있다. 이문화능력이란 어떤사람이 외국 문화로 대표되는 것에 대한 행위, 태도, 기대감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Hinkel, 1999, rlaejrdud dur, 2009:283).

²⁾ 진동섭 외 (2006:5)는재외동포교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외동포들의 애국심 고양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현지에서의 이해와 공조를 도모할 수 있고, 남북한 왕래를 통해 통일에 고무적 역할을 한다. 셋째, 모국에 대한 투자 등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고 거주국 경제와 모국 경제를 연계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를 거주국에 소개하여 우리문화를 세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정체성 특징 및 역사문화 교육과의 관계를 살피고 재외동포교육용 역사문화 교재 개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변화하는 재외동포 사회에 필요한 역사문화 교재 개발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정체성

정체성(identity)³⁾은 이를 정의한 Erikson(1968:3)에 따르면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conscious sense of individual identity)”이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이 될 수 있다. 재외동포 아동·청소년은 민족적 뿌리 및 배경은 한국계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은 현지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한국계 현지인’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므로 한국인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닌 ‘제3의 정체성’을 갖는다. 제3의 정체성은 Useem과 Downie(1976)이 정의한 ‘제3문화아이드’에서 기인하였다. 이들은 1950년대 인도에서 생활하는 미국인 대상 연구에서 부모님 세대의 문화를 제1문화로, 체류하는 문화를 제2문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외국인 공동체가 공유하는 생활 양식을 중간 문화 혹은 문화들 간의 문화로 구별하고 이를 제3문화라 하였고 이런 중간문화에 자란 아이들을 ‘제3문화아이드’이라고 칭한 것이다. 그 후 국제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제3문화에 대한 정의 또한 달라져야 함에 따라 ‘제3문화’를 한 문화에서 시작되어서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나누며 학습하는 생활양식을 논하기 위한 일반 용어로, ‘제3문화아이드’를 부모를 따라 다른 사회로 가는 아이들로 칭하였다(Pollock & van Reken, 1999, 박주영 역, 2008:45-46). 같은 맥락에서 재외동포 학생들은 유아기 이전까지는 주로 가정에서 부모가 쓰는 한국어를 사용하다가 제도 교육권에 들어가 현지어로 학습하게 됨으로써 한국어와 현지어를 모두 습득하고 사용하는 이중언어⁴⁾와 이중문화 상황에 노출되면서 복잡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는 재미동포학습자의 정체성 지각과 한국어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전희정(2011)에서 이들의 정체성이 두 개의 요인-한국문화정체감과 미국문화정체감-으로 나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족정체성과 언어와의 복잡한 관계를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급 상위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ang(2013)도 학생 스스로가 한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두 문화가 섞여 있는 제3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문화만을 일방적으로 전수하거나 이들을 한국인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며, ‘한국계 현지인’이라는 용어 표현을 통해 제3의 정체성을 즉각적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등 이들의 복합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재외동포 정체성과 언어·역사·문화교육

재외동포 정체성과 모국어 사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다. 먼저 양자의 밀접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연구로 Giles와 Johnson (1981)의 ‘민족언어정체성 이론(ethnolinguistic identity theory)’을 꼽을 수 있으며, 민족 집단 유지 및 강화에 모국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언어와 정체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Giles와 Johnson(1987:72). 반면 언어와 정체성의 기본적인 연계에 의문을 가진 반대의 주장도 있다. Guitart(1981:31)는 미국에 그들 민족만의 문화적 양식을 소유하고 있는 민족들이 많지만 민족 언어에 익숙하지도 않고 민족 언어로 말할 동기를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Guitart, 1981:31). 즉, 민족어 상실이 민족정체성을 상실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과 함께 민족적 충성(ethnic loyalty)과 언어적 충성(language loyalty)은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Hoffman(1991) 또한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양상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모국어와 정체성의 관계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Pandharipande(1992:261)도 언어 상실과 문화정체성 상실은 본질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문화의 다양한 요인들-언어, 지역, 종교, 민족-과 비교하였다. 사회 집단의 모든 정체성 요소는 문화, 혹은 문화정체성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의 요소가 소실된다고 문화정체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언어정체성 소실에 대한 보상으로 인종적·민족적 종교 행사를 더 많이 누리는 미국의 다양한 민족의 예를 들어 하나를 잃으면 남아 있는 정체성 요소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국의 문화에 충성하면서 거주국 문화에의 소속이 요구되는 복잡한 삶 속에 있는 이민 후세들의 정체성과 언어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Romaine(1995)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특정 집단이 언어를 그들의 문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심으로 강조하고 언어가 자신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 주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들에게 언어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해당 민족이 갖는 언어에 대한 특징-문화에 있어서의 비중이나 고유성 등-에 따라 언어와 정체성의 관계가 달라짐을 피력하며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 관계의 상대성을 주장하기도 했다.⁵⁾

이렇게 양자의 관계에 대한 논박이 지속된 것은 정체성 자체가 가지는 특징인 변동성, 다중성, 구성성과 함께 그로 인해 연구 집단과 대상이 갖는 정체성 양상이 다르게 존재하고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이 대부분 일찍이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접하고 내재화한 성인 대상이었기에 모국어가 소실되어도 모국과 연계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국의 언어와 문화가 내재화되지 않은 이민자 집단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양자가 더욱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누이트(Inuit)족 어린이들이 계승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민족정체성이 현저히 증가한 것을 밝혀낸 Wright와 Taylor(1995)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일본계 캐나다인 학생(Oketani, 1997)과 일본계 미국인 학생(Shibata, 2000; Chinen & Tucker, 2006)도 주말 일본인 학교를 다닌 후 민족 정체성이 높아졌으며,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학생의 실험

³⁾ 정체성이란 라틴어 Identification에서 도출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 “정체” 등 자기 정의, 주체성, 자각, 존재 증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자아정체감(또는 동일화)과의 관련으로 동일성이라고도 한다 (박아청, 1993:23).

⁴⁾ 이중언어 사용(bilingualism)과 다중언어 사용(multilingualism)의 구분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두가지 이상의 언어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중언어 사용자라고 한다.

⁵⁾ 이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의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요소이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유지의 중요한 상징이자 도구라고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의 대상인 재미동포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에서 스페인어를 잘하는 학생이 민족정체성도 높은 것을 밝혀낸 연구(Soto, 2002)들이 나타나며 이를 입증해 주었다.

그러나 재미동포 대학생 학습자의 언어이데올로기를 연구한 Jeon(2012)의 연구는 반대이다. 어릴 적 한글학교를 다녔음에도 한국어에 대한 낮은 인식이 자리하고 있고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필요하지 않으며, 영어의 유창성을 통해 미국인이 되는 것이 우선이자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한국어 숙달은 아동 청소년기에 멀리해야 할 요소처럼 인식한 사례도 있다. Brown(2009)도 한국어가 매우 능숙한 재미동포 학생 대상 연구에서 학습자가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느끼지 않으며, 능숙하게 하는 스페인어를 할 때의 감정과 같음을 밝혔다. 그 이유로 주류 사회의 강한 영향력, 미국 내 한인커뮤니티의 약소함, 가끔 나타나는 한국인의 부적절한 이미지로 인해 자신도 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은 여러 심리적 이유들의 복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민자 자녀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언어와 민족이 소수(minority)에 해당된다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수민족은 주류 그룹이 더 많은 특권과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류 문화를 수용하고 그것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주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한 민족정체성을 개발하지 않는다(Tse, 1998:32). 그러므로 소수민족 청소년과 성인은 그들 자신을 주류 언어와 문화에 동일시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있는 반면, 그들의 계승어 및 문화와 관련된 정체성은 감소함과 동시에 주류 사회에 대한 인정과 소속에 대한 열망이 혼란과 소외를 초래하고 특별히 어린 이중 언어 청소년에게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Noels와 Clement, 1996:224). 그래서 소수민족은 그들의 민족 그룹이 긍정적으로 비추어졌을 때와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인 종합적인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 주류에 의해 우호적으로 보일 때 강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즉, ‘개인정체성’보다 그 민족 집단이 가진 ‘집단정체성’이 아동·청소년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신의 민족과 관련된 정서와 집단적 파워가 이들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 민족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고 민족정체성의 근거를 동일한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적 자부심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한국역사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재외동포 역사문화교육이 교과교육 차원이 아니라 정체성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틀이 개발되어야 한다.

김태진(2015)은 재미동포 학생 정체성의 구성 요인을 탐색하고 정체성 구성 요인 중 인지, 감정, 행동의 상관관계에서 감정과 행동 내용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밝혔다. 즉, 한 민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행동이 이루어지려면 ‘감정적 애착’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한국어, 한국 역사·문화를 배우는 행위에 대한 가치 교육과 함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 고조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즐겁게 활동하며 체험하면서 한국 역사문화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결국 재외동포 역사문화교육은 교과교육 차원보다는 활동·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감정적인 접근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들의 오늘날 삶에서 갖는 상관성이나 그들의 삶에 끼친 영향의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역사문화 교재를 개발할 때도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4. 재외동포교육용 한국 역사·문화 교재 개발 현황⁶⁾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어 교재는 1973년 문교부(현 교육부) 주관으로 ‘국어(재미 어린이용)’을 시작으로 일찍부터 정부 주관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9년 현재 30여종 200여 권의 교재가 개발되고 2011년 이후에는 각 지역별 맞춤형 교재가 매년 만들어 졌으며 2015년에는 범용교재를 새로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에 반해 역사문화 교재 개발은 1974년, 한국인의 생활(중·고등학교 생용), 1975년 국사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 10종 미만이다. 아래 표는 정부 기관 주관으로 진행되어 온 한국어 및 한국 역사문화 교재 개발 현황표이다.⁷⁾

〈표 1〉한국어 및 한국 역사문화 교재 개발⁸⁾

시기	한국어 교재	한국 역사문화교재	비고
1974 ~1986	국어 (재미어린이용, 1973)	한국의 생활 (재외국민중고등용, 1974), 국사 (재일국민용, 1974), 한국의 생활 (재외국민어린이용, 1975), 한국의 생활 (재외국민 성인용, 1976), 나의 조국 (재외국민용, 1979)	한국역사 문화 교재는 재외동포라기보다 재외국민용임
1987 ~2000	한국어 I, II (일본어, 1987; 중국어, 1992), 한국어 I~IV (영어, 1988; 독일어, 1990; 러시아어, 1991), 한국어 VI, VII (영어, 1988), 소학교용 한국어 1~3 (일본어, 1991), 소학교용 한국어 4~6 (일본어, 1992), 초급 한국어 III	한국의 역사 (1997), 한국의 문화 (1997)	
2001 ~2009	한국어 1~8 (2001~2007), 한국어 회화 1,2 (2001), 한글기초 상,하 (2006~2007), 한글학교한국어 1~6 (2008~2009), 러시아어권 맞춤형 기초, 초,중,고 (2006~2010), 일본어권 재외동포용 어린이교재 초급(2009)	한국의 역사 (한영판, 2004), 한국의 문화 (한영판, 2004)	
2010 ~현재	맞춤형 교재 1~6; 영어권(2011/ 2016), 중국어권 (2012), 프랑스 (2012), 베트남어 (2012), 태국어 (2012), 독일어 (2013), 스페인어 (2013), 인도네시아어 (2013), 아랍어 (2014), 범용 1~7 (2015), 일본어 맞춤형 (2016), 유아용 한국어 배우기 1,2 (2012), 유아용 교육자료 (2018) ⁹⁾		영어권은 2011년 맞춤형 개발 후 2016년 재 개발, 범용교재 2001 개발 후 2015년 재 개발

⁶⁾ 국외 다양한 지역에서도 재외동포용 교재가 개발되었으나 이를 모두 파악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제외하고 또한 수의 창출을 위한 교재는 제외하였다. 이에 본고에서 다루는 교재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개발한 재외동포교육용 교재에 국한한다. 다만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이 1973년부터 계속 교육부 담당이었으나 2017년 이후 국립국어원 업무로 이관되었기에 2018 개발된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재는 포함하였다.

⁷⁾ 재외동포교육용 교재 개발에서 역사문화교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 교재 개발을 함께 수록하였다.

⁸⁾ 한국어교재 개발 현황은 김중섭(2012:62)을 참고하였다.

⁹⁾ 그간 재외동포교육용 교재는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되어 온 관계로 표의 대부분 교재가 교육부 발행이었으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넘어가면서 관계로 2018 유아용교육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하였다.

2010 ~현재	맞춤형 교재 1~6; 영어권(2011/ 2016), 중국어권 (2012), 프랑스 (2012), 베트남어 (2012), 태국어 (2012), 독일어 (2013), 스페인어 (2013), 인도네시아어 (2013), 아랍어 (2014), 범용 1~7 (2015), 일본어 맞춤형 (2016), 유아용 한국어 배우기 1,2 (2012), 유아용 교육자료 (2018) 9		영어권은 2011 년 맞춤형 개발 후 2016 년 재 개발, 범용교재 2001 개발 후 2015 년 재 개발
-------------	---	--	---

지난 40여 년 동안 재외동포용 한국어 및 한국역사 문화 교재가 개발되어 왔는데 주로 한국어 교재 중심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역사·문화교재는 10종 미만이며 그 중 5종이 1980년 이전에 재외국민용 교재로 개발된 점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교육용 교재 개발은 매우 미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외동포 역사·문화 교재 연구도 마찬가지로, 재외동포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수법, 교육 내용, 교재, 교육 과정,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나 그 논의의 중심은 한국어교육이고, 한국 역사나 문화는 한국어교육 일부로서의 한국문화, 그 한국문화의 하위 내용으로서의 한국사교육 위주였다. 즉, 교육과정으로서의 역사·문화라기보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역사·문화를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룬다(강승혜, 2002; 김보영 외, 2016). 한국어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문화교육 전문가가 적은 한글학교를 고려할 때 재외동포교육 현장에 맞는 역사문화 교재 개발은 시급하며 매우 중요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황 및 요구의 맥락 속에서 교육부는 2016년 후반부에 현장 맞춤형 재외동포역사문화교재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그 필요와 요구 파악하기 위한 교재 개발의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는 김도희·김태진(2017)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재외동포용 역사문화교재 개발을 위해 다양한 변인(언어, 교사, 시수)의 고려, 교과(언어, 역사와 문화)의 통합, 교재와 자료의 통합, 교사용 수업자료의 체계화 및 수월성 지향, 현지 전문가 참여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무엇보다 ‘활동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다양한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기초 연구를 토대로 2018년, 『한국의 이해와 역사』 입문과 심화, 두 단계의 교재(실험본)가 개발되었으며, 교재 구성 방향은 인지적 영역보다 정의적 영역에 초점을 두고 동기 유발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적·문화적 수준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쉽게 접근하고 흥미롭게 배움으로써 한국역사 문화에 대한 즐거운 감정을 갖고 한국계로서의 정체성 확인과 자긍심 고조를 초점으로 하였다. 모든 단원은 ‘활동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에 필요한 교육 자료는 자료집 형태의 워크북에 수록하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고 동시에 성취감을 통해 한국역사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갖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고 수업의 수월성 및 전문성 보충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또한 개발하였다. 더욱 주목할 것은 교재 개발에 그치지 않고 2019년 현재, 입문 단계 실험본은 전 세계 6개 권역 12개 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 형태로 실험본을 직접 시범수업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쳤으며, 수업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배가 시키고자 다양한 수업 지원자료-수업시범자료(동영상), 수업진행자료(교사용 PPT), 수업보조자료(동영상), 활동시범자료(동영상), 평가 자료, 보충학습자료- 또한 개발하고 있다. 진정한 ‘현장맞춤형 교재’를 위한 과정이자 정

체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 의미 있는 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시도를 계기로 장기적인 계획과 연구를 통해 한국어·역사·문화를 통합한 정체성 교육의 기초 틀을 개발하고 정체성 강한 한국계 현 지인,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때 새로운 시도로서의 ‘현장맞춤형 교재’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5. 나가며

최근까지의 재외동포교육 연구는 주로 한국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역사나 문화는 한국어교육의 하위 항목 또는 보충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현장교육 또한 한국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역사나 문화교육을 매주 실시하는 학교는 25% 미만으로 활발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재 개발 또한 한국어 교재 중심이었으며, 역사·문화 교재는 2006년 이후 10여 년 간 개발이 미비하였다. 이민의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현지에서 출생하고 자란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현지 국가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에 점차 동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재외동포교육이 한국어교육 중심에서 탈피하여 역사 교육 자체의 중요성, 목표, 방향,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교재 개발은 시대의 사명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2017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재외동포교육용 역사·문화교재 개발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새로운 시도로서의 ‘통합형 활동 중심 교재이자 교육자료’인 『한국의 이해와 역사』 개발은 재외동포 역사·문화 교육발전의 디딤돌이자 정체성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으며, 본고에서 살펴본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과 역사문화교재 논의에서 도출한 재외동포교육용 역사문화교재의 현장 맞춤형 기준을 제시해 본다.

첫째, ‘공감 능력 개발’이다.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한국역사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지능력 발달보다 공감능력 발달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렵거나 지루하게 학습하는 역사를 지양하고 즐겁게 체험하고 신나게 활동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생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즐겁게 발견한 한국 역사는 긍정적 자아, 긍정적 민족관과 세계관이 확립되는 밑바탕과 행동의 동기가 되므로 한국역사문화교육이 그들의 심리적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고 기능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찰 및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관계적 사고 개발’이다. 한국계로서의 나, 현지인으로서의 나를 연결할 수 있는 관계적 사고를 키우도록 해야 하므로 ‘나는 왜 여기에 있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과 이해, 현지 이민사를 학습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가족의 역사, 현지 이민의 역사가 나의 삶과 가치에 끼친 영향과 함께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듬을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되도록 한다. 현재 각 재외동포 사회가 현지 이민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차 세대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이민사 교재는 미비하다.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현지 이민사는 재외동포 역사문화 교재에 들어가야 할 필수 단원이자 자아 확립에 주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셋째, ‘언어병합형 개발’이다. 역사에 등장하는 고급 수준의 한자어와 사건명은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매우 낯설고 어렵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역사 내용을 고려할 때 단순화, 상세화¹⁰⁾를 통한 언어 수준 조정 및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십분 고려한 교재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 역사 속 흥미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형식의 ‘언어학습자 문학(Language learner literatur)’¹¹⁾ 자료 개발은 한국어, 한국역사와 문화 모두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판단되므로 ‘한국역사 문화 스토리텔링 시리즈’ 개발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역사적 중요성의 상대적 개발’이다. 한국의 교과교육에 필요한 한국사 핵심 내용과 재외동포 교육용 핵심 내용은 같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국의 역사교육과정도 어떤 시대와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재외동포 역사 문화교육은 교과교육이 아니라 정체성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역사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계적이고 고정적인 기준보다 재외동포 학생의 언어, 문화, 환경, 정서적 차원을 반영한 재외동포 맞춤형 교육 내용 선정과 함께 한국과의 역사적 편린이 강한 지역과 국가에 대한 기술의 세심함 또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이다.¹²⁾

다섯째, ‘다양성을 고려한 개발’이다. 전 세계 한글학교는 약 2,000개로 같은 나라,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과 수준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역사문화교육의 기본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필요와 요구라는 변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지역·국가 간, 학교 특성 간, 언어 수준 간, 가정환경 간 등의 차이를 찾아냄과 동시에 이를 체계적인 연구로 발전시켜 취사선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재외동포 역사문화교육의 목표인 정체성은 개인정체성과 집단정체성 차원에서 바라보고 확립되어야 할 복합적인 영역임과 동시에 정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간극의 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에 따라 동질화가 진행되면서도 차별화와 특수성을 필요로 하는 복합성의 시대에 다중적이고 중층적인 환경에서 자라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우리의 재외동포 차세대들은 세계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들이 ‘한국계 현지인’ 으로서의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자라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 현장 맞춤형 역사문화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승혜(2002). “재미교포 성인학습자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분석 연구,” 한국어교육 13(1).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1-25.
- 김도희, 김태진(2017). 재외동포 대상 한국 역사 문화 교재 개발 방향 제시, 숙명여대글로벌가버넌스 연구소.
- 김보영 외(2016). 재중동포 단기 한국어 역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53-84.
- 김중섭(2014).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의 성과 및 과제, 이중언어학 54, 이중언어학회, 55-74.
- 김태진(2015). 재미한글학교 학습자 정체성 구성요인과 언어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출간 박 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태진(2016). 재미한글학교학습자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확장형 읽기 고찰 및 적용. 이중언어학, 65. 이중언어학회, 31-55.
- 백종학·심진영 (1994).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 2세가 겪는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 이중언어학, 10, 이중언어학회, 34-42.
- 이지은(2008). 이독성을 높이기 위한 텍스트 수정 방안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전희정(2011). 재미교포 청소년의 문화정체감과 한국어 숙달도의 상관관계 연구. 미출간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진동섭 외(2006). “재외동포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비교교육연구 16(2). 한국비교교육학회, 1-31.
- Brown, C. L.(2009). Heritage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A Case Study of Korean-Americ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11(1), 1-16.
- Chine, K., & G. R. Tucker.(2006). Heritage language development: Understanding the roles of ethnic identity, schooling and community. In K. Kondo-Brown (Ed.), Heritage language development: Focus on East Asian immigrants. (pp. 89-126).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ummins, K. J.(1981). Bilingualism & minority language children, Toronto: OISE Press.
- Choi, J. S.(2015). identity and language: Korean speaking Korean, Korean -American speaking Korean and English?.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5(2), 240-266.
- Erikson(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¹⁰⁾ ‘단순화’란 원래의 텍스트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장문을 단문으로 수정 하고 저빈도 어휘보다는 고 빈도 어휘를 사용하며 문장 내에 어려운 어휘나 숙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익숙하지 않은 언어적 요인들을 익숙한 입력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이지은 2008:11). ‘상세화’는 텍스트의 어려운 어휘나 문법구조를 유지한 채 이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을 덧붙이거나 구조를 분명하게 하는 장치의 삽입 및 구두점 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김태진 2016:37).

¹¹⁾ 언어학습자문학은 Day & Bamford(1998)에서 사용된 용어로, 언어학습자를 위해 쓰인 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young adult literature, literature for youth, children’s literature, graded readers, guided readers, 비문학 작품 등이 이에 속하며, 언어학습자라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이다.

¹²⁾ 물론 그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Giles, H., & P. Johnson. (1981). The role of language in ethnic group relations, In intergroup Behavior, J. C. Tuner and H. Giles. (Eds.), 199-243, Oxford: Black Well.

Guitart, J. (1981) The question of language loyalty. In R. St. Clair, G. Valdes and J. Ornstein-Galicia (Eds.), Social and Educational Issues in Biculturalism and Bilingualism,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Hinkel, E.(2009), 문화와 제2언어 교수학습. (김덕영 역). 서울: 한국문화사. (원전 출판연도 1999).

Jeon, M.(2012). Language Ideologies and Bilingual Education: A Korean American Perspective. Language Awareness, 16(2), Multilingual Matters Ltd., 114-130.

Kang, Hyun-Sook(2013).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 Language Practices and Identity Positioning: "Not Korean, but not American" .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 Education, 12(4), 248-261.

Lee, J. S.(2002).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n: The role of cultural identity in heritage language learning.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15(2), 117-133.

Oketani, H.(1997). Additive bilinguals: The case of post-war second generation Japanese Canadian youths. Bilingual Research Journal, 21(4), 359-379.

Pollock, D. C., & R. E. van Reken.(2008). 제3문화아이들. (박주영 역). 서울: 비즈앤비즈. (원전 출판년도 1999).

Romaine, S.(1995). Bilingualism. Oxford: Blackwell.

Shibata, S.(2000). Opening a Japanese Saturday school in a small town in the United States: Community collaboration to teach Japanese as a heritage language. Bilingual Research Journal, 24(4), 465-474.

Soto, L. D.(2002). Young bilingual children' s perceptions of bilingualism and biliteracy: Altruistic possibilities, Bilingual Research Journal, 26(3). 599-610.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한국학교 교육

신혜영 아메리칸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과

문지혜 조지메이슨대학교 근현대 고전 언어학과

I. 들어가는 말

미국 내 한국어 사용자는 모국어, 계승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들로 구분지을 수 있다. 한국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제 이민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추세이고, 이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부모가 이제 계승어 구사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학교 아이들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과 동일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한국어를 습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한국학교는 가정에서 사용하던 한국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었지만 근래 한국학교에는 취학 전부터 가정에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는 여전히 언어학적 측면 외에도, 문화 및 그에 따른 문화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갈 학습자, 학부모 및 교사의 언어 문화적 배경 변화 추이를 예측하여 향후 한국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내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 설치 확대로 인하여 한국학교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외국어 교육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는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 프로그램과 대비되는 한국학교의 강점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계승어 교육을 담당해 온 한국학교는 한국 역사교육 개발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단순히 언어교육의 한 요소인 목표 문화교육을 넘어서 상호문화이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한국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현재 몸 담고 있는 미국 문화와 더불어 자신들의 뿌리인 한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상호문화이해능력을 함양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큰 덕목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학교는 동포 학생들을 위한 언어문화교육의 장이라는 지엽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벗어나 세계시민교육 표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글로벌 리더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기존 미국 공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중 하나이지만 이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학교가 미국 공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교 두보가 된다면 지역 중심 학교의 위상도 더불어 향상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는 세계시민교육 표준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네 가지 주요 영역에 따른 학년 및 연령별 수행 목표 를 살펴보고 한국학교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세계시민교육 및 글로벌 리더십

1. 세계시민교육의 정의

세계시민교육은 인권교육, 반편견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문화간 이해교육 등 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 를 계발”하기 위한 교육이다(UNESCO, 2014, p. 17).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을 능동적 인 교육 주체로 삼는 교육이며 더 나은 사회로 진보하기 위해 기성세대의 가치와 규범을 강요하 지 않는 변혁적인 교육이다. 또한 이는 과정 중심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 교육이며 참여 지향적 이며 실천 지향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UNESCO, 2014).

유네스코는 ‘알기 위한 학습, 하기 위한 학습, 되기 위한 학습, 함께 사는 학습’이라는 네 가지 기둥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시민교육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은 현재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초하며 탐구 학습을 주된 교육학적 방법으로 사용하 고 있다. 또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학생들의 선택과 목소리에 우선 순위를 두 고 학생 리더십을 장려한다. 학습자는 학습자의 이해관계를 현재의 사회, 정치, 환경 및 경제 문 제와 일치시키는 지역사회 기반 행동 조사 프로젝트를 수립한다(UNESCO, 2014). 세계시민교육 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국제적 이슈나 세계화에 따른 문제 들은 기아, 빈곤, 환경 재앙, 아동 노 동, 전쟁 등이다(성열관, 2010).

2. 글로벌 리더십의 이해

Veronica Boix-Mansilla와 Anthony Jackson (2011)은 글로벌 역량을 “글로벌의 중요성에 대 한 이해와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성질”이라고 정의한다.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거 리나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상호 연결된 사람들, 문화, 아이디어, 이슈 등 의 추상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는 많은 다른 자료들을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수집, 종합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과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 신이 터득한 지식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Asia Society, 2013).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는 1)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찬 반 토론 체계적인 토론, 2)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토의, 3) 전세계와 지역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논의, 4) 문제 해결을 위한 팀원들 간의 협동과 규칙을 요구하는 게임, 5) 그룹별 작업을 통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그리고 6) 습득한 지식을 공동체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 활동 등이 제시된다(Center for Global Education , 2018).

III.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한국학교

1. 글로벌 리더십의 네 가지요건

아시아소사이어티 글로벌 교육센터(Asia Society Center for Global Education)에서 지정한 세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써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네 가지 주요 요건은 1) 세계고찰(Investigate the World) 2) 관점인식(Recognize Perspectives) 3) 의사전달(Communicate Ideas) 4) 행동실천 (Take Action)이다 (Asia Society, 2013). ‘세계고찰’은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의 틀을 짜고, 관련 증 거를 분석 및 종합한 다음,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세계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 ‘관점인식’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고, 이를 명 확하게 표현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의사전달’은 학생들이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이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와 전략을 선택하 고 적용할 수 있게 한다. ‘행동실천’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 및 해결방안을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개인적 또는 협력적 행동으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연령 및 학년 별 수행성과

이상과 같은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네 가지 요건은 학습자의 연령 및 학년에 따라 그 세부적인 수행 성과가 차별화된다. 그 예시로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 기준의 수행성과 (Performance outcome)와 학습목표(I can statement)를 정리한 것이다.

1) 세계고찰(Investigate the World)

수행성과 (Performance Outcome)	학습목표 (I Can Statement)
- 지역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관련성을 확인 - 지역 문제와 관련, 한 가지 자료에 의존하여 조사 - 지역 및 글로벌 이슈(문제) 관련 자료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요약 - 의견 채택 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최소 한 가지 제시	- 나는 나의 공동체나 세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나의 질문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 나는 내 지역사회나 세계에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텍스트나 미디어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나는 책이나 매체등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 나는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 의견 제시를 위해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2) 관점인식(Recognize Perspectives)

수행성과 (Performance Outcome)	학습목표 (I Can Statement)
· 상황, 사건, 이슈 또는 현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 ·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 · 사람들이 상황, 사건, 문제 또는 현상에 반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인식 · 상황, 사건, 문제 또는 현상에 대한 대안 파악	· 나는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공유할 수 있으며 나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나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언제 나와 다르게 생각할지 알 수 있다. · 나는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나와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며 언제 다른 반응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나는 지역사회 또는 세계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식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3) 의사전달(Communicate Ideas)

수행성과 (Performance Outcome)	학습목표 (I Can Statement)
·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 파악 · 기본적인 구두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및 협업. ·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기술이나 미디어 사용 · 대중의 반응 및 피드백에 대한 폭넓은 관찰	· 나는 일반적인 견해를 파악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내 주제에 대해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 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말하고 쓸 수 있다. 이는 내가 완전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고, 청중 앞에서, 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청중들로 하여금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는 개인 또는 그룹과 함께 작업하면서 내가 정중히 동의 및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동료들이 말하는 것에 덧붙일 수 있으며, 그들의 생각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다. · 나는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 나는 청중이 내 아이디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사람들의 피드백을 설명할 수 있다.

4) 행동실천(Take Action)

수행성과 (Performance Outcome)	학습목표 (I Can Statement)
· 상황, 사건, 문제 또는 현상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필요 파악	· 나는 언제 현재 상황이 변경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상황, 사건, 또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기반한 가상행동 제안 · 지역 또는 글로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화 된 개인 및 협업 대응방안 파악 · 제시된 방안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적절성 숙고	· 나는 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공유할 수 있다. · 나는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이것이 각각 어떻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나는 개선방안 계획을 설명할 수 있으며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개선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나는 내 계획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할 수 있다.
--	---

3. 한국학교 적용 모형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써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학습목표에 따른 한국 학교 적용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의 예로 환경오염이라는 세계적 이슈를 둘러싼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 학습자를 기준으로 한 영역별 학습목표(I Can Statement)를 정리해 보았다.

초등학생을 위한 영역별 학습목표

단계	영역	학년 / 초등학교 저학년	학년 / 초등학교 고학년
1 단계	환경오염을 둘러싼 세계고찰	· 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왜 이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 나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이나 미디어에서 한 가지 자료를 선택, 사용할 수 있다. · 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의견 하나를 채택 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할 이유를 하나 제시할 수 있다.	· 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나는 조사를 바탕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 나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여러 나라의 자료들을 선택, 사용할 수 있다. · 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요약할 수 있고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나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단계	환경오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인식	· 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힐 수 있다. · 나는 환경오염에 대해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나는 세상 사람들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 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 · 나는 다른 사람들이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 · 나는 또한 왜 이들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3 단계	환경오염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현	· 나는 환경오염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말하고 글 쓸 수 있다. ·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파트너 또는 그룹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정중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 나는 환경오염을 둘러싼 대중들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 나는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이들과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소통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다. ·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이들로부터 피드백 을 구하고 나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4 단계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행동실천	· 나는 환경오염 문제가 왜 개선되어야 하는 지를 설명할 수 있다. · 나는 어떻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 나의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할 수 있다. · 나는 내 계획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	· 나는 환경오염 문제가 언제 개선되어야 하는 지를 알고 있다. ·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그동안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내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 나는 이러한 나의 계획이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	------------------	--	---

IV.맺음말

세계시민교육의 지향점과 이를 바탕으로한 글로벌 리더십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목표 를 살펴 보았다. 언급된 바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은 인권교육, 반편견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문화간 이해교육 등을 포괄하며 과정 중심, 문제해결 중심적이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 실천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세계시민교육은 체계화된 교과과정을 갖춘 공교육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사회 생활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특히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한국학교가 세계시민교육표준에 근간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수업활동을 계획한다면 앞으로 우리 동포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국학교에서 효과적인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십의 각 영역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자 활동지침을 제시하고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 역사문화전통 교육을 주도해 온 한국 학교가 미국 공교육에서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Asia Society (2013), Global Leadership, New York: Asia Society

The Center for Global Education (2018), Teaching for Global Competence in a Rapidly Changing World, New York: Asia Society

UNESCO (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Paris: UNESCO

Veronica Boix-Mansilla& Anthony Jackson (2011).Educating for Global Competence: Preparing Our Youth to Engage the World. New York: Asia Society

성열관(2010),세계시민교육교육과정의보편적핵심요소와한국적특수성에대한고찰

한국교육제37권제2호 109-130

21세기 디지털 리터러시를 지향하는
블렌디드 한국어 문화 역사 교육 방향 고찰

-한국학교 교육 환경을 중심으로-

방혜숙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학과

1. 들어가는 말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기술을 접목하여 실제 세계와 직업 교육에 맞는 언어 문화 학습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최대 외국어교수학회인 ACTFL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ing Foreign Languages)에서도 언어 학습을 위한 세계 표준 (World-readiness standards for language learning)에 의거하여 21세기가 원하는 다양한 기술 (21st Century Skill)을 함양하도록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미 다가온 디지털 시대에 한국학교 환경에서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역사 교육을 위해 고려해 봐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과 그에 연관된 하나의 학습 방법으로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앞으로 21세기가 원하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준비시켜야 할 것인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디지털 시대를 향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1)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세대

디지털 시대의 우리 유· 청소년 학습자들은 자랄 때부터 이미 디지털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학습보다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영상 매체를 통해 이미 고감도의 감각 능력을 지닌 감각적 인간, 호모 센수스 (Homo Sensus)로 존재한다. 그들에게는 디지털 기기의 접근이 아날로그적 기기보다 더 용이하고 그것으로 소통하는 체계가 더 편하며 친숙하다.

이미 학습자들은 정규 학교에서 주어지는 많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다양한 테크놀로지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평가의 방법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한 적절한 평가 과정 설계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이 효율적으로 주어지고 있어 더 높은 단계로의 학습 설계나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러 한국학교에서는 공작, 크래프트 위주의 실제 액티비티 활동을 교육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성취감을 높이는 교수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자라나는 유·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수업 활동과 체험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한국어 문화 역사 교육 목표에 재미있게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일회성에 그치거나 학습 효과의 유지를 위해서는 좀더 다른 방법이 고안되어야 함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디지털 세대를 위한 좀더 지속적이고 교육적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2)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디지털 리터러시¹⁾는 디지털 장치를 활용하여 여러 콘텐츠 세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어떤 결과물을 생산, 제작까지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단순한 컴퓨터 활용 능력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의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 제작 능력, 디지털 시민의식 등, 총체적으로 디지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제 한국학교 환경에서도 디지털 세대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고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컴퓨터 관련 용어 및 표현뿐만 아니라 코딩 프로그램 언어 관련 용어 및 표현, 게임 미디어 관련 용어 및 표현, 인터넷,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 (SNS, Social Network Service),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digital platform) 관련 용어 및 표현 등, 디지털 교육에서 통용되는 모든 언어 담론이 한국어로 인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학습자의 언어 체계의 내재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이 내재화가 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계에서의 가치관과 세계관에는 한국어로서의 인식 체계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디지털 관련 인식에서도 한국어적인 사고 방식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교육 방법인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블렌디드 온라인 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역사 교육

1) 블렌디드 온라인 러닝과 면대면 학습의 조화

블렌디드 러닝²⁾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교실 교육과 온라인 학습에

서의 블렌디드 러닝 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교실 교육과 온라인 학습에서의 장점만을 활용하는 것이다 (Thorne, 2003). 블렌디드 러닝은 한국말로 혼합형 교육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학습자들에게 전통적인 면대면 방식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전달 방식, 이 두 가지 교수 방법의 특성이 혼합된 학습 방법을 일컫는 것이다.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시공간적 제약이 적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여러 기법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들이 많은 교육의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왔다.

블렌디드 러닝은 기존 교육적 환경과의 온·오프라인 교육 통합을 통한 연계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교육의 효과 면에서도 다양한 교수 매체와 전략을 가지고 콘텐츠를 학습자 스타일에 맞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도 예산 확보 여부가 중요한 우선 사항이 되는 한국학교 실정상 최소한의 개발 비용과 시간으로 기존 교육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 개발 발전이 가능한 학습 형태라 할 수 있다.

2) 교육 내용의 진화 및 개발

최근의 교육 콘텐츠들은 디지털 문화 세대의 스타일과 정서의 조합과 구성에 감각이 동원되는 양상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글 클래스룸 (Google Classroom)이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과 정보에 근거하여 교사와 학습자, 교실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계속 확장일로에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유롭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크롬북 (Chrome book)이나 아이패드 (iPad)를 디지털 도구 장비 등을 사용해서 전자책 (e-book), 디지털 교과서, 유튜브 (Youtube) 등 영상 매체 플랫폼에 접근하여, 다양한 교육적 콘텐츠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모바일 리터러시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이다.³⁾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기반 강의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면서 디지털 세대의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진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의 진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블렌디드 러닝 방향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분석해 보았다.

4. 델파이 연구 기법을 활용한 한국학교 교사 심층 설문 조사 분석

1) 심층 설문 조사 절차 및 질문 항목

한국학교의 교사 전문가 집단 1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연구 기법⁴⁾을 활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¹⁾ 리터러시는 문해력, 문식력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개념으로 단순히 문자화된 언어만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화적이나 시대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담론의 언어를 폭넓게 이해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소셜 미디어 등의 리터러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리터러시, 복합 멀티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모든 용어 중 우선 한국학교의 환경을 좀더 21세기형 교육 환경에 발맞추기에 초점을 두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²⁾ E-learning, M-learning, U-learning, G-learning, Flipped learning, Hybrid learning 등 다양한 학습 방안이 제시되고 발전하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린 혼합형 학습 방법으로 개발 비용 효율성이 좋고 학습 효과성이 높아 많은 전문적 교육 학습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습 전략 형태이다.

³⁾ 대표적인 교육 콘텐츠로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시공미디어와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온라인 신청을 한 한국학교에 아이스크림(i-scream)이라는 한국 초등학교용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 자료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⁴⁾ 델파이 연구 기법(Delphi method)은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문제에 대해 정리하는 일련의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연구기법이다.

교육과 블렌디드 러닝에 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개별 면담 형식으로 설문 조사 내용을 크게 세 부분에 걸쳐 총 15문항에 대해 실시하였다.

1차 설문 조사 부분은 교사 집단의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5문항으로, (1) 성별, (2) 교육 경력, (3) 현재 수업 학년, (4) 수업 시 사용하는 언어, (5) 수업 시 사용 디지털 장비 및 종류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설문 조사 항목은 디지털 교육에 관한 조사로, (1) 학습자들의 디지털 장비 허용 여부, (2) 디지털 수업 환경에서 활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유형 및 종류, (3) 디지털 장비 활용 가능 수업 내용, (4) 디지털 교육 시 애로 사항, (5)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제안, 이렇게 5문항이다. 3차 설문 조사 항목은 1,2차 설문 조사 응답 자료를 근거로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 교육에 대한 설문 내용 및 문항을 개방형 질문 5문항으로 작성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절차에 해당하는 설문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교사 설문 조사 절차 및 항목

1차 설문 조사 항목 - 교사 집단 기본 정보 문항 (5 문항)	(1) 성별 (2) 교사 연령대 및 교육 경력 (3) 현재 수업 학년 (4) 수업 시 사용하는 언어 (5) 수업 시 사용 디지털 도구 장비 및 테크놀로지 종류
2차 설문 조사 항목 - 디지털 교육과 리터러시 인식 및 실제 활용 사항 문항 (5 문항)	(1) 학습자들의 디지털 장비 허용 여부 (2) 디지털 수업 환경 활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유형 및 종류 (3) 디지털 도구 장비 활용 가능 수업 내용 (4) 디지털 교육 시 애로 사항 (5)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제안
3차 설문 조사 항목 - 블렌디드 러닝 교육 및 영향 문항 (5 문항)	(1) 온라인 교육 찬성 반대 유무 (2) 온라인 교육 내용 및 적절성 여부 (3) 온라인 교육 시 교사 요구 사항 (4) 온라인 교육이 한국학교에 주는 영향 (5) 온라인 수업과 교실 수업의 혼합 비율 (블렌디드 러닝 혼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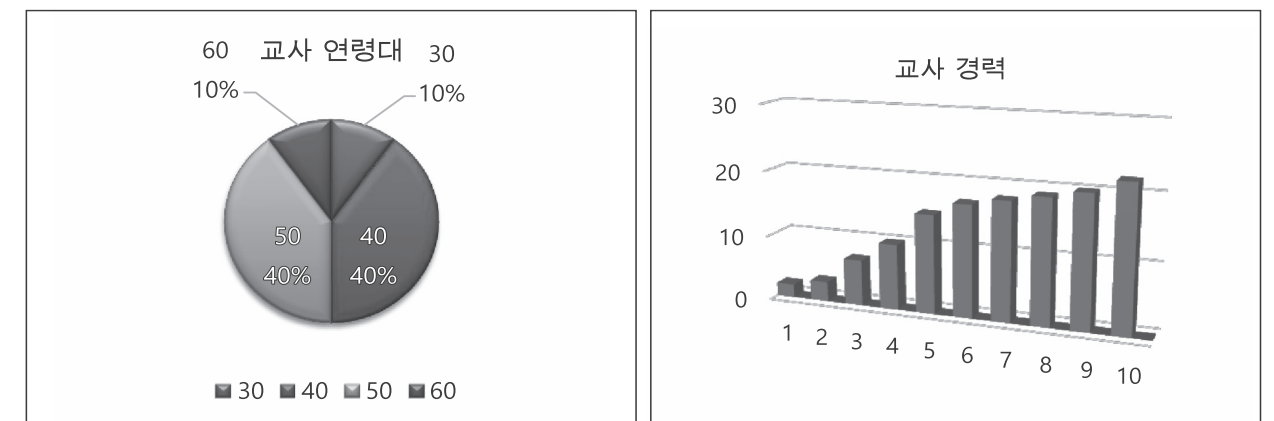
2) 1차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성별

한국학교의 교사 전문가 집단 10명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교사 집단의 성비율 불균형은 여기 한국학교 환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교사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이곳 한국학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의 교육 환경에서 점차 교사 성별에 대한 변별력이 교육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한국학교의 현장에서는 다수의 교사는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혹여라도 디지털 교육이나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관련하여 교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 하에 남성 한국학교 교사를 찾아 의견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표 1〉 교사 연령대 및 교육 경력



(2) 교사 연령대 및 교육 경력

한국학교의 교사 전문가 집단 10명의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분포되어 나타났다. 교육 경력은 3년차부터 25년차까지로 다양한 교육 경력을 지닌 교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심층 면접 하려고 노력하였다.

(3) 현재 수업 학년

한국학교의 교사들은 다양한 경험이 있는 교사인 경우가 대부분 모든 학년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었다.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년에 대한 질문에는 5세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교사부터 초등 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년을 골고루 아우르고 있었다.

(4) 수업 시 사용하는 언어

교사들은 수업 교실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려고 애쓴다고 대답했다. 어떤 교사의 경우 철저히 한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2명 정도의 교사는 적절히 영어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문화에 대한 설명이나 역사적 부분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더욱 한국어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설명해 주는 것이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5) 수업 시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 장비 및 테크놀로지 종류

한국학교의 교사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노트북 (laptop) 이었다.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10명 중 6명이 자신들의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수업을 진행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노트북을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 프로젝트는 한국 학교에 비치된 것을 주로 사용하거나 교실 벽이나 화이트보드에 화면을 띄워 학습자들에게 수업 내용을 보여준다고 대답했다.

3) 2차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학습자의 디지털 도구 장비 허용 여부

한국학교의 교사들이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디지털 도구 장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는데 응답자 3명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수업의 방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비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4명의 교사는 부분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는데 아이패드나 휴대폰 같은 디지털 도구 장비를 수업에서 활용할 경우 미리 디지털 도구 장비 준비에 대한 공고를 하고 제한적인 수업 내용에서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3명의 교사는 전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급적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수업의 참여도나 활용도를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2) 디지털 수업 환경 활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유형 및 종류

한국학교의 교사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대답한 교육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는 카훗 (Kahoot) 과 퀴즐렛 (Quizlet)이었다. 주로 한국어 단어나 표현들을 익히고 복습할 때,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 방법이 간단한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것으로는 유튜브를 활용하여 동영상을 다운 받거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디지털 도구 장비 활용 가능 수업 내용

한국학교의 교사들은 디지털 도구 장비를 활용한다면 아이패드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고 휴

대폰이나 크롬북도 괜찮다고 대답했다. 데스크탑은 설치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한 응답자도 있었고 휴대폰의 경우는 너무 작고 교육적인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 내용에 대한 답변은 말하기가 가장 많았다.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는 이유가 학습자의 말하기를 더 강화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상반된 의견으로 쓰기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4) 디지털 교육 시 애로 사항

한국학교에서 디지털 교육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교사들이 열악한 인터넷 시설 환경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운용 교사의 부족을 꼽았다. 응답자 3명의 학교에서는 인터넷 와이파이를 연결하여 디지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대답했지만, 나머지 응답자들은 실제로 인터넷 연결 자체가 안 되어 있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서 인터넷 환경에 기반한 수업을 가급적 시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5)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제안

디지털 교육이 한국학교 환경에서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사들의 제안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인터넷 연결 환경과 비디오 상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떤 콘텐츠라도 교사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근간으로 교사들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훈련 과정을 거쳐 교사가 디지털 매체를 본인의 의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4) 3차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온라인 교육 찬성 반대 유무

온라인 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1명으로, 한국학교의 특성상 온라인으로의 교육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수업 환경이 온라인에 적합하지 않고 한국학교는 단순히 학습자들의 한국어 교육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오히려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9명의 응답자는 온라인 교육에 대해 특별히 찬성과 반대는 안 하지만 온라인 교육에 조건적인 찬성의 의견을 냈는데, 연령대에 따라 부분적인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국학교의 성인 학습자의 경우가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응답자가 2명이 있었다.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한국어나 문화,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사전 학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동 학습자의 경우는 주도적인 학습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라 온라인 교육에는 유연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은 전통적인 교육과 비교해서 더 효과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었다.

(2) 온라인 교육 내용 및 적절성 여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다면 적절한 수업 내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 간 협동 활동이 가능한 과제를 주고 온라인 학습 후 오프라인인 교실에서 만나 확인과 피드백의 학습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과제나 수업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말하기를 중점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문법을 설명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언급하였다. 발음이나 말하기 과제 등의 피드백을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업 중에 시간적 제약 때문에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주지 못 하는 것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학습자들과의 의사소통과 협동을 통해 한층 개선될 수 있는 점도 온라인 교육의 장점으로 꼽았다.

(3) 온라인 교육 시 교사 요구 사항

온라인 교육 시 교사가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화 창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점을 요구하였다. 또한, 온라인 교육에 걸맞은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요구하였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교사에 대한 보상 체계도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4) 온라인 교육이 한국학교에 주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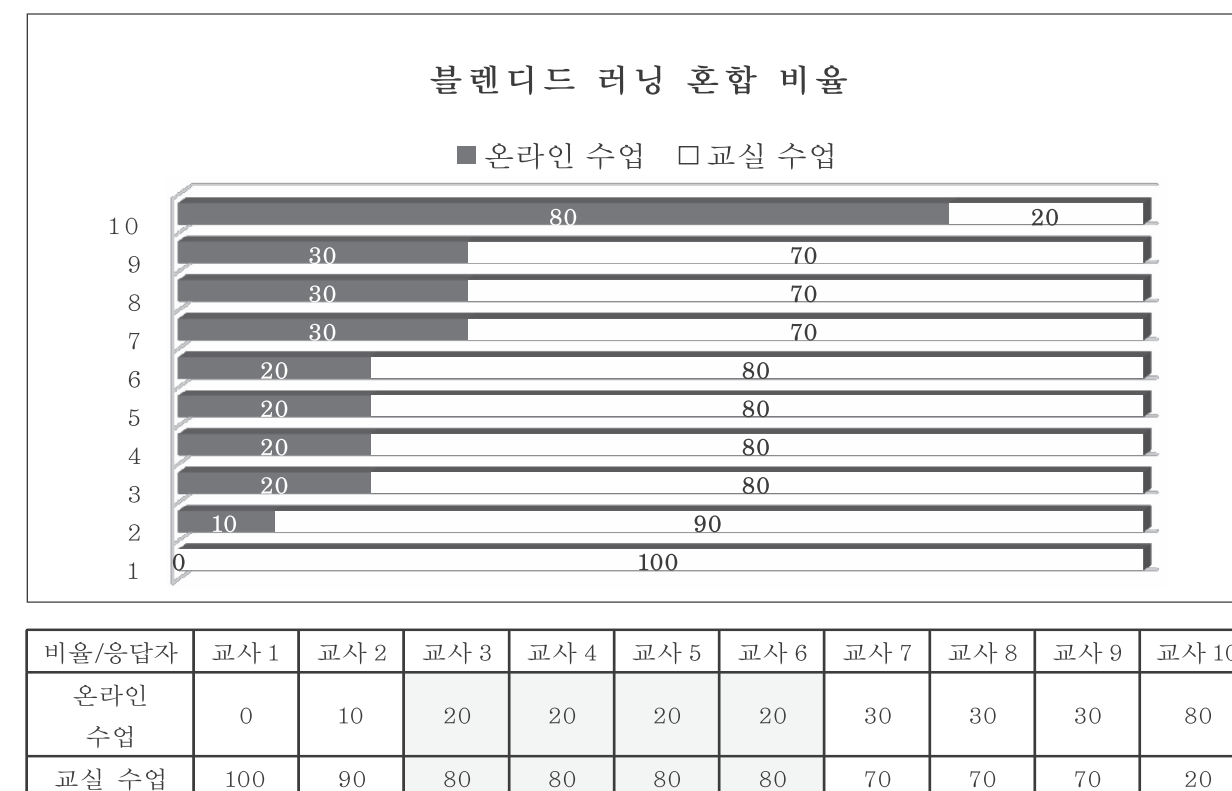
온라인 교육이 한국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교사와 학습자의 입장에서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학습자들에게 직접 설문 조사를 한 것은 아니어서 교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만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학교 환경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답변에서는 교사의 연령대에 상관없이 온라인 교육에 적응 못 할 교사는 없을 것이라 하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그것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힌 응답자가 8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온라인 교육이 한국학교 환경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특히 교사의 직업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상반된 의견으로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사는 오히려 사회적인 힘, 소셜 파워를 가지게 되고 온라인 상에서 학습자들과 더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한국학교도 정규 학교와 다를 바 없는 친근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국학교에서 학습자들에게 교육 효과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한국학교가 전문적인 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5) 온라인 수업과 교실 수업의 혼합 비율 (블렌디드 러닝 혼합 비율)

한국학교의 교사들에게 앞으로 수업에서 온라인과 전통적인 면대면 교실 수업의 혼합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난 혼합 비율 (응답자 4명)은 온라인 수업 20퍼센트와 면대면 교실 수업 80퍼센트 비율이었다. 초등학생 학습자의 경우에는 저학년인 경우는 면대면 교실 수업이 100%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답한 교사가 있었는데, 고학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해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제 교사가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데 온라인 수업으로는 용이하지 않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한인의 정체성 확립이 한국학교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보다는 면대면 교실 수업을 통해 교육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도표 2〉 블렌디드 러닝 혼합 비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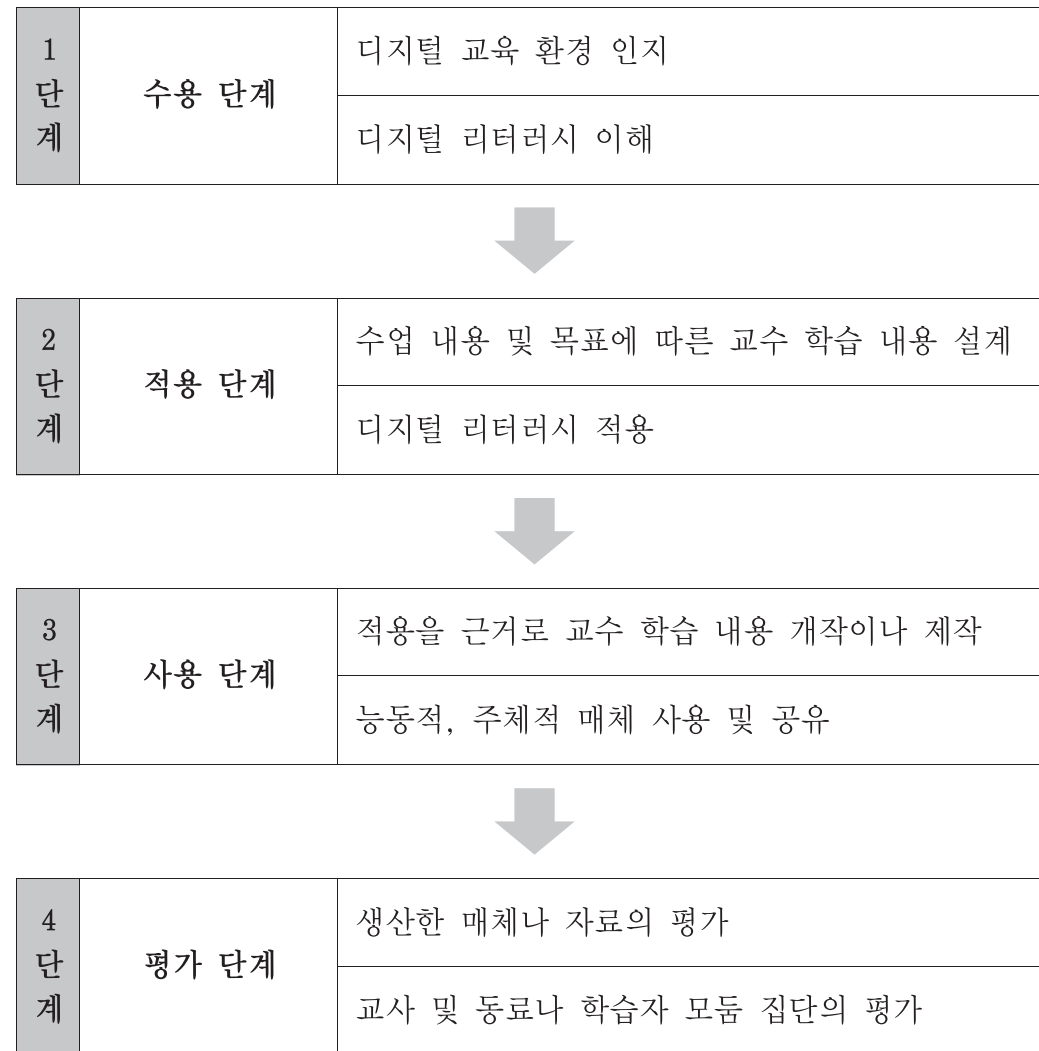


5.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자 양성 및 세계 시민 육성 방안

1) 21세기형 교육자 양성 방안

한국학교 교사들이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과연 어떤 학습 전략과 접근법으로 학습자들을 교육하고 격려하며 소통할 것인가, 또한 교사들은 어떻게 자신의 직업 경험을 바탕으로 계발과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표 2〉 단계별 블렌디드 한국어 문화역사 교육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한국학교 교사들은 21세기에 준비된 교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좀더 구체적인 준비 방안에 대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웹세미나 강의 (webinar)나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과 세종학당 재단, 사이버 대학, 재외동포재단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기반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강의나 연수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혜택과 보상 체계를 좀더 현실화하여 교사들을 참여시키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온라인 자료 활용의 측면에서, 재외동포재단, 코리아넷, 세종학당 모바일앱 등을 활용할 수 있고, ACTFL-NAKS 교사 인증제도 등을 통해 교사들도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데 좀더 세계 표준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워싱턴지역 협의회에서는 지역 한국학교 교사의 수업 발표 동영상 대회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고 자료로 공유하고 있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한 것도 참고할 수 있고 해당 교사는 피드백 등을 통해 더 나은 수업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 자료의 디지털화 개작, 제작과 개발에 대해 현장의 교사를 참여시키고 이것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좀더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개발과 데이터 구축, 공유는 한국학교 환경에서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것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하게 공유된다면 교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개작과 제작의 참여 활동을 이끌어 내어 새로운 매체의 공유와 개발의 선순환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디지털 매체 등에 대해 교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 혜택을 주어 이용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온라인이나 디지털 교육의 보완점으로 교사와 학습자를 위한 멘토링 서비스를 지역 협의회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더 나아가 정부 기관 차원에서 제공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한국학교 교사들 대부분은 디지털 교육이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학교의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시점이며 적절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충분하다고 본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전문가 교사 평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사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준비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2) 21세기형 학습자 육성 방안

21세기가 요구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학습자 육성을 위한 한국학교 환경에서의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학습자들은 이미 디지털 세대들이므로 테크놀로지 면에서도 오히려 교사를 도와 주도적으로 수업 활동을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활용하여 테크놀로지 조교로 활용하거나 수업 과제 활동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면 학습자들은 단순한 학습 내용을 숙지하는 수동적 학습자를 벗어나 능동적 수업 참여자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 대해 한국학교 조교들에게 수여하는 대통령 봉사상과 같은 것과 유사하게 테크놀로지 조교 봉사상 같은 것을 수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 학습자들은 한국학교를 통해 한국어, 문화, 역사 학습뿐만이 아니라 21세기가 요구하는 직업 기술 준비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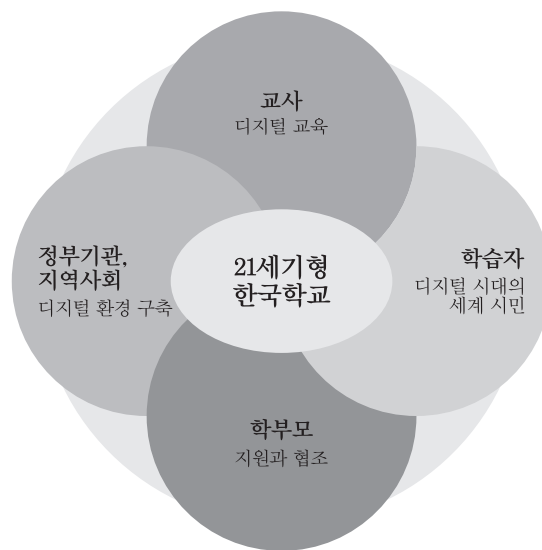
둘째, 문제해결 학습 방법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은 교사 주도의 전통적 수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주도의 프로젝트나 협동 학습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 동영상 만들기, 케이팝 뮤직 비디오 제작, 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도 많은 학습자들에게 참고 자료로써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각종 디지털 매체 제작을 하는 수업 과정이나 수상 대회를 통해 학습자의 활발한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학교 인근의 컴퓨터 관련 회사나 기관들과 산학 연합을 구축하거나 한국학교 학부모

들 중 디지털 테크놀로지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부모의 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학부모와 교사 집단이 참여하는 디지털 윤리 위원회나 의회 모임을 발족하여 한국학교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교육에 대해 학습자들이 건전하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협조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의 장을 커뮤니티 기반으로 확장함으로써 학습자들을 진정 21세기가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디지털 세계 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학습자들이 여러 정보를 융합하고 재구성하는 현 시대의 가치를 지니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을 재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학교는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21세기형 한국학교 모델



6. 나가는 말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어와 문화, 더 나아가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최고의 시기인 이때에,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기관인 한국학교의 위상과 그 역할에 대해 더욱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학교를 구성하는 교사와 학습자, 학부모, 지역 사회, 정부 기관 등 모두가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적 함의를 향해 공동의 준비와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 이에 발맞춰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적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함은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교수 방법을 필요로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것을 토대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수업 목적별로 향후 교과 과정과 교재 개발 시,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교육 매체 활용과 제작, 그리고 온라인 교육과 블렌디드 학습 전략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정보와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에 적합한 교육의 틀과 수업 자료, 수업 설계 등도 한국학교 담론에서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바로 지금이 한국학교가 그것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진(2018), 새로운 교육의 비전과 미디어 중심의 문화 리터러시 교육,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3-13.
- 남창우, 신동민(2019), 블렌디드 러닝 수업전략과 플립러닝 수업전략이 대학생의 사회적 실재감과 집단 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창의정보문화연구 5-1, 한국창의정보문화학회, 1-13.
- 방혜숙(2011), 미국 내 비정규 한국어 수업 과정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주미 한국대사관 수업 과정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19-147.
- 방혜숙(2015),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수업에 대한 선호도 및 요구 분석 연구, 민족문화연구 6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27-165.
- 양선희(2019),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례 분석, 사회과학연구 30-1,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1-228.
- 옥현진, 오은하, 김종윤(2018), 중학생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인지적 영역 성취기준개발, 국어교육연구 4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81-112.
- 이수진(2018),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사고 수업 디자인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36, 255-264.
- 최현희, 정문성(2018), 초등학교 학생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50-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71-189.
- 황준호, 한선관(2017), 스마트 학습 기반 블렌디드 수업 적용 연구,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1-2, 한국정보교육학회, 183-190.
- 홍명희, 이순영(2018), 오픈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요소 구성과 활용,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2-6, 한국정보교육학회, 711-721.
- Burden, K., Kearney, M., Schuck, S., & Hall, T. (2019). Investigating the use of innovative mobile pedagogies for school-aged studen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Computers & Education* 138, 83-100.
- Means, B., Toyama, Y., Murphy, R., & Baki, M. (2013). The effectiveness of online and blended learning: A meta-analysis of the empirical literature. *Teachers College Record*, 115-3, 1-47.
- Pufahl, I., & Rhodes, N. C. (2011).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in U.S. Schools: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Foreign Language Annals*, 44-2, 258-288.
- Stein, J. & Graham, C. (2014). *Essentials for Blended Learning: A Standards-Based Guide*. New York: Routledge.
- Thorne, K. (2003). *Blended Learning: How to Integrate Online and Traditional Learning*. London: Kogan Page.
- Tucker, C. (2012). *Blended Learning in Grades 4-12: Leveraging the Power of Technology to Create Student-Centered Classrooms*. CA: Corwin.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혁 (2018년 7월 ~2019년 6월)

2018년

· 2018. 7. 1. 한인 교육 연구 통권 제 33호 발행

· 7. 19~21 제3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날짜: 2018년 7월 19일(목) ~ 21일(토)

장소: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 Convention Center, 1551 Thoreau Dr. Schaumburg, IL 60173

주제: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교육

기조 강사: 전후석

목요특강

한국어 교사 집중연수 오픈 강의 (국립국어원) / 김경령
금속활자의 발명과 직지 (청주시 고인쇄 박물관) / 장원연
재외동포대상 한글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향 (국립한글박물관) / 문영은
NAKS SAT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및 특강 / 강주연, 손민호, 서희승
백범일지는 여행이다 (김구재단) / 정안젤라
독도 / 이상모
미국 한국어 교육자 심포지움

금요일 분반강의

한국어 학습전략 교사의 피드백 효과, 교수법에 대해 / 김경령
NAKS수준별 표준평가 및 반배치 고사 문제 특강 / 강주연, 손민호, 서희승
한글 맞춤법 / 이운영
기조 강사님과 만남의 시간 / 전후석
느끼고, 맛보고, 보고, 듣고, 말한다. [한글, 온몸으로 배우기] / 박현아
신나게 잘 노는 아이, 감성 풍부, 실력도 쑥쑥 / 황희연
동요로 배우는 한국어 / 김양진
이야기로 풀어내는 생활문과 독서감상문 / 김아영
한국어 문화수업의 실제 / 박기선
한국 역사문화수업, " 팔도유람" / 장은주
NAKS 한국학교 운영지침서 특강 / 송미령, 박은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 수지 오
유아유치반 (한글학습과 한국어 음운 인식) / 최영환
이야기로 배우는 한글, Learning Korean in Contexts / 김광희
중급반을 위한 쓰고 싶게 만드는 글쓰기 수업 모델 / 손민호
한국어 교육과 매체언어/ 이미향

윤동주 시 문학을 통한 한국역사, 문화 교육 / 명계웅
반크와 미국 한글학교 교사와 함께 하는 글로벌 한국홍보대사 실천 프로젝트 / 박기태
선생님, 저도 쓰고 싶어요! / 허은혜
지역 연계 한인 문화 정체성 교육 / 주현영
아카펠라로 함께 부르는 우리의 노래 / 한승모

토요일 분반강의

NAKS한국어 수업 학습활동 포스터 경시대회 참가자 발표 1, 2
NAKS 역사문화 수업교안 평가 및 특강 / 김선미
수업에 활용하는 국악놀이 (명절편) / 김희진
모국어 가르치는 교사, 외국어 배우는 학생 / 문난모
초급반 1강 (발음과 표기; 받아쓰기를 통하여) / 최영환
한국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 임정은
우리 아이 리더로 크고 있나? / 김인승
한글기초 학습 단계별 내용과 교구활동/ 김은정
단오절 부채 이야기 / 정미숙
초급반 2강 (일기쓰기를 통한 표현력 제고) / 최영환
아카펠라로 함께 부르는 우리의 노래 / 한승모
선생님, 공부말고 댄 거 해요! (기초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글놀이) / 박소미
효과적인 통합 교수 방안과 평가 / 김인희
풍선 아트와 한국어 교육 / 이광희
학습 단계별 교구를 이용한 한글 기초반 수업 활동 / 김은정
SNS & Wimp Kid 세대 아이들의 한글학습: 동기부여 / 이영옥
아이들 글로 노래 만들고, 부르기 / 한승모

토요특강

낙스와 함께하는 글로벌 한국홍보 대사 양성 프로젝트 / 박기태
Panel Discussion (주제: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Panelist:

– Paul Sandroek, Director of Education,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for Foreign Languages (ACTFL)/
NAKS–ACTFL Certification for Teaching Korean
– 이승민 총회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체성 교육의 동반자, 한국학교 그리고 NAKS
– 신문규 교육관, 주미한국대사관/ 미국 한국어 교육의 방향
– 기준 사업이사,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의 학교 지원 방향

[동시 개최]

제14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제7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및 제3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제3회 한국역사문화 리더십 캠프
한국문화체험관
미국 한국어 교육자 심포지엄

[사전 개최]

제 9차 한국어교사 집중 연수회 / 7월 18일(수)~19일(목)

- **공로패 증정:** 김대영 전 NAKS 부이사장
- **감사패 증정:** 선우인호 동남부협회장

· 개교 40주년 이상 수상 한글/한국학교

샌안토니오 한국학교, 북부보스턴 한국학교, 빛내리 한글학교,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칼라마주 한국학교, 성김안드레아 한국학교, 갈보리 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 개교 30주년 이상 수상 한글/한국학교

뉴저지훈민학당한국학교,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한국학교,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한 마음 한글학교, 천주교 산호세 한국학교, 이스트베이제일침례교회 한국학교, 열린문 한국학교, 나일스 한국학교, 아이타스카 한국학교, 세인트루이스한국학교

· 개교 20주년 이상 수상 한글/한국학교

뉴욕초대한국문화학교, 올랜도 푸른동산한국학교, 비전한국학교, 나리한국학교, 시온한국학교, 영생한국학교, 무지개한국학교, 무궁화한국학교

· 장기근속 교사 수상자 (30년 이상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공로패)

김옥현(35), 송지은(33), 문혜원(30), 김영선(30), 조영숙(30)

25년- 김미령, 김윤희, 남 일, 박현순, 황정숙, 이미경, 황수경, 심미아, 박동순, 신현주

20년- 남궁 령, 심승재, 윤정옥, 인명희, 정혜선, 김순희, 고수지, 오준석, 남혜영, 김보경, 김정애, 김해옥, 심은정, 노정희

15년- 진정선, 김태자, 현은정, 오은정, 박희경, 박준림, 김현정, 박성심, 김미애, 이진윤

10년- 김미송, 정영민, 유희경, 임미정, 백재숙, 김동규, 노윤경, 최연식, 김소희, 김정자, 남선경, 정연주, 박리라, 박수경, 원영미, 유경희, 신주리, 이옥순, 윤수영, 서정은, 이수경, 최윤경, 진지영, 고성옥, 최성안, 강미은, 김채향, 최효순, 이은아, 최민아, 박현숙, 이진아, 송채원, 김희경, 국원혜, 오새아, 김주영, 이은애, 이영숙, 강은경, 최규용, 이병용, 홍혁란, 박종주, 한민정, 김은주, 신수희, 박건희, 조장현, 장순애, 이수진, 민순미, 곽재민, 김정연, 이선희, 이사라, 최양선

-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여자: 김미령, 서용학, 김혜성, 설인숙, 박성희, 이병용, 소선주, 이상희, 이지혜, 권선희, 김미경
- 국립국어원장 공로패: 김미경, 김선미, 김정선, 박희경, 손미호, 송미령, 심수목, 심은정, 이주현
- 국립국제교육원장 공로패: 김명숙, 김애경, 문혜원, 박준림, 서희승, 선우인호, 안지영, 윤하나, 황희연
- 직지사: 강주연, 김지선, 손애자, 이경애, 지수경
- 독도상 : 김윤희, 사모아한글학교, 이수영, 이승연, 템파통합한국학교

· 2018. 7.20. 양해각서 체결: NAKS—공관—VANK

· 7.20. 정기 이사회

- 고은자 이사장 사임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의사를 밝힘
- 제38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확정

· 7.21. 제36차 정기총회- 제19대 임원 선출

- 총회장: 오정선미
- 부회장: 한연성, 심수목, 임지현 -재무: 김미경(2018년 9월~2019년3월, 정광미 2019년 3월~ 현재)
- 사무총장: 한희영 - 편집장: 권예순
- 간사: 이상훈(교육), 여승진(홍보), 남궁령(웹)

· 지역협의회 회장

남서부: 김윤희 / 뉴잉글랜드: 이현경/ 동북부: 황현주/동중부: 이경애 /북가주: 황희연 /서북미: 조영숙/
중서부: 이미희/ 중남부: 김명숙/ 플로리다:김진희 /동남부: 선우인호/ 미시간: 김선미 /워싱턴: 김명희/
콜로라도: 유미순 / 하와이: 손애자

· 9.11. 임시이사회에서 임시이사장 김용순, 부이사장: 오준석 총무이사로 이병용 선출됨

· 9.15. 18대 19대 인수인계 및 시무식

2019년

· 2019. 1.4~6. 지역협의회 회장, 집행부 임원,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장소: Double Tree by Hilton Seattle Airport, Seattle, WA

· 3.22~24. 제 23회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4.1. 회보 제 19권 1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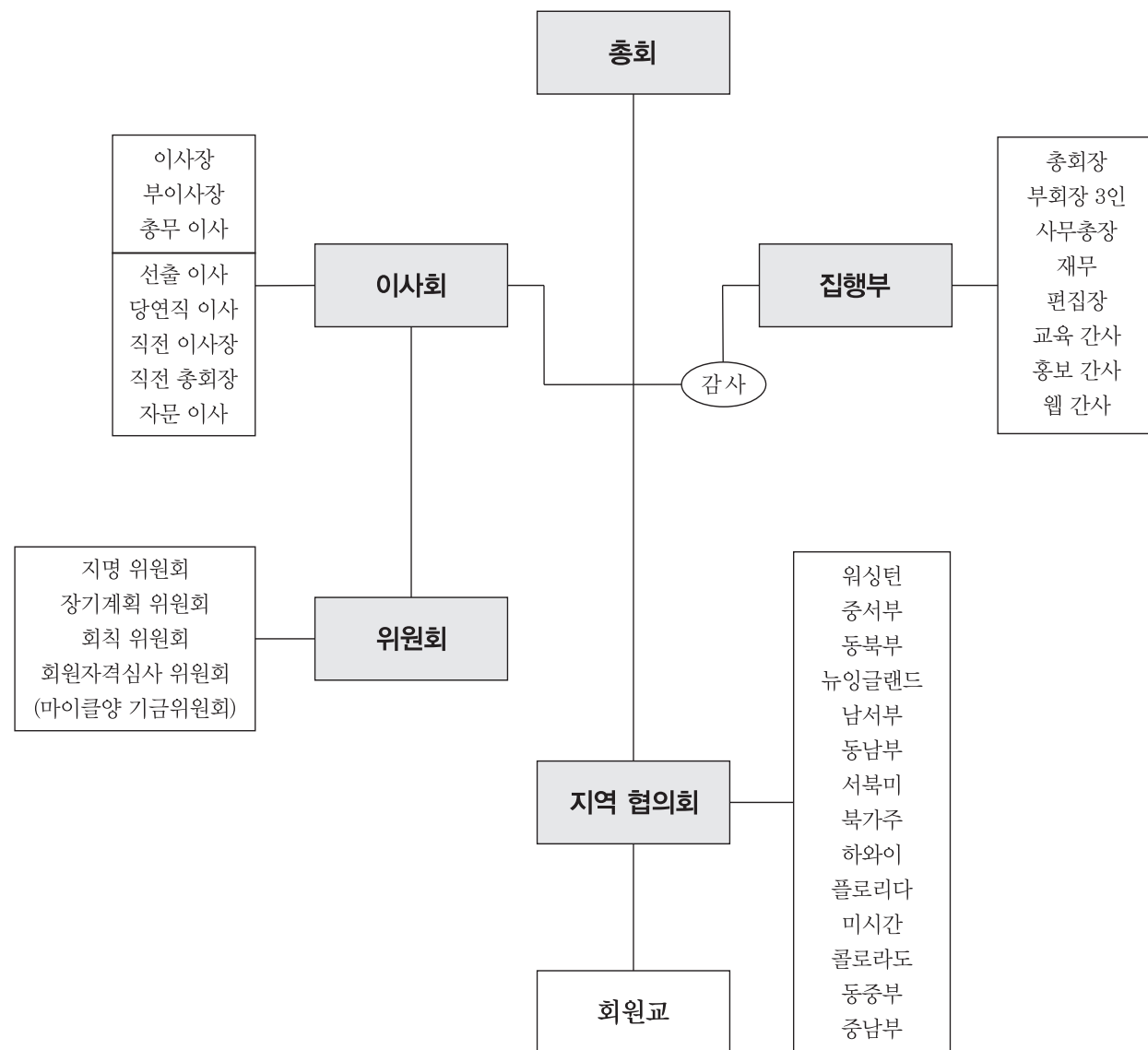
· 6.15 제 5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

장소: Renaissance Philadelphia Airport, Philadelphia, PA
주제: 차세대 교사의 역할과 리더쉽
참석자: 6개 지역협의회회 차세대 교사, 강사, 관련자 20여 명

· 7.1. 한인 교육 연구 통권 제 34호 발행

지난 38년간(1981년~2019년)의 전체 연혁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웹사이트 www.naks.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조직도



NAKS 및 14 지역협의회 창립 연혁

번호	협의회 명칭	창립일	도시	초대 회장
1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창립	1981.04.18	Washington D.C.	주하성
2	워싱턴지역협의회 창립	1984.03.23	Washington D.C.	염영일
3	중서부지역협의회 창립	1985.03	Chicago, IL	김기원
4	동북부지역협의회 창립	1985.05.11	New York, NY	허병렬
5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창립	1989.10.14	oston, MA	김영집
6	남서부지역협의회 창립	1989.11.18	Houston, TX	하인태
7	동남부지역협의회 창립	1990.11.03	Atlanta, GA	김경숙
8	서북미지역협의회 창립	1991.03.01	Seattle, WA	오계희
9	북가주지역협의회 창립	1991.03.02	San Francisco, CA	정희상
10	하와이지역협의회 창립	1991.03.03	Honolulu, HI	조성천
11	플로리다지역협의회 창립	1991.03.16	Miami, FL	정대용
12	미시간지역협의회 창립	1992.03.21	Detroit, MI	남영림
13	콜로라도지역협의회 창립	1992.03.28	Denver, CO	선창균
14	동중부지역협의회 창립	2000.09.30	Philadelphia, PA	김정근
15	중남부지역협의회 창립	2007.10.13	Indianapolis, IN	김용순

역대 이사회 임원

순위	이사장	임기	부이사장	총무이사	감사
초대	오학근	1981년 4월 ~ 1982년			고일석, 고충흠
2대	주하성	1984년 11월 ~ 1987년 8월			이춘재, 정금조
3대	강경식	1988년 9월 ~ 1991년 8월		류기창	김일호, 김치경
4대	허병렬	1991년 9월 ~ 1994년 8월	김치경 (임근자)	류기창 (임근자)	김숙자, 김송희
5대	황보철	1994년 9월 ~ 1997년 8월	이광자	이경이	김근순, 김정오
6대	서문원	1997년 9월 ~ 2000년 8월	김기봉 (임근진)	조동렬 (김근순)	김정태, 이휘자
7대	이상오	2000년 9월 ~ 2003년 8월	김홍준	남경숙	남영림, 이광호
8대	최경수	2003년 9월 ~ 2006년 8월	정원팔	심형란	이광자, 이휘자, 이내원
9대	김홍준	2006년 9월 ~ 2009년 8월	이내원	오금옥	홍태명, 조산숙, 정삼숙
10대	이내원	2009년 9월 ~ 2010년 8월	김수라	이호순	심상연, 홍태명
11대	이광호	2010년 9월 ~ 2013년 8월	장동구	이호순	문성록, 허낭자, 김대영, 심형란
12대	장동구	2013년 9월 ~ 2016년 8월	김대영	김미경	심형란, 신현주, 심운섭, 홍승희
13대	고은자	2016년 9월 ~ 2018년 8월	신은주	황희연	길병도, 황현주, 김현, 김용수
14대	김용수	2018년 9월 ~ 현재	오준석	이병용	홍태명, 김현

역대 협의회 임원진

순위	년 대	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총장	재무	편집장	간사
제 1 대	1981.4.~1984.10.	주하성 Harold Chu	강경식 서문원 백예원	이서구			
제 2 대	1984.11.~1986.8.	강경식 Kyung Sik Kang	서문원 김치경 염영일	이영장	고의곤		
제 3 대	1986.9.~1988.8.	서문원 Moon Won Suh	고의곤 김유미	김기봉	김영균	류기창	
제 4 대	1988.9.~1990.8.	허병렬 Grace Huh	황보철 이상오 정금조	김기봉	이휘자		
제 5 대	1990.9.~1992.8.	황보철 Charles C. Hwangbo	남영림 김기봉 김일호	류기창	이휘자	허병렬	
제 6 대	1992.9.~1994.8.	김기봉 Kibong Kim	김정오 이경이 류기창	이광자	김근순	허병렬	
제 7 대	1994.9.~1996.8.	이상오 Sang-0 Rhee	함혜란 김홍준 장혜경	방정웅	이휘자	허병렬	
제 8 대	1996.9.~1998.8.	최경수 Kyungsoo Choi	방정웅 이광호 박규영	명계웅	임선자	허병렬	김정태 (기록)
제 9 대	1998.9.~2000.8.	방정웅 Jung Woong Bang	이광자 임선자 손창현	장동구	심운섭	허병렬	

순위	년 대	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총장	재무	편집장	간사
제10 대	2000.9.~2002.8.	임선자 Suncha Lim Lee	김정태 김근순 강용진	심운섭	심수목	허병렬	
제11 대	2002.9.~2004.8.	이광호 Kwang-Ho lee	장동구 남경숙 심운섭	김정근	이경이	이영주	이민노
제12 대	2004.9.~2006.8.	손창현 Chang Hyun Son	정삼숙 심용휴 김정근	이민노	권옥순	이영주	손애자 최희운 심수목
제13 대	2006.9.~2008.8.	김정근 JungKeun Gim	전수경 권옥순 이민노	남일	심형란	심수목	오선미 김진형
제14 대	2008.9.~2010.8.	이민노 Paul M. Yi	김대영 신현주 남일	정용철	심형란	윤미자	오선미 고은자 엄재운
제15 대	2010.9.~2012.8.	심용휴 John Y. Shim	강상인 강남옥 최미영	남상업	오금옥	김인숙	심정균 김에스터 이현진
제16 대	2012.9.~2014.8.	강용진 Yongjin Kang	강남옥 문윤희 선우인호	김선미(전) 한순용(후)	송지은(전) 한순용(후)		노옥남 김금자 이정현(전)
제17 대	2014.9.~2016.8.	최미영 Miyoung Kim	김정자 김인숙 이승민	오정선미	유미순	황정숙	한희영 권예순 김원구(웹)
제18 대	2016.9.~2018.8	이승민 Seungmin Lee	오정선미 유미순	황정숙	김미경	김윤희	김선형(교육) 윤한나(홍보) 지수경(웹)
제19 대	2018.9.~현재	오정선미 Sunmi Jung Oh	한연성 심수목 임지현	한희영	김미경(전) 정광미(후)	권예순	이상훈(교육) 여승진(홍보) 남궁령(웹)

역대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지

회차	연도	날짜	개최 도시	개최지 지역 협의회	주제	장소
제 1회	1981년	4월 (창립 총회)	Arlington, VA	워싱턴	N/A	Hyatt Hotel
제 2회	1984년	11월	Arlington, VA	워싱턴	N/A	Hyatt Hotel
제 3회	1985년	11월 30일	New York, NY	동북부	N/A	Holiday Inn
제 4회	1986년	9월 6일	Chicago, IL	중서부	N/A	Hyatt Lincolnwood
제 5회	1987년	8월 30일	Baltimore, MD	워싱턴	N/A	Omni Int'l Hotel
제 6회	1988년	8월 27일	New York, NY	동북부	21세기로 가는 한인 2세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Marriott Hotel
제 7회	1989년	8월 25일~26일	Chicago, IL	중서부	교육과정 정립으로 효과적인 2세 교육을 하자	Hayatt Hotel
제 8회	1990년	8월 24일~25일	Arlington, VA	워싱턴	한국의 일을 심는 뿌리교육을 하자	Holiday Inn
제 9회	1991년	8월 23일~24일	Houston, TX	남서부	한민족의 일을 심는 뿌리교육을 하자	Double Tree Hotel
제 10회	1992년	8월 28일~29일	Baltimore, MD	워싱턴	재미한인교육 재검토	BWI Marriott
제 11회	1993년	8월 27일~28일	New York, NY	동북부	항상하는 한국학교 성장하는 꿈나무들	Holiday Inn
제 12회	1994년	8월 19일~20일	Chicago, IL	중서부	세계화 시대의 2세 교육	Radisson Hotel
제 13회	1995년	8월 25일~26일	Los Angeles, CA	미주한국학교협의회와 공동주최	21세기 지도자는 창의적인 2세 교육으로	Omni Angeles Hotel
제 14회	1996년	8월 9일~10일	Seattle, WA	서북미	2세 교육창달은 한국 교육문화 전승으로	Pacific Lutheran University
제 15회	1997년	8월 7일~9일	Chicago, IL	중서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으로서의 2세 교육	Chicago Marriott
제 16회	1998년	8월 13일~15일	Atlanta, GA	동남부	차세대 한국어 교육의 최대효과는 교육과정의 표준화로부터	Atlanta Airport Marriott
제 17회	1999년	7월 29일~31일	Dallas, TX	남서부	한국 교육의 창조성 재발견	Harvey Hotel
제 18회	2000년	8월 3일~5일	San Francisco, CA	북가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교육 공동체	Clarion Hotel

회차	연도	날짜	개최 도시	개최지 지역 협의회	주제	장소
제 19회	2001년	7월 23일~25일	Arlington, VA	워싱턴	새천년의 한인학교	Hyatt Regency Crystal City
제 20회	2002년	7월 18일~20일	Philadelphia, PA	동중부	새 시대를 여는 교사	Hyatt Regency
제 21회	2003년	7월 23일~25일	Honolulu, HI	하와이	다가올 100년과 차세대 교육	Hyatt Regency
제 22회	2004년	7월 22일~24일	Atlanta, GA	동남부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의 확립	Atlanta Marriott Gwinnett Place
제 23회	2005년	7월 21일~23일	Houston, TX	남서부	차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체성과 지도자 교육	Hyatt Regency Houston Airport
제 24회	2006년	7월 20일~22일	Denver, CO	콜로라도	세계속의 한류 문화와 창조적인 정체성 교육	Hyatt Regency Tech Center
제 25회	2007년	8월 2일~4일	Detroit, MI	미시간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과 교사의 역할	Hyatt Regency Dearborn
제 26회	2008년	7월 17일~19일	Boston, MA	뉴잉글랜드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 교사의 역할	Sheraton Framingham Hotel
제 27회	2009년	7월 22일~24일	Orlando, FL	플로리다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세계를 향한 인재교육	Rosen Center Hotel
제 28회	2010년	7월 22일~24일	Seattle, WA	서북미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한국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	Hyatt Regency
제 29회	2011년	7월 14일~16일	San Francisco, CA	북가주	교육과정 확립과 전문성을 향한 도약	Hyatt Regency
제 30회	2012년	7월 24일~26일	Reston, VA	워싱턴	학술대회 30년의 교육적 성과와 미래의 방향	Hyatt Regency Reston
제 31회	2013년	7월 18일~20일	Honolulu, HI	하와이	이민 110년과 한국학교	Hilton Hawaiian Village
제 32회	2014년	7월 3일~5일	Indianapolis, IN	중남부	봉사와 전문성	JW Marriott Hotel
제 33회	2015년	7월 16일~18일	Teaneck, NY	동북부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	Teaneck Marriott Hotel
제 34회	2016년	7월 14일~16일	Denver, CO	콜로라도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제 35회	2017년	8월 10일~12일	Atlanta, GA	동남부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Atlanta Marriott Marquis
제 36회	2018년	7월 19일~21일	Schaumburg, IL	중서부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 Convention Center
제 37회	2019년	7월 18일~20일	Seattle, WA	서북미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한국어 교육	DoubleTree by Hilton Seattle Airport

북미지역 한국교육원 공동사업 개요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발자취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한국교육원

1. 한글학교 지원

- 한글학교 교재 및 교과서 보급
- 한글학교 지원금 및 각종 업무지원

2. 한국어 보급

- 해외 초중고 한국어 채택 개설 및 확대
- 한국어 강좌 운영

3. 한국 유학 홍보

- 한국정부 유학생 유치 정책 및 제도 홍보
- 한국 유학 박람회 개최 및 참석 등 지원

4.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모집

- 한국 정부 초청 대학원 장학생(GKS) 홍보 및 모집
- 지역 심사 및 중앙 심사를 통한 장학생 추천

5. 한국어 능력시험(TOPIK)시험

- 정부 인증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매년 1회 혹은 2회)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6.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선발

- 한국내 농산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한국 문화 체험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자 (미국 영주권자 이상)로 4학기 이상 수료한 자

7. 국제교육 교류

- 시도 교육청 교류 방문 활동 지원
- 한미 교육 관계기관 간 국제 교류 활동지원

8. 해외 교육 정보 수집

- 미국 주정부 및 지역정부 주요 교육 정책 및 제도 자료 수집 보고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한글학교용 교재 개발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보급 사업

현지 교원 방문 연수

e-러닝 한국어 교육자 학습센터

재외동포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우리말 · 우리글 청소년 캠프

우리말 · 우리글 교육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함께 합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재외동포교육 활성화와 해외 한국어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한국어교육을 통한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글학교용 교재개발,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보급 사업, 현지 교원 방문 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한국어보급 확대를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여름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해외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와 우리말 · 우리글 청소년 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